2013. 1. 25. (통권 9호)

2013. 01.

월간 콘텐츠 시장동향

한국콘텐츠진흥원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Contents

Section 1

제 1부 콘텐츠 시장통계

1. 출 판 13
2. 만 화 22
3. 음 악 30
4. 공 연 40
5. 게 임 45
6. 영 화 52
7. 애 니 메 이 션 59
8. 캐 릭 터 70
9. 방 송 72
10. 광 고 83
11. 지 식 정 보 87

Section 2

제 2부 콘텐츠 통계 브리핑

▌국 내 편▐

1. 2011년 기준 국내 콘텐츠산업 시장집중도 분석 94

▌해 외 편▐

1.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프트웨어산업의 변화 98

콘텐츠 시장통계

<월간 콘텐츠 시장동향 2013년 1월호 - 2012년 12월의 시장동향 요약 >

분야	12월 시장동향
출판	○ 소설에 대한 수요 다소 회복 / 새해를 앞두고 자기계발서가 강세 》 최근 소설의 부진을 딛고 황석영, 성석제, 송지나, 기욤 뮈소 등 인기 작가의 신작 소설이 상위권에 랭크 》 '습관의 힘'(2위), '언니의 독설'(3위),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10위) 등 자기계발서가 강세
만화	○ '신과 함께' 등 완결된 웹툰 서비스의 유료화 추세 》 '네이버 웹툰' 및 '다음 만화속세상'에서 완결된 웹툰에 대한 유료 서비스 정책이 부분적으로 시행 》 2012년 단행본 발행종수 3,241종으로 2011년 대비 452종 감소(최근 10년 내 최저치)
음악	○ 이승기의 '되돌리다'가 디지털 음악 종합차트 1위 / 12월 오프라인 앨범 판매 연간 최저치 기록 》 이승기의 음원이 종합차트 1위 / 소녀시대의 'I Got A Boy' 뮤직비디오 공개 16일 만에 3,000만 조회수 돌파 》 상위 15개의 오프라인 앨범 판매량이 17만장에 그침 / 20위까지의 가온지수 합계도 부진
공연	○ 2개월 연속 1위에 오른 '오페라의 유령' / 방학시즌 어린이 뮤지컬들의 강세 》 '오페라의 유령' 등 오리지널, 라이선스 뮤지컬의 시장 선도 속에 국내 창작 뮤지컬은 다소 고전 》 반면 어린이 뮤지컬 시장에서는 겨울방학 특수로 '번개맨의 비밀', '로보카 폴리' 등 국내 창작극이 인기
게임	○ '리그 오브 레전드' 200만 이용시간 돌파하며 25주 연속 1위 》 겨울방학 및 휴일을 맞아 Top 20위 게임의 사용시간 전월대비 11% 상승 》 '리그 오브 레전드'에 힘입어 34.7%의 <RTS>가 <RPG>를 0.16%p 차이로 따돌리고 장르별 이용시간 1위에 등극
영화	○ '레미제라블'이 선전했지만 한국영화 점유율은 53.7%로 양호 (12월 한국영화 관객수 1,106만명) 》 '레미제라블'이 관객수 321만명을 동원하며 1위, 2위는 '26년'(266만명), 3위는 '호빗: 뜻밖의 여정'(261만명) 》 12월 한국영화 관객 점유율은 53.7%로 전년동월 37.2% 대비 16.5%p 증가
애니메이션	○ '마당을 나온 암탉' 등 크리스마스 특집 편성 애니메이션이 시청률 상위에 랭크 》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방영된 극장판 애니메이션들이 대거 지상파 시청률 차트 상위권에 오름 》 국산 애니메이션 '머털도사'와 '안녕 자두야'가 각각 EBS, 전문채널 시청률 1위를 기록하며 선전
캐릭터	○ '또봇', '로보카 폴리', '뽀로로' 등 국산 유명 캐릭터 상품 판매 호조 》 인기 애니메이션으로 인해 인지도가 높아진 국산 캐릭터 상품이 소매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강세
방송	○ '대선 특수'로 인해 종합편성채널 시청률 급격히 상승 》 연말 특집방송과 대선 보도의 영향으로 11월 대비 4.09%p 증가한 38.09%의 높은 평균시청률을 기록 》 특히 종편의 시청률은 역대 최고치로 상승 (MBN 1.01%, 채널A 0.91%, TV조선 0.74%, JTBC 0.67%)
광고	○ 검색광고 - 오버추어 철수로 네이버 점유율 확대 및 다음의 시장 진출 본격화 》 검색광고 시장에서 네이버는 전월대비 2.6%p 증가한 42.0%의 점유율로 1월 이후 11.1%p 점유율 상승 》 자체 검색광고 서비스를 시작한 다음은 기존 오버추어 계약 광고주들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경주
지식정보	○ 국내 LTE 서비스 가입자 2013년 말 2,500만명 예상 (2012년 12월 1,589만명) 》 12월 말 기준 국내 LTE 가입자수는 SKT 760만명, LG유플러스 439만명, KT 390만명 등 총 1,589만명 》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순위에서는 카카오톡 플랫폼을 활용한 게임들의 선전이 지속되었으나 영향력은 다소 약화

출판시장 : 소설에 대한 수요 다소 회복 / 새해를 앞두고 자기계발서가 강세

- 연말과 대선 정국을 맞이한 12월 출판시장에서는 힐링 에세이와 멘토링 자기계발서의 인기가 꾸준한 가운데, 독자들에게 검증된 유명 저자가 출간한 신작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상위권에서는 신작과 스테디셀러가 함께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고, 다가올 새해를 준비하고 모색하는 연말의 시류에 부응하여 새로운 시작을 가이드하는 멘토들의 자기계발서가 돋보인 것이 특징이다. 해외 유명대학의 명강의로 다양한 논의를 제공하는 도서 출간도 지속되었다. 한편으로는 황석영, 성석제, 송지나, 기욤 뮈소 등 신작 소설이 상위권에 등장하여, 새해에는 보다 많은 문학도서가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 12월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순위에서는 작년 한해동안 힐링 열풍을 주도한 혜민 스님의 책이 1위를 수성하였고, 변화와 행동의 실천을 강조한 '습관의 힘'은 3위에서 2위로 상승했다. 여성 멘토 김미경의 30대를 위한 '언니의 독설'은 3위에 올랐고, 꿈을 실현하는 법칙을 담은 동일 작가의 또다른 신작 '김미경의 드림 온' 역시 상위권에 오르며 주목을 받았다. 죽음이라는 철학적 주제의 예일대 인기강의를 다룬 '죽음이란 무엇인가'는 삶과 존재에 대해 쉽게 읽히는 내용으로 5위로 급상승했고, 프랑스를 대표하는 인기작가 기욤 뮈소의 신작 '7년 후'는 발간과 동시에 6위에 올랐다.

-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100위를 분야별로 분류한 결과, 종이책 시장은 11월과 비교하여 '소설', '자기계발', '어린이', '역사/문화' 분야가 증가하는 대신 '시/에세이', '경제/경영' 분야는 감소했고, e북 시장은 '자기계발' 관련 도서가 급증하면서 '장르소설'의 비중이 다소 줄어들었다.

- 서비스업체별 e북 판매 순위에서는 마켓별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리디북스〉에서는 '에세이'와 '자기계발'형 실용서가 10위권 내 절반을 차지하였고, 〈T스토어〉는 장르소설의 연재로 고정 작가 팬이 늘어나면서 세트 판매가 주류를 이뤘다. 〈리디북스〉와 〈올레e북〉 등은 상대적으로 다양한 카테고리의 도서가 순위권에 포진하고 있다. 〈리디북스〉의 전자책 10위권과 〈교보문고〉 종이책 10위권을 살펴본 결과, 3권이 동시에 베스트셀러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나 전자책과 종이책 인기의 동조화(coupling)가 일정 수준으로 반복되고 있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 독자들의 도서 선택지를 지표로 보여주는 신간 발행 종수(출판유통진흥원 집계)는 8월 이후 계속해서 전년 대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12월의 발행 종수는 전년동월 대비 40% 정도 감소한 3,186종에 머물렀다(출판유통진흥원).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집계한 분야별 신간도서 발행 종수에서도 올해 들어 가장 낮은 1,136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 수준으로 파악되었다(향후 집계량 추가 예상). 이는 발행 종수 증가에 따른 소비 유발 효과보다는 양질의 콘텐츠로 승부하기 위한 출판사의 변화로 추정된다. 11월 발행 종수와 비교하면 모든 분야에서 하락하였고 발행종수 비중이 높은 '문학'과 '아동'을 비롯해서 '사회과학', '기술과학' 등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만화시장 : '신과 함께' 등 완결된 웹툰 서비스의 유료화 추세

- 12월 한국만화 베스트셀러에서는 다음 만화속세상에서 최장기간 평점 1위를 유지하며 인기리에 연재중인 윤태호 작가의 '미생'이 제4권을 발매하며 11월에 이어 1위에 올랐다. 올해 많은 사랑을 받은 '다이어터'도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2위를 유지했고, 한국의 민화와 설화, 사후세계를 새롭게 풀어낸 '신과 함께'가 3위로 올라섰다.

- 한편, 지난 9월 완결된 네이버 웹툰 '신과 함께'의 다시보기 서비스가 유료로 전환되면서 논쟁이 일고 있다. 다음 역시 '만화속 세상'에서 완결된 작품에 대한 유료화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웹툰은 한국을 대표하는 콘텐츠로 자리매김한지 오래지만, 무료 서비스가 일반화되며 작가들로서는 포털에서 지급하는 적은 원고료와 영화화되는 극소수 작품에 대한 저작권료, 단행본 수입 이외에는 이렇다 할 수익모델이 없었다. 작가들은 수입의 안정을 통해 더 나은 창작물의 생산을, 포털은 웹툰을 활용한 수익모델 확립을 기대하고 있으나 웹툰은 무료라고 인식하고 있는 독자들의 거부감을 해결하는 것이 숙제로 남아 있다.

- 12월 만화 단행본 출간 종수는 231종으로 11월에 비해 소폭(11종) 증가했으나, 2012년 한 해 동안 출간된 만화 종수는 총 3,241종으로 2011년 대비 452종이 감소해 최근 10년간 최저치를 기록했다. 만화 단행본 출간 종수는 2007년 4,000종 아래로 떨어진 이후 5년 동안 3,000종 가량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 2012년 10월에서 12월까지 국내에서 출간된 722종의 만화 중 한국작가의 작품은 248종, 일본작가의 작품은 469종으로 나타났다(기타국가 5종). 11월과 비교하면 한국작가의 작품이 20종이나 증가했고, 일본작가의 작품은 8종이 감소했다. 2009년과 비교하면 전체 만화 출간 종수가 많이 줄어들기는 했으나, 한국작가의 만화에 비해 일본작가 만화의 출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음악시장 : 이승기의 '되돌리다'가 디지털 음악 종합차트 1위 / 12월 오프라인 앨범 판매량 연간 최저치 기록

- 12월에는 이승기의 5.5집에 수록된 '되돌리다'가 가온 디지털 음악 종합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 양요섭의 '카페인'이 2위에 올랐고,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들의 '크리스마스니까'가 3위로 새롭게 순위에 진입했다. 20위권 곡들의 가온지수 합계는 1,126,003,136점으로 전월대비 대폭 감소했는데 이는 2012년 조사 결과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치이다.

- 12월 오프라인 앨범차트에서는 신혜성의 스페셜 앨범 'WINTER POETRY'가 깜짝 1위를 차지했다. 동방신기의 'Humanoids'는 지난달에 이어 2위를 지켰고, 양요섭의 'The First Collage'가 3위로 올라섰다. 12월 오프라인 앨범판매 TOP 15의 합계는 17만장으로 2012년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

- 유튜브 K-POP 조회수 순위(12월 신규등록)에서는 지난달에 이어 소녀시대가 1위를 차지했다. 정규 4집 앨범 발매를 앞두고 발표된 타이틀곡 'I Got A Boy'의 뮤직비디오 티저와 선공개된 'Dancing Queen'이 1위부터 3위까지의 순위를 휩쓸었다. 'I Got A Boy'의 뮤직비디오는 공개 7일 만에 2,000만, 16일 만에 3,000만 조회수를 돌파하며 K팝 뮤직비디오 최단시간 기록을 세우고 있다.

- 12월 음악 관련 프로그램 시청률은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사간의 희비가 엇갈렸다. 연말을 맞아 각종 특집방송을 편성한 지상파 프로그램은 대부분의 시청률이 상승했으나, 케이블 방송은 시청률이 오히려 하락했다. 프로그램별로 살펴보면 SBS의 'K팝 스타 시즌2'가 13.4%의 시청률로 전월에 이어 1위를 차지했다. 음원시장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악동뮤지션을 비롯해 다양한 화제를 양산하고 있으며, 기획사의 트레이닝을 받는 본격적인 경연이 시작되어 당분간 인기가 지속될 전망이다. KBS의 '불후의 명곡'도 10%에 가까운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고, 12월 가왕전을 펼친 '나는 가수다 시즌2'도 0.5%p 상승한 5.65%의 시청률로 프로그램을 매듭지었다.

공연시장 : 2개월 연속 1위에 오른 '오페라의 유령' / 방학시즌 어린이 뮤지컬들의 강세

◉ 10월, 11월에 이어 12월 공연시장 종합 순위에서도 '오페라의 유령'이 1위를 수성했다. 3월 24일로 종연일이 확정된 이 작품의 인기는 90% 이상의 좌석점유율을 바탕으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오는 1월 26일에는 2001년 국내 초연 이래 총관객 1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겨울방학 시즌을 맞아 돌아온 EBS 어린이 뮤지컬 '번개맨의 비밀'은 2위에 올랐고, '파워레인저 캡틴포스', '로보카 폴리' 등 총 세 편의 어린이 뮤지컬이 순위에 올랐다. 이제는 방학 특수를 노린 창작 어린이 뮤지컬 공연이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 잡은 모습이다.

◉ 〈뮤지컬〉 분야에서는 '오페라의 유령'이 1위를 지킨 가운데 '아이다'와 '황태자 루돌프'가 2, 3위 자리를 바꾸었다. 올 한해는 창작 뮤지컬이 나름의 성과를 거두기는 했지만 티켓 매출과 점유율 면에서는 검증받은 대작 위주의 오리지널, 라이선스 뮤지컬이 시장을 이끌었다. 이러한 흐름은 연말까지 지속되어 12월 뮤지컬 상위 10개 작품 중 9편이 오리지널, 라이선스 뮤지컬이었다. 유일하게 창작 뮤지컬로 10위에 오른 '심야식당'도 동명의 일본 베스트셀러 만화를 원작으로 제작한 작품으로, 어린이 뮤지컬과 달리 성인 뮤지컬 시장에서는 국내 창작물이 고전했다.

◉ 〈연극〉에서는 장기 공연작인 '옥탑방고양이(대학로)'가 1위를 유지했고, '나쁜 자석'과 '국민연극 라이어 1탄 - 대학로'는 순위를 바꾸며 2, 3위를 기록했다. 또한 '옥탑방고양이'의 강남 공연이 5위에, '라이어'는 무려 3편이 4, 6, 7위에 올랐는데, 이들 작품은 온오프라인을 망라하는 다양한 마케팅과 할인 혜택을 통해 관객을 끌어들이고 있다.

◉ 〈콘서트〉 티켓 판매 순위에서는 김준수의 'XIA Ballad&Musical Concert with Orchestra'가 1위에 올랐다. 2위와 3위는 컬투의 '크리스말쇼', 김범수 박정현 콘서트 '그해, 겨울'이 각각 차지했다. 4위를 차지한 김동률 콘서트 '감사'를 제외하면 모두 연말을 노린 콘서트여서 1월 콘서트 차트의 변동이 심할 것으로 보인다.

◉ 〈클래식/오페라〉에서는 지난달 3위였던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명곡을 다시 들을 수 있는 '디즈니 온 클래식'이 1위로 올라섰다. '유키 구라모토와 친구들'은 2위로 한 단계 하락했으며, 정명훈이 이끄는 서울시향의 '특별음악회 : 베토벤'이 3위를 차지했다.

◉ 12월의 〈국악/무용 분야〉에서는 연말의 주요 레퍼토리인 발레 '호두까기 인형'이 1위부터 6위까지 차트를 휩쓸었다. 유니버설 발레단의 서울, 군포 공연이 1위와 4위에 올랐고, 예술의 전당에서 펼쳐진 국립발레단의 서울 공연이 2위에 올랐으며, 대전 · 대구 · 여수에서 펼쳐진 지방 공연이 3, 5, 6위를 차지했다. '호두까기 인형'의 공연이 종료되는 2013년 1월 차트에서는 새로운 작품들이 대거 순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 12월 공연시장 종합 50위(콘서트 제외)를 분석해보면, 34편을 차트에 올린 〈뮤지컬〉의 강세가 압도적이다. 2012년 뮤지컬 산업은 2011년 대비 25% 매출이 상승한 2,500억원의 시장으로 급속히 성장했다. 여기에는 장기 공연이 가능한 뮤지컬 전용극장의 개장과 한류 아이돌 스타들의 뮤지컬 진출로 외국인 관객이 증가한 점, 그리고 수준 높은 오리지널 작품의 내한과 기존 인기 뮤지컬의 재공연이 시장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검증된 대형 오리지널 · 라이선스 뮤지컬의 강세 속에서 '모비딕', '번지점프를 하다', '광화문연가' 등과 같은 창작 뮤지컬이 가능성을 보여준 점도 성과로 꼽을 수 있다. 2013년에도 대형 라이선스 뮤지컬의 공연이 다수 예정되어 있고, 일본을 중심으로 창작뮤지컬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어 시장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게임시장 : '리그 오브 레전드' 200만 이용시간 돌파하며 25주 연속 1위

◉ 온라인게임 순위에서는 '리그 오브 레전드'가 12월에도 1위를 지키며 화려하게 한해를 마무리했다. 12월 200만 이용시간을 돌파한 '리그 오브 레전드'는 지난 2011년 12월 서비스 이후 약 7개월 이상 정상에 올랐다. '블레이드 앤 소울'은 점유율이 하락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8월부터 4개월간 2위를 지키고 있고, 방학을 맞아 접속자가 급속히 증가한 '서든어택'은 서비스 종료를 앞두고 있는 '피파온라인2'를 밀어내고 3위에 올랐다.

◉ 12월 온라인게임 장르별 현황을 살펴보면 34.7%(11월 대비 1.6%p 상승)를 기록한 〈RTS〉가 〈RPG〉를 0.16%p 차이로 따돌리고 장르별 현황 1위에 올랐다. 〈FPS〉는 전월 대비 점유율이 1.03%p 증가하며 0.55%p 감소한 〈스포츠〉를 밀어내고 3위를 탈환하는데 성공했다. 그밖에 〈포커〉, 〈아케이드〉, 〈레이싱〉이 소폭 증가한 반면, 〈보드〉와 〈고스톱〉은 소폭 하락했다.

◉ 게임 제작사별 점유율 순위에서는 '라이엇 게임즈'가 11월에 이어 1위를 차지했다. 시간점유율 200만 시간을 넘긴 '라이엇 게임즈'는 2.67%p 시간점유율이 증가해, 두 달 연속 2%p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다. 2위에 오른 '엔씨소프트'는 1위에 63만 시간 뒤쳐진 140만 시간을 기록했고, 학생 유저가 많은 게임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넥슨'은 겨울방학 특수를 누리며 시간점유율이 전월대비 3.18%p나 상승해 3위로 올라섰다.

◉ 올해 온라인게임 시장은 '리그 오브 레전드'와 '디아블로 3'의 열풍 속에서 국산 대작인 '블레이드 앤 소울'이 선전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500억 원의 제작비와 6년여의 제작 기간을 거쳐 6월 30일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블레이드 앤 소울'은 최고 동시접속자 20만 명을 상회하며 큰 인기를 끌었고, 〈제 17회 대한민국 게임대상〉에서 대상을 포함해 게임사운드 · 게임그래픽 · 게임캐릭터 등 4개 부문을 수상하며 국산 게임의 자존심을 지켰다. '리그 오브 레전드'의 폭발적인 인기 때문에 출시전 기대만큼의 점유율을 기록하지 못한 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다.

◉ 모바일 게임 순위에서는 〈구글플레이〉에선 여전히 '카카오톡 게임하기'의 강세가 이어졌으나 〈앱스토어〉에선 분위기가 다소 누그러진 분위기다. 이는 〈구글플레이〉에 관련 게임들이 선출시되는 게 가장 큰 이유다. 하지만 카카오톡 게임에 대한 잠재적 수요는 여전히 큰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구글플레이〉에서 한창 인기몰이 중인 '탭소닉 링스타 for 카카오'를 대표적인 예로 꼽을 수 있다. 〈앱스토어〉에는 아직 출시되지 않은 게임이라 '카카오톡 게임하기'가 탑재되지 않은 구버전이 반사효과로 인해 랭크에 오른 재미있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게임성이 높은 이유도 있겠지만 현재 스마트폰 게임시장에서 카카오톡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12월 모바일 게임 순위에서는 카카오톡과 연계하지 않은 해외 제작사의 선전도 돋보였다. 화려한 그래픽으로 업그레이드된 FPS '모던 컴뱃 4'를 출시하여 〈구글플레이〉와 〈티스토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게임로프트'를 비롯해, 〈앱스토어〉 유료 1위를 기록한 남코와 캡콤의 '스트리트파이터 X 철권', EA코리아의 '피파 13' 등 해외 제작사들의 게임들 역시 적지 않은 인기를 끌었다.

영화시장 : '레미제라블'이 선전했지만 한국영화 점유율은 53.7%로 양호 (12월 한국영화 관객수 1,106만명)

- 12월 박스오피스 순위에서는 12월 19일에 개봉한 뮤지컬 영화 '레미제라블'이 관객수 321만명을 동원하며 1위를 차지하였다. 관객 266만명을 동원한 진구, 한혜진 주연의 '26년'은 2위에 올랐고, 3위는 '반지의 제왕' 전편격인 피터잭슨 감독의 '호빗: 뜻밖의 여정'으로 261만명의 관객수를 기록했다. 그리고 '타워', '나의 PS파트너'가 각각 관객수 201만명, 178만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타워'는 개봉 1주일 만에 200만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며, 2012년 한국영화의 흥행여세를 이어갔다.

- 월별 관객 점유율에서는, 작년 12월 한국영화 점유율이 37.2%를 기록했던 것에 비하여 올해 12월에는 53.7%를 기록하며 16.5%p 증가하였다. 12월 한국영화는 14편이 개봉했고, 동원 관객수는 1,106만명을 넘기며 한국영화 관객수가 7월 이후 6개월 연속 1,000만명을 상회하고 있다.

- 2012년 연간 누적 박스오피스 매출액은 작년에 비해 약 2,193억원(17.7%) 증가한 1조 4,551억원으로 집계되었다. 관객 수도 전년 대비 약 3,516만명(22.0%)이 증가한 1억9,489만명으로 역대 최고의 관객수를 기록했다. 개봉편수에서는 한국영화 개봉이 전년에 비해 25편이 늘어난 175편이었고, 관객수는 3,175만명이 증가하였으며, 2012년 한국영화 관객수는 1억 1,461만명으로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두었다.

- 2012년 연간 누적기준으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한 배급사는 'CJ E&M'으로, 총 관객 5,246만명을 동원하며 27.2%의 점유율을 기록했고, 매출액은 3,848억원으로 집계되었다. 'CJ E&M'은 12월 '타워'와 '나의 PS 파트너', '가디언즈' 등의 흥행에 힘입어 전월대비 점유율이 0.4%p 상승했다. '쇼박스㈜미디어플렉스'는 전월에 이어 2위를 기록하였으나, 흥행순위 15위 이내 영화 중 쇼박스가 배급한 영화는 전월에 배급한 '내가 살인범이다' 이외엔 없어 점유율은 전월 대비 1.3%p 감소한 12.8%이었다. 12월에 '가문의 영광5: 가문의 귀환'을 배급한 '롯데쇼핑㈜롯데엔터테인먼트'도 점유율이 전월대비 0.5%p가 감소한 12.4%였으나, 3위를 유지하였다.

애니메이션시장 : '마당을 나온 암탉' 등 크리스마스 특집 편성 애니메이션이 시청률 상위에 랭크

- 12월 지상파 채널 애니메이션 시청률 순위(EBS 제외)에서는 '빨간모자의 진실2'가 3.93%의 높은 시청률로 1위를 차지했고, 220만 관객을 동원한 국산 애니메이션 '마당을 나온 암탉'이 3.91%로 2위에 올랐다. 3위를 기록한 '상상친구 꾸메푸메'는 TV 애니메이션 중에는 유일하게 TOP 5에 들었다. EBS에서는 '머털도사'가 1위에 올랐고, '곤'이 2.07%로 뒤를 바짝 쫓고 있다. 3위부터 7위까지는 EBS의 인기 프로그램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의 애니메이션 코너들이 차지했다.

- 12월 어린이/애니메이션 전문채널 시청률 순위에서는 국산 애니메이션 '안녕 자두야'가 1위에 올랐다. '명탐정 코난 극장판 침묵의 15분'이 2위, 지상파 채널에서도 방영되어 좋은 반응을 얻은 '마당을 나온 암탉'이 3위를 차지하며 극장판 애니메이션들이 시청률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다.

- 어린이/애니메이션 전문채널의 평균 가구시청률에서는 2위 그룹인 〈챔프〉, 〈카툰네트워크〉와 2배가 넘는 격차를 보인 〈투니버스〉의 독주가 지속되고 있다. 〈챔프〉는 시청률이 전월대비 0.04%p가 증가하며 상대적으로 적은 0.01%p 상승한 〈카툰네트워크〉를 제치고 2위에 올랐다.

- 애니메이션 채널의 시간대별 평균 시청률을 살펴보면 20대를 포함해 전 연령대에서 17~20시에 시청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구 기준 최고 시청률은 11월과 동일하게 18시에 기록한 1.94%였으며, 연령대별 최고 시청률은 개인 4~9세의 4.92%였다.

- 2012년 한 해 동안 개봉한 극장판 애니메이션은 총 55편이다. 그 중 일본 제작이 24편으로 가장 많았고 11편이 미국 제작이었다. 타국과의 공동제작을 포함한 한국 제작은 5편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2D가 32편으로 과반수를 차지했으나 매출액은 3D 애니메이션이 1,005억 원으로 195억 원의 2D 애니메이션보다 5배 이상 많았다. 한편 올해 100만 관객을 넘긴 애니메이션은 총 7편이었고, 1월에 개봉한 '장화신은 고양이'가 2012년 최다 관객 동원 애니메이션으로 기록됐다.

캐릭터시장 : '또봇', '로보캅 폴리', '뽀로로' 등 국산 유명 캐릭터 상품 판매 호조

- 12월 G마켓 캐릭터 상품 TOP 10을 살펴보면 작동완구, 캐릭터 완구에서는 '변신자동차 에볼루션 또봇X'와 '로보카폴리 변신로봇 4종'이 1위를 차지했다. 승용완구로는 겨울을 맞아 '하은맘 S-JOY 눈썰매'가 가장 많이 판매됐고 신생아/영아완구, 스포츠완구 부문에서는 '클래식 아기체육관', '포고스틱 스카이콩콩'처럼 활동적인 완구가 사랑받았다. '실바니안패밀리 인형 100종 특별모음전'이 캐릭터/패션인형 부문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 12월 토이저러스 캐릭터 상품 TOP 10에서도 '캡틴 DX 캡틴킹'이 1위를 지킨 남아완구 부문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순위 변동이 있었다. 유아완구로는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가, 여아완구로는 '실바니안 3층집 스페셜세트'가 1위를 차지했고, 야외완구 부문에서는 '돼지정리함'이 1위에 올랐다. 교육완구, 보드게임 부문에서는 '레고'와 '앵그리버드'의 기세가 무섭다. 두 제품 모두 높은 인지도와 인기를 바탕으로 크리스마스, 연말 가족 선물로 선호되고 있다.

방송시장 : '대선 특수'로 인해 종합편성채널 시청률 급격히 상승

- 2012년 12월은 연말 특집방송과 대선 보도의 영향으로 11월 대비 4.09%p 증가한 38.09%의 높은 평균시청률을 기록했다. 가구별 평균시청시간은 하루 9시간 8분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고, 도달율은 전체 가구의 95.31%로 나타났다. 채널유형별로는 지상파채널이 21.11%(점유율 55.41%), 종합편성채널 3.33%(점유율 8.73%), 유료채널(110개) 12.21%(점유율 32.06%)를 기록했다. 11월 시청률과 비교하면 지상파채널의 시청률이 2.13%p 증가했고, 종합편성채널 시청률은 1.02%p, 유료채널(110개)의 시청률 역시 1.01%p 증가했다.

- 12월 플랫폼별 시청채널 점유율에서는 지상파(안테나수신) 플랫폼의 경우 지상파채널에 대한 시청률이 88.57%, 기타 활동이 11.43%로 측정되었다. 케이블방송 수신 가정에서는 지상파채널(50.30%)을 보는 시간이 유료채널(38.73%) 및 종합편성채널(9.98%)을 보는 시간보다 높게 나타났다. 위성방송 플랫폼 역시 케이블방송 플랫폼과 비슷한 수치를 보였지만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시청비율이 13.13%로 3.15%p 높았다. IPTV 서비스 플랫폼의 경우 기타활동의 비중이 22.78%를 기록하며 타플랫폼에 비해 훨씬 높은 수치를 나타났다.

- 12월 채널별 시청률에서는 대부분의 채널의 시청률이 11월 대비 상승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대선을 맞아 특집다큐와 보도프로그램을 집중 편성한 종합편성채널들의 시청률 상승이 가팔랐다. MBN은 최초로 평균시청률

1%를 넘기며 MBC(3.99%)에 이은 5위를 기록했다. 채널A 역시 0.91%로 EBS를 제치고 6위를 기록하여 공영방송인 EBS의 시청률을 최초로 뛰어넘었다. 이같은 수치는 대선 관련한 보도 프로그램의 높은 시청률로 인한 것인만큼, 2013년 1월에는 12월에 비해 시청률이 하향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종합편성채널의 시청률이 출범초기에 비해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 전체 프로그램 가구시청률에서는 KBS의 강세가 돋보였다. 전체 시청률 상위 20개 중 13개가 KBS 방영 프로그램이었고, 해당장르 역시 드라마 · 시사/교양 · 예능 · 보도를 망라하며 선전하는 모습이었다. 9월 23.52%, 10월 29.95%, 11월 29.85%를 기록하며 1위에 올랐던 KBS2 주말연속극 '내 딸 서영이'는 12월에는 시청률 30%를 돌파하며 독주를 이어갔다. KBS1 일일연속극 '힘내요 미스터김'은 전작('별도 달도 따줄게')의 인기를 이어가며 24.9%의 시청률로 2위에 올랐다. MBC와 SBS 드라마는 '메이퀸(22.75%)'과 '마의(17.76%)', '그래도 당신(16.72%)'이 3, 6, 8위에 오르며 선방했고, KBS2 '개그콘서트'는 예능 중 가장 높은 21.03%를 기록했다.

- 2012년 12월 기준 유료방송 가입자는 2,503만명 가량으로 추정된다. IPTV와 위성방송으로의 꾸준한 가입자 유입으로 인해 유료방송 가입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가입자수는 7년전의 1,574만명에 비해 1,000만명 가까이 증가한 수치이다. 유료방송 가입자의 증가에 따라 채널의 종류가 다변화되고 있으며, 매력적인 콘텐츠를 통한 시청자 확보 경쟁 또한 치열해지고 있다. 더불어 홈쇼핑, 주문형비디오 등의 부가서비스를 통한 수익창출 노력 및 'pooq', '티빙'과 같은 모바일기반 서비스로의 확장을 위한 경쟁 역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광고시장 : 검색광고 - 오버주어 철수로 네이버 점유율 확대 및 다음의 시장 진출 본격화

- 12월 인터넷 노출형 광고는 상위 30개 업체의 매출액이 660억원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10월의 601억원, 11월의 649억에 비해 증가한 것이다. 이 같은 증가추세는 대선으로 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39억에 이르는 노출형광고를 집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매체별 집계에 따르면 노출형 광고시장의 3대 사업자인 '네이버', '다음', '네이트'는 각각 34.7%, 30.4%, 15.0%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네이버는 전월 32.6%에 비해 점유율이 2.1%p 상승했는데 이는 2.7%의 점유율을 지니던 야후코리아의 점유율을 상당부분 가져온 것이다.

- 12월 광고주별 인터넷 노출형 광고에서는 12월 19일에 있었던 대선의 영향이 확연히 드러났다. 새누리당(1위), 민주통합당(3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8위) 등 선거관련 정당 및 위원회가 50억여원의 광고를 집행하면서 대거 상위권에 올랐다. SK플래닛, 삼성전자, 넥슨 등의 기업은 11월 대비 광고집행액이 다소 감소했다. SK플래닛은 22억에서 19억으로, 삼성전자는 25억에서 17억으로, 넥슨은 18억에서 15억원으로 줄어들었지만 이는 대선으로 인한 일시적인 집행감소로 보인다.

- 12월 브랜드별 인터넷 노출형 광고에서는 역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각 1, 2, 4위에 올랐고, 서울디지털대학교, 고려사이버대학교, 경희사이버대학교, 한국사이버대학교,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등 사이버대학 관련 광고가 5개나 순위권에 오르는 한편, 모두의 마블, 아키에이지 등 신작게임과 멜론, 스마트월렛과 같은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은 광고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먹왕 랄프'와 '레미제라블' 등 영화 광고도 4억원 이상 집행되었고, 현대캐피탈다이렉트론,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비씨카드 등 금융업종의 광고와 강남밝은성모안과, SKY하늘안과 등 의료업종 광고도 순위권에 들었다. 상위 30대 브랜드의 인터넷 노출형 광고 점유율은 전체의 34.2%(239억원)으로 나타났다.

- 12월 검색광고시장 광고주 수는 145,000개를 기록했다. 146,000개를 기록했던 11월 대비 0.7%(1,000개)가 감소했다. 매체별 점유율에서는 '네이버'가 전월대비 2.6%p 증가한 42.0%를 기록하며 점유율 상승추세를 이어갔다. '오버추어-네이버 공동집행'은 -0.3%p 하락한 11.3%를 기록했고, '네이트'는 -1.3%p 하락한 10.0%로 나타나며 향후 한자리수로의 점유율 하락이 예상된다.

- 검색광고시장의 전체적인 구도는 네이버의 독주가 굳어지는 가운데, 한국시장에서 철수하는 오버추어의 물량을 다음 등의 포털에서 어느 정도 가져갈지의 여부가 주목된다. 특히 '다음'은 자체 검색광고 서비스를 런칭하며 기존 오버추어 광고주들을 상대로 영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서는 오버추어의 철수와 더불어 네이버의 점유율이 상승하는 반면, 다른 사업자들은 큰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지식정보시장 : 국내 LTE 서비스 가입자 2013년 말 2,500만명 예상

- 주요 방송통신서비스 가입자는 2012년 11월 말 기준으로 시내전화 1,830만명, 이동전화 5,346만명, IPTV 631만명, 휴대인터넷(와이브로) 101만명을 기록하고 있다. 시내전화 가입자는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이동전화 · IPTV · 초고속인터넷 · 와이브로 가입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동전화 가입자수는 5,346만명으로 국가인구수(5,093만명, 2012년 11월)를 추월하며 증가세가 다소 둔화하고 있지만, 개인이 복수의 기기를 지니는 경우(태블릿 등)가 늘어남에 따라 월 10만명 정도의 가입자 증가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통신업계에 따르면 LTE 가입자는 2012년 12월말 기준 1,589만명에 달했다(SKT 760만명, LG유플러스 439만명, KT 390만명). 이는 2012년 한 해 동안 매월 평균 122만5천명, 하루 평균 4만명이 가입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12년 전세계 LTE 가입자수가 5,720만여명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한국의 가입자는 전체의 28%에 달한다. 업계에서는 2013년 말에는 국내 LTE 가입자가 2,5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스마트폰 및 태블릿용) 매출 순위에서는 일반 앱보다는 모바일게임의 절대적인 강세가 이어졌다. 카카오톡 플랫폼의 게임의 선전은 이전과 같이 지속되었는데, '아이러브커피', '애니팡', '드래곤플라이트', '컴투스 홈런왕', '모두의 게임'과 같은 카카오톡 등록 게임들이 지난달에 이어 〈앱스토어〉와 〈플레이스토어〉의 매출 상위권을 점유했다. 하지만 애플의 〈앱스토어〉에서는 비교적 카카오톡의 영향력이 적은 편이었다. 특히 1위를 차지한 '밀리언아서'는 '원탁의 기사'의 아서왕 이야기를 토대로 제작된 일본 스퀘어에닉스의 모바일게임으로, 카드배틀 게임으로는 이례적인 매출을 기록했다. 1월에는 〈플레이스토어〉에서도 인기를 모으며 '다함께 차차차'에 이은 2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피쉬아일랜드'와 '타이니 팜'과 같은 게임들도 카카오톡에 등록되지 않은 게임이지만 순위권에 꾸준히 올라있다.

- 앱마켓에 직접 등록하거나 자체 유통플랫폼을 활용할 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매출대비 수익성이 향상될 수 있으며, 최근 카카오톡에 등록된 게임들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며 예전과 같은 이용자 유치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유저의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게임성이 중요해지고 있다. 더불어 수익성 향상을 위해 '컴투스 허브' 등과 같은 자체 플랫폼을 확장하기 위한 노력 또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01 출판

연말과 대선 정국을 맞이한 12월 출판시장에서는 힐링 에세이와 멘토링 자기계발서의 인기가 꾸준한 가운데, 독자들에게 검증된 유명 저자가 출간한 신작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해외 유명대학의 명강의로 다양한 논의를 제공하는 도서 출간도 지속되었다. 한편으로는 황석영, 성석제, 송지나, 기욤 뮈소 등 신작 소설이 상위권에 등장하여, 새해에는 보다 많은 문학도서가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베스트셀러 순위에서는 2012년 힐링 열풍을 주도한 혜민 스님의 책이 1위를 수성하였고, 변화와 행동의 실천을 강조한 '습관의 힘'은 3위에서 2위로 상승했다. 여성 멘토 김미경의 30대를 위한 '언니의 독설'은 3위로 올랐고, 꿈을 실현하는 법칙을 담은 동일 작가의 또다른 신작 '김미경의 드림 온' 역시 상위권에 오르며 주목을 받았다. 죽음이라는 철학적 주제의 예일대 인기강의를 다룬 '죽음이란 무엇인가'는 삶과 존재에 대해 쉽게 읽히는 내용으로 5위로 급상승했고, 프랑스를 대표하는 인기작가 기욤 뮈소의 신작 '7년 후'는 발간과 동시에 6위에 올랐다. 그 외에 실용 어학서인 토익 학습서와 인기 어린이 아동서인 '메이플 스토리' 시리즈의 구매도 증가하였다.

12월 상위권에서는 신작과 스테디셀러가 함께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고, 다가올 새해를 준비하고 모색하는 연말의 시류에 부응하여 새로운 시작을 가이드하는 멘토들의 자기계발서가 돋보인 것이 특징이다.

교보문고 종합 베스트셀러 TOP 20 (12월)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분야	출간일
12월	11월	10월					
1	1	2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혜민 스님	쌤앤파커스	시/에세이	2012. 1. 13.
2	3	-	습관의 힘	찰스 두히그	갤리온	자기계발	2012.10.30.
3	5	133	언니의 독설(흔들리는 30대를 위한)	김미경	21세기북스	자기계발	2012.10.15.
4	2	1	천 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김난도	오우아	시/에세이	2012. 8. 28.
5	50	-	죽음이란 무엇인가	셸리 케이건	엘도라도	인문	2012.11.21.
6	-	-	7년 후	기욤 뮈소	밝은세상	소설	2012. 11. 27.
7	7	5	빅 픽처	더글라스 케네디	밝은세상	소설	2010. 6. 10.
8	53	-	트렌드 코리아 2013	김난도	미래의창	경제/경영	2012.11.21.
9	6	-	사랑외전	이외수	해냄출판사	시/에세이	2012.10.30.
10	4	4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	존 맥스웰	비즈니스북스	자기계발	2012. 10. 5.
11	8	3	바람이 분다 당신이 좋다	이병률	달	여행/기행	2012. 7. 1.
12	9	8	템테이션	더글라스 케네디	밝은세상	소설	2012. 10. 2.
13	13	12	아프니까 청춘이다	김난도	쌤앤파커스	시/에세이	2010.12.24.
14	12	19	지금 시작하는 인문학	주현성	더좋은책	인문	2012.10.20.
15	23	33	해커스 토익 보카(증보판)	David Cho	해커스어학연구소	외국어	2012.10.31.
16	-	-	김미경의 드림 온(Dream on)	김미경	쌤앤파커스	자기계발	2013. 1. 11.
17	137	-	여울물 소리	황석영	자음과모음	소설	2012.10.20.
18	-	-	메이플 스토리 오프라인 PRG. 55(코믹)	송도수	서울문화사	어린이	2012.12.20
19	-	-	단 한 번의 연애	성석제	휴먼앤북스	소설	2012.12.17.
20	-	-	신의. 1	송지나	비채	소설	2012.12.12.

* 출처: 교보문고 자료제공, 월간 기준

교보문고 e북 순위에서는 7~8월에 1위에 올랐던 인문서 '섹스의 재발견 벗겨봐'가 '그레이 시리즈' 열풍이 지나자 U자 곡선을 그리며 1위를 재탈환하였다. 19금 도서를 비롯한 로맨스 장르소설이 순위권을 절반 이상 점유했고, '유혹'이란 키워드로 흥미를 끌었다. 또한 종이책 신간의 동시기 e북 발간 추세에 따라, 종이책 베스트셀러인 '죽음이란 무엇인가'와 김미경의 멘토링 도서가 전자책 가격으로는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인기를 끌었으며,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어학 실용서도 많이 판매되었다.

한여름에 무더위를 잊기 위해 장르소설 판매가 증가하였듯, 전자책 판매 상위권에서는 추운 겨울날 흥미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는 장르소설의 증가 현상이 재현되었고, 꾸준한 인기를 받아온 e북 스테디셀러의 지속과 함께 실용적인 정보를 탐색하고자 하는 경향이 엿보였다. 20위권 분야별 분포는 장르소설이 주도한 가운데 자기계발, 소설, 인문서가 각각 3종씩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보문고 e-Book 베스트셀러 TOP 20 (12월)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가격	분야	출간일
12월	11월	10월						
1	5	10	섹스의 재발견 벗겨봐	조명준	모아북스	6,900원	인문	2012. 5.25.
2	-	-	불타오르다(19금)	현미정	디키스토리	4,000원	장르소설	2012.12.10.
3	-	-	리멤버 1.	장소영	디키스토리	3,500원	장르소설	2012.12.3.
4	-	-	리멤버 2.	장소영	디키스토리	3,500원	장르소설	2012.12.3.
5	-	-	전남편	하영	신영미디어	3,500원	장르소설	2012.12.5.
6	13	-	지금 니 생각을 영어로 말해봐(개정3판)	김준용	원타임즈	9,000원	자기계발	2012.9.28.
7	-	-	죽음이란 무엇인가	셸리 케이건	엘도라도	11,760원	인문	2012.11.27.
8	102	85	나는 까칠하게 살기로 했다	양창순	센추리원	8,000원	자기계발	2012.2.20.
9	28	-	계약신부. 1	현지원	디키스토리	2,500원	장르소설	2012.11.19.
10	56	34	FBI 행동의 심리학	조 내버로	리더스북	7,000원	자기계발	2012.1.18.
11	-	-	남편의 유혹	백선로드	신영미디어	3,500원	장르소설	2012.12.5.
12	37	-	계약신부. 2	현지원	디키스토리	2,500원	장르소설	2012.11.19.
13	26	37	프로이트의 의자	정도언	용진지식하우스	5,200원	인문	2012.9.28.
14	160	-	7년 후	기욤 뮈소	밝은세상	9,000원	소설	2012.11.26.
15	-	-	크로스파이어의 유혹 1.	실비아 데이	19.0	7,800원	소설	2012.12.11.
16	-	-	커피 그리고 설탕 한 스푼	백선로드	디키스토리	3,150원	장르소설	2012.12.3.
17	1	4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1.	E.L.제임스	시공사	8,400원	소설	2012.8.31.
18	10	123	언니의 독설(흔들리는 30대를 위한)	김미경	21세기북스	12,800원	자기계발	2012.11.6.
19	-	-	웃고름을 풀다	지은	다향	3,500원	장르소설	2012.11.20.
20	-	-	황홀한 중독	이인선	가하	3,500원	장르소설	2012.11.20.

* 출처: 교보문고 자료제공, 월간 기준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100위를 분야별로 분류한 결과, 종이책 시장은 11월과 비교하여 '소설', '자기계발', '어린이', '역사/문화' 분야가 증가하는 대신 '시/에세이', '경제/경영' 분야는 감소했고, e북 시장은 '자기계발' 관련 도서가 급증하면서 '장르소설'의 비중이 다소 줄어들었다.

한해를 되돌아보는 연말의 독서 시장은 소설 시장이 기지개를 켜는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 새해를 앞두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찾고 희망찬 첫걸음을 향한 길잡이를 얻고자 자기계발서를 많이 찾았다. 12월에는 신작들이 출시되면서 '소설'과 '자기계발서'가 100위권 내에 각각 21권과 20권의 높은 비중과 더불어 최상위권을 차지했고, 불황 심리가 만연한 시대의 지친 마음을 다독여주고 감싸주는 '에세이'가 다음으로 많은 17권을 차지했다.

e북 시장에서는 종이책과 마찬가지로 하반기에 다소 침체되었던 '자기계발서'가 상반기 수준을 회복하며 11월보다 10권이 증가한 16권을 차지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장르소설'의 비중은 소폭 감소하였다.

교보문고 종합 베스트셀러 100위 분야별 분포 (2012. 4. ~ 2012. 12.)

순위	분야	2012. 4.	2012. 5.	2012. 6.	2012. 7.	2012. 8.	2012. 9.	2012. 10.	2012. 11.	2012. 12.
1	소설	20	20	18	21	24	19	17	17	21
2	자기계발	19	20	20	15	15	17	17	19	20
3	시/에세이	16	19	18	21	17	20	20	20	17
4	인문	11	7	7	7	8	8	8	9	8
5	경제/경영	13	10	6	8	6	5	7	11	7
6	외국어	7	5	14	8	7	9	9	7	7
7	어린이	2	3	2	3	4	3	3	2	4
8	가정/생활	3	4	3	2	5	3	4	3	3
9	만화	2	4	4	3	3	6	3	3	3
10	역사/문화	0	2	2	2	1	1	2	2	3
11	종교	3	1	3	1	2	2	1	2	2
12	여행/기행	0	0	1	2	2	3	2	3	2
13	정치/사회	3	4	2	5	3	2	2	1	1
14	건강	0	0	0	0	1	1	3	1	1
-	기타	1	1	0	2	2	1	2	0	1

* 기타(2012.12) : 유아(1)
* 출처: 교보문고, 한국콘텐츠진흥원 재구성

교보문고 e-Book 베스트셀러 100위 분야별 분포 (2012. 4. ~ 2012. 12.)

순위	분야	2012. 4.	2012. 5.	2012. 6.	2012. 7.	2012. 8.	2012. 9.	2012. 10.	2012. 11.	2012. 12.
1	장르소설	67	65	53	66	73	62	70	66	57
2	자기계발	16	17	21	13	11	9	7	6	16
3	소설	9	7	12	8	5	14	12	15	14
4	인문	2	3	5	2	3	4	5	5	6
5	경제경영	3	5	6	4	2	3	0	4	4
6	시/에세이	2	0	1	3	2	3	3	3	3
7	여행/취미	0	0	0	1	2	2	2	1	0
-	기타	1	3	1	3	2	3	1	0	0

* 출처: 교보문고, 한국콘텐츠진흥원 재구성

서비스업체별 e북 판매 순위에서는 마켓별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베스트셀러 10위권을 살펴보면, 개인화 서비스와 SNS로 독자와 적극적인 소통을 시도하는 〈리디북스〉에서는 '에세이'와 '자기계발'형 실용서가 10위권 내 절반을 차지하였고 '빅 픽처'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상상력 사전', '소설보다 재미있는 조선 왕조사',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처럼 오랫동안 인기를 얻는 콘텐츠의 지속성이 돋보였다.

〈T스토어〉는 장르소설의 연재로 고정 작가 팬이 늘어나면서 세트 판매가 주류를 이뤘고, 〈리디북스〉와 〈올레e북〉 등은 상대적으로 다양한 카테고리의 도서가 순위권에 포진하고 있다. 〈리디북스〉의 전자책 10위권과 〈교보문고〉 종이책 10위권을 살펴본 결과, 3권이 동시에 베스트셀러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나 전자책과 종이책 인기의 동조화(coupling)가 일정 수준으로 반복되고 있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업체별 e-Book 판매 TOP 10 (12월)

1. 리디북스

순위	변동	도서명	저자	출판사	분야	가격
1	New	천 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김난도	오우아	에세이	8,400
2	New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	스튜어트 다이아몬드	8	자기계발	9,800
3	New	위트 상식 사전	롤프 브레드니히	보누스	에세이	4,000
4	△5	빅 픽처	더글라스 케네디	밝은세상	소설	7,000
5	▽1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상상력사전	베르나르 베르베르	열린책들	에세이	7,600
6	△1	소설보다 재미있는 조선 왕조사	이병권	평단문화사	정치/사회/역사	6,000
7	New	프로이트의 의자	정도언	용진지식하우스	인문	5,200
8	New	죽음이란 무엇인가	셸리 케이건	미다스북스	인문	11,760
9	▽8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1	E.L. 제임스	시공사	문학	8,400
10	▽4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	데일 카네기	더클래식	자기계발	3,000

* 2012. 12. 31. 기준 / 순위 변동은 10위권 내에서의 전월 대비 변동을 기재한 것임
* 출처: 리디북스 (www.ridibooks.com)

2. T스토어

순위	변동	도서명	저자	출판사	분야	가격
1	New	[세트] 강철의 열제 - 이계정벌기	가우리	KFB	장르소설	63,000
2	New	[세트] 너를 탐하다	이현성	러브홀릭	장르소설	5,760
3	New	[세트] 내 손 안에 있소이다	이진희	로맨스토리	장르소설	7,200
4	New	[세트] 십일야	윤이수	로맨스토리	장르소설	6,300
5	New	그 여자의 남자	린데만	우신출판사	장르소설	2,000
6	New	그녀, 악마를 사로잡다	재선	러브홀릭	장르소설	3,500
7	New	취우	탐하다	디키스토리	장르소설	3,500
8	New	[세트] 아크	유성	로크미디어	장르소설	66,240
9	New	[세트] 삼절지존	와룡강	프로무림	장르소설	9,450
10	New	[세트] 윤극사전기	시하	프로무림	장르소설	22,050

* 2012. 12. 31. 일일 다운로드 기준 / 순위 변동은 10위권 내에서의 전월 대비 변동을 기재한 것임
* 출처 : T스토어 (www.tstore.co.kr)

〈올레e북〉에서는 종이책 스테디셀러인 '빅 픽처'가 1위, 김미경의 '언니의 독설'이 2위를 차지하여 동시 진입 도서들이 상위권에 올랐다. 현재 교보문고 종이책 베스트셀러 3권과 과거 상위권이었던 도서 3권이 10위권에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문학'과 '자기계발서'가 강세이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전자책 판매 순위에서는 '자기계발', '인간관계' 관련서가 4권이나 차지했고, '소설' 장르가 이어서 인기를 끌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북스에서는 김미경의 '언니의 독설'이 한 계단 상승하여 1위에 올랐고, 정신적 위안을 주는 김상운의 자기계발서와 주제별로 아버지의 진정성 있는 막말을 가수 호란이 맛깔스럽게 번역한 저스틴 핼펀의 에세이를 비롯하여 다채로운 실용 교양서가 주목을 받았다.

3. 올레e북

순위	변동	도서명	저자	출판사	분야	가격
1	△6	빅 픽처	더글라스 케네디	밝은세상	문학	3,500
2	New	언니의 독설(개정판)	김미경	21세기북스	자기계발	11,520
3	△2	20대라면 무조건 써먹는 경제상식	김종선	팬덤북스	경제/경영	2,500
4	△5	FBI 행동의 심리학	조 내버로, 마빈 칼린스	(주)웅진씽크빅	자기계발	3,500
5	△5	스피킹에 강해지는 영어회화표현 Best100 - Part1	박주영, 도미닉 핸론	21세기북스	외국어	2,400
6	▽3	세계대전Z	맥스 브룩스	황금가지	장르소설	4,200
7	New	웃음 1,2권 세트	베르나르 베르베르	열린책들	문학	7,000
8	New	7년 후	기욤 뮈소	밝은세상	문학	8,100
9	New	스티브 잡스	월터 아이작슨	민음사	자기계발	9,000
10	New	하루 15분 정리의 힘	윤선현	위즈덤하우스	자기계발	4,830

* 2012. 12. 31. 기준 (최근 1개월) / 순위 변동은 10위권 내에서의 전월 대비 변동을 기재한 것임
* 출처: 올레e북 (www.ebook.olleh.com)

4. 구글 플레이스토어

순위	변동	도서명	저자	출판사	분야	가격
1	△1	언니의 독설1 : 흔들리는 30대를 위한	김미경	Book21 Publishing Group	자기계발	9,600
2	▽1	하룻밤에 읽는 한국사	최용범	페이퍼로드	정치학	6,750
3	△6	솔로탈출 연애법칙	루니스 편집부	루니스	인간관계	1,920
4	New	병신같지만 멋지게	저스틴 핼펀	Woongjin ThinkBig	에세이	6,500
5	▽1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	데일 카네기	더클래식	경제/경영	3,000
6	△2	마음을 비우면 얻어지는 것들	김상운	Book21 Publishing Group	자기계발	12,000
7	New	아라비아의 마법궁전	페니 조던	신영미디어	소설	2,500
8	New	영어 단어 기억의 비밀	김윤환	미르에듀	교육	6,900
9	▽4	종이 여자	기욤 뮈소	밝은세상	문학	6,600
10	New	묵향 3	전동조	스카이북	소설	4,500

* 2012. 12. 31. 기준 / 순위 변동은 10위권 내에서의 전월 대비 변동을 기재한 것임
* 출처: 구글 플레이 도서 섹션

12월의 앱북 동향을 살펴보면, 애플 〈앱스토어〉의 아이폰용 앱에서는 '친일 인명사전'과 '성경찬송가', '오디오 삼국지'가 오랫동안 높은 인기를 얻고 있고, 고전의 지혜와 한국사 시험 등 교양실용서가 많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특히 4위를 차지한 신개념 앱소설인 '롤링 주스'는 3명의 작가가 릴레이 형식으로 만든 연애 이야기를 독자가 스토리와 결말, 일러스트를 직접 선택해가면서 재구성하면서 소설을 만드는 신선한 경험을 선사했다. 아이패드에서는 종교서가 상위를 차지하는 가운데 웅진씽크빅의 '한반도의 공룡'을 비롯해서 형설아이의 곤충동화에 곤충사전과 놀이를 결합한 '라바 하늘 높이 날다' 등의 아동 앱과 카메라 활용 가이드북과 같은 실용 관련 앱들이 많이 다운로드되었다.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는 종교 콘텐츠와 사전용 앱의 판매순위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도서분야 유료 앱(APP) TOP 10 (12월)

순위	앱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 (아이패드)		구글 플레이스토어 (안드로이드)	
1	new	텍스트 뷰어(txt viewer)	new	텍스트 뷰어(txt viewer)	△7	Moon+ Reader Pro
2	-	갓피플성경	-	갓피플성경	△4	갓피플성경
3	▽2	친일인명사전	△1	Speckles - The Tarbosaurus	-	홀리바이블
4	new	롤링 주스	△1	NIV한영(개역개정판) 성경찬송가	new	친일인명사전
5	new	NIV한영(개역개정판) 성경찬송가	△1	디럭스성경찬송	△2	DioDict 3 ENG-KOR Dictionary
6	new	링커 B	▽5	대한성서공회 연구성경	new	Lifove 개역개정
7	△2	오디오삼국지	new	제자성경찬송	▽3	디럭스성경찬송
8	▽3	두란노 성경&사전	new	jw-bible NWT	new	DioDict 3 JPN-KOR Dictionary
9	new	고전에서 찾은 서른의 성공 마흔의 지혜	new	라바 하늘 높이 날다	new	디오딕 3 한자 사전
10	new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고급)	new	DSLR 카메라 촬영 무작정 따라하기	new	Wiki Encyclopedia pro

* 2012. 12. 31. 매출 기준 / 순위 변동은 10위권 내에서의 전월 대비 변동을 기재한 것임
* 출처: App Annie (www.appannie.com)

독자들의 도서 선택지를 지표로 보여주는 신간 발행 종수(출판유통진흥원 집계)는 8월 이후 계속해서 전년 대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12월의 발행 종수는 전년동월 대비 40% 정도 감소한 3,186종에 머물렀다.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집계한 분야별 신간도서 발행 종수에서도 올해 들어 가장 낮은 1,136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 수준으로 파악되었다(향후 집계량 추가 예상). 발행 종수 증가에 따른 소비 유발 효과보다는 양질의 콘텐츠로 승부하기 위한 출판사의 변화로 추정된다. 11월 발행 종수와 비교하면 모든 분야에서 하락하였고 발행종수 비중이 높은 '문학'과 '아동'을 비롯해서 '사회과학', '기술과학' 등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신간도서 발행 현황

1. 신간도서(종이책) 분야별 발행 종수 (2010. 10. ~ 2012. 12.)

분야	2010. 10.	2010. 11.	2010. 12.	2011. 10.	2011. 11.	2011. 12.	2012. 10.	2012. 11.	2012. 12.
총류	54	58	18	58	48	55	44	47	28
철학	89	97	52	99	82	110	76	102	56
종교	167	145	86	172	135	166	123	127	60
사회과학	394	294	186	385	355	451	356	358	201
순수과학	39	26	10	41	29	42	20	18	16
기술과학	184	151	73	228	162	179	155	126	75
예술	98	91	68	108	98	128	79	71	40
언어	114	97	25	92	58	108	72	45	20
문학	728	633	309	738	712	809	626	525	274
역사	100	71	39	95	84	110	100	72	44
학습참고	85	118	72	186	81	166	55	61	16
아동	386	543	354	742	467	653	498	450	271
만화	456	218	140	623	457	623	422	354	35
합계	2,894	2,542	1,432	3,567	2,768	3,600	2,626	2,356	1,136

* 출처: 대한출판문화협회 (납본 기준 수치이므로 최근 발간 서적은 향후 집계량이 늘어날 수 있음)

2. 신간도서(종이책) 발행 종수 추이 (2009. 1. ~ 2012. 12.)

2009		2010		2011		2012		전년대비
1월	7,045	1월	6,573	1월	5,826	1월	6,349	9.0%
2월	5,883	2월	5,386	2월	4,739	2월	5,659	19.4%
3월	5,832	3월	5,821	3월	5,286	3월	5,751	8.8%
4월	4,787	4월	4,761	4월	4,039	4월	4,609	14.1%
5월	4,135	5월	4,814	5월	4,060	5월	5,088	25.3%
6월	4,686	6월	4,983	6월	4,097	6월	4,648	13.4%
7월	4,849	7월	4,692	7월	4,248	7월	4,766	12.2%
8월	5,171	8월	4,780	8월	5,182	8월	4,789	-7.6%
9월	5,146	9월	3,880	9월	4,375	9월	4,477	2.3%
10월	4,253	10월	4,066	10월	4,588	10월	4,015	-12.5%
11월	4,879	11월	4,742	11월	5,056	11월	4,956	-2.0%
12월	5,909	12월	5,604	12월	5,720	12월	3,186	-44.7%
연간	62,575	연간	60,102	연간	57,216	연간	58,293	18.9%

* 출처: 출판유통진흥원 (주요 도매상 및 중소형서점 입고도서 발행일 기준, 향후 집계량이 늘어날 수 있음)

신간도서의 발행 부수(대한출판문화협회 집계)는 하반기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불황기의 제작 부수 축소는 안정적인 경영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경제 민감도가 높은 출판 시장의 위축된 분위기를 반영한다. 11월의 신간도서 발행 부수는 전년대비 1/3 수준에 머물렀으며, '문학'과 '사회과학', '학습참고서'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독자들의 소비심리를 예상하는 발행 부수는 하반기부터 절반 수준으로 급감하였으며, 베스트셀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출판사가 신간 부수를 가능한 낮게 책정하여 연간 기준으로 전년 대비 평균 25% 감소하였다. 반면에 12월의 평균 도서가격은 제작 부수 감소와 판매 하락의 우려 때문에 전월 대비 10% 상승, 전년 동월 대비 14% 상승한 14,543원으로 나타났다.

3. 신간도서(종이책) 초판 발행 부수 (2010. 10. ~ 2012. 12.)

분야	2010. 10.	2010. 11.	2010. 12.	2011. 10.	2011. 11.	2011. 12.	2012. 10.	2012. 11.	2012. 12.
총류	149,136	157,038	31,400	127,081	97,362	105,035	90,416	83,471	70,900
철학	164,206	341,460	92,045	179,655	158,454	195,783	135,650	139,174	101,281
종교	317,916	340,378	208,500	367,100	366,200	293,230	190,360	185,464	111,260
사회과학	1,279,176	564,126	411,322	641,244	658,856	760,439	420,540	622,117	313,980
순수과학	72,800	37,100	14,900	54,100	266,600	67,585	24,300	22,800	19,800
기술과학	292,111	244,597	126,869	326,119	304,807	272,022	202,593	182,340	130,705
예술	169,000	134,100	115,385	175,050	187,053	182,110	108,850	98,410	59,720
언어	309,530	276,618	55,631	165,051	100,110	147,400	81,828	71,840	27,115
문학	1,436,192	1,541,238	656,270	1,360,166	1,560,703	1,361,125	1,019,550	912,066	567,840
역사	137,606	122,337	72,600	127,299	166,880	189,264	135,610	122,400	61,350
학습참고	775,000	1,069,000	407,400	1,385,200	727,000	1,559,500	297,000	205,500	50,331
아동	1,347,862	2,044,370	1,242,161	2,510,268	1,833,066	3,556,676	1,061,660	1,474,600	1,109,684
만화	859,790	522,720	265,500	812,609	608,692	766,523	472,220	225,170	30,140
합계	7,310,325	7,395,082	3,699,983	8,230,942	7,035,783	9,456,692	4,240,577	4,345,352	2,654,106

* 출처: 대한출판문화협회 (www.kpa21.or.kr)

4. 신간도서(종이책) 분야별 가격 (2010. 10. ~ 2012. 12.)

분야	2010. 10.	2010. 11.	2010. 12.	2011. 10.	2011. 11.	2011. 12.	2012. 10.	2012. 11.	2012. 12.
총류	17,752	18,226	17,783	22,140	19,742	19,082	21,445	22,036	18,450
철학	16,947	15,071	15,319	14,749	15,378	18,890	14,971	17,252	16,664
종교	14,975	11,268	14,203	13,360	12,080	12,761	14,405	15,946	15,273
사회과학	17,461	17,599	16,480	18,523	18,021	17,041	20,479	17,470	17,978
순수과학	15,679	18,562	20,800	21,683	18,672	19,960	21,950	21,878	15,813
기술과학	18,614	19,924	19,403	20,892	22,085	18,806	26,187	19,091	17,439
예술	21,220	17,020	18,775	20,079	21,605	22,721	19,516	18,239	18,473
언어	14,343	15,071	13,748	18,345	16,605	18,055	18,197	16,591	17,745
문학	10,341	10,390	11,068	11,909	11,056	12,660	11,414	11,893	13,135
역사	20,138	18,948	20,223	22,217	20,532	21,295	19,752	20,860	22,805
학습참고	9,818	10,030	49,682	11,393	10,384	11,955	12,736	10,398	12,831
아동	10,135	9,385	2,293	10,119	9,730	9,678	10,917	11,526	10,762
만화	4,477	4,621	4,453	4,563	4,595	4,596	4,680	4,733	4,651
평균	12,415	12,210	12,478	12,630	12,470	12,707	13,605	13,225	14,543

* 출처: 대한출판문화협회 (www.kpa21.or.kr)

전자출판물 인증건수(한국전자출판협회 집계)는 학술논문의 등록 단위가 대량화되면서 시기별 변동폭이 큰 편이다. 12월에도 11월에 이어 누리미디어, 한국학술정보 등의 학술논문 영향으로 인증건수가 증가하여 전년 대비 10배 이상 수준인 10만 5,654건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예술', '총류' 분야의 신장이 두드러졌다. 2012년 전자출판물 인증건수는 월평균 4만 건 이상이며, 연간 50만 건을 상회하여 전년 대비 11배 이상 증가하였다.

정기간행물 현황(문화체육관광부 집계)에 따르면 12월 31일 기준으로 14,325종이 등록되어 있는데, 이 중 '월간지'가 4,512종, '인터넷신문'이 3,911종, '주간지'가 2,781종으로 집계되었다. 경기 불황의 영향으로 '일간지'와 '주간지'의 등록은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인터넷신문'과 '계간지', '월간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2년 정기간행물의 등록은 다양하고 세분화된 간행물의 발행으로 전년 대비 8% 증가하였다.

전자출판물 / 정기간행물 현황

1. 전자출판물 분야별 인증건수 (2010. 10. ~ 2012. 12.)

분야	2010. 10.	2010. 11.	2010. 12.	2011. 10.	2011. 11.	2011. 12.	2012. 10.	2012. 11.	2012. 12.
총류	263	482	319	259	292	573	305	4,654	8,586
철학	1	244	3	0	18	3	15	3,552	498
종교	0	1,483	6	1	11	0	6	5,300	2,698
사회과학	19	1,346	65	0	57	19	5	63,289	5,024
순수과학	0	191	0	0	18	5	2	9,252	6,722
기술과학	2	8,649	26	119	86	5	80	84,661	14,925
예술	700	835	367	401	1,210	947	539	9,161	54,572
언어	67	88	38	1	20	22	17	6,128	1,231
문학	14	331	1048	0	71	7,589	1,387	8,257	9,934
역사	3	319	1	0	48	7	4	4,928	1,514
합계	1,069	13,968	1873	781	1,831	9,170	2,360	199,182	105,654

* 출처: 한국전자출판협회 (www.kepa.or.kr)

2. 정기간행물 등록 현황 (2007 ~ 2012. 12.)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5.	2012. 6.	2012. 7.	2012. 8.	2012. 9.	2012. 10.	2012. 11.	2012. 12.
일간신문	281	275	237	673	615	612	613	616	612	609	617	612	611
통신	3	3	4	5	12	16	16	16	16	16	16	16	17
기타일간	360	331	419	4	73	82	82	78	79	81	80	83	83
주간	2,887	2,788	2,653	2,868	2,891	2,833	2,849	2,818	2,792	2,754	2,759	2,769	2,781
월간	3,257	3,243	5,257	3,936	4,209	4,305	4,330	4,351	4,380	4,426	4,482	4,509	4,512
격월간	453	435	670	542	584	603	605	605	604	606	609	610	611
계간	986	973	1,514	1,161	1,266	1,297	1,306	1,317	1,325	1,331	1,340	1,347	1,354
연2회	325	322	509	408	425	418	374	422	424	426	432	440	445
인터넷 신문	927	1,282	1,698	2,484	3,193	3,521	3,599	3,656	3,622	3,686	3,764	3,850	3,911
합계	9,479	9,652	12,961	12,081	13,268	13,687	13,774	13,879	13,854	13,935	14,099	14,236	14,325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12. 12. 31. 기준)

02 만화

12월 한국만화 베스트셀러에서는 제4권을 발매한 윤태호 작가의 '미생'이 11월에 이어 1위에 올랐다. 샐러리맨의 생활을 현실적으로 다룬 '미생'은 다음 만화속세상에서 최장기간 평점 1위를 유지하며 인기리에 연재중이다. '다이어터'도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2위를 유지했고, 한국의 민화와 설화, 사후세계를 새롭게 풀어낸 '신과 함께'가 3위로 올라섰다. 올해 개봉을 목표로 영화화가 진행 중인 '신과 함께'는 일본에서 리메이크될 정도의 높은 작품성을 바탕으로 큰 인기를 누린 작품이다. 외국 만화 베스트셀러로는 신권이 발매된 '원피스'가 1위, '바쿠만'과 '너에게 닿기를'이 2, 3위를 차지해 인기 시리즈물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국내 창작 뮤지컬로 재탄생된 '심야식당'도 6위에 올라 눈길을 끈다.

한편, 지난 9월 완결된 네이버 웹툰 '신과 함께'의 다시보기 서비스가 유료로 전환되면서 논쟁이 일고 있다. 다음 역시 '만화속 세상'에서 완결된 작품에 대한 유료화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웹툰은 한국을 대표하는 콘텐츠로 자리매김한지 오래지만, 무료 서비스가 일반화되며 작가들로서는 포털에서 지급하는 적은 원고료와 영화화되는 극소수 작품에 대한 저작권료, 단행본 수입 이외에는 이렇다 할 수익모델이 없었다. 작가들은 수입의 안정을 통해 더 나은 창작물의 생산을, 포털은 웹툰을 활용한 수익모델 확립을 기대하고 있으나 웹툰은 무료라고 인식하고 있는 독자들의 거부감을 해결하는 것이 숙제로 남아 있다.

출판만화 베스트셀러 TOP 10

1. 한국만화 베스트셀러 (12월)

순위	도서명	작가	출판사	장르	출간일
1	미생	윤태호 글/그림	위즈덤하우스	웹툰/카툰에세이	2012.12.24.
2	다이어터	네온비 글, 캐러멜 그림	중앙북스	웹툰/카툰에세이	2012.07.13.
3	신과 함께	주호민 글/그림	애니북스	웹툰/카툰에세이	2012.11.15.
4	역전 야매요리	정다정	재미주의	웹툰/카툰에세이	2012.11.30.
5	마조 앤 새디	정철연 글/그림	예담	웹툰/카툰에세이	2012.08.30.
6	어쿠스틱 라이프	난다	애니북스	웹툰/카툰에세이	2012.12.24.
7	이런 영웅은 싫어	삼촌	길찾기	웹툰/카툰에세이	2012.12.20.
8	말에서 내리지 않는 무사	허영만 이호준 글, 허영만 그림	월드김영사	역사만화	2012.10.28.
9	26년	강풀	재미주의	웹툰/카툰에세이	2012.02.09.
10	쿠베라	카레곰	길찾기	웹툰/카툰에세이	2012.11.30.

* 집계방식: 시리즈는 합산하였으며, 주요 6개 서점의 순위에 가중치 적용하여 순위산정 (교보문고:8, YES24:6, 인터파크:3, 리브로:2, 알라딘:3, 반디앤루니스:1)
* 출처: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자료제공, 한국콘텐츠진흥원 재구성

2. 외국만화 베스트셀러 (12월)

순위	도서명	작가	출판사	장르	출간일
1	원피스	오다 에이치로	대원씨아이	SF/판타지	2012.12.31.
2	바쿠만	Tsugumi Ohba 글, Takeshi Obata 그림	대원씨아이	SF/판타지	2012.11.30.
3	너에게 닿기를	Karuho Shiina	대원씨아이	순정만화	2013.01.15.
4	명탐정 코난	Aoyama Gosho	서울문화사	탐정/추리	2013.01.25.
5	신의 물방울	Tadashi Agi 글, Shu Okimoto 그림	학산문화사	직업만화	2012.10.25.
6	심야식당	아베 야로	대원씨아이	요리만화	2012.12.15.
7	흑집사	야나 토보소	학산문화사	SF/판타지	2012.11.25.
8	나루토	Masashi Kishimoto 글, Masashi Kishimoto 그림	대원씨아이	액션/무협만화	2012.12.31.
9	블리치	쿠보 타이토	서울문화사	SF/판타지	2012.11.25.
10	헌터x헌터	토가시 요시히로	학산문화사	SF/판타지	2012.11.25.

* 집계방식: 시리즈는 합산하였으며, 주요 6개 서점의 순위에 가중치 적용하여 순위산정 (교보문고:8, YES24:6, 인터파크:3, 리브로:2, 알라딘:3, 반디앤루니스:1)
* 출처: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자료제공, 한국콘텐츠진흥원 재구성

만화소설(라이트노벨) 베스트셀러 순위에서는 '소드 아트 온라인'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케이블방송(애니플러스)에서 애니메이션은 종료되었으나 소설이 인기리에 연재중이며, 현지에서 12월에 발매된 11권이 조만간 한국에서 발매될 예정이라 당분간 인기가 지속될 전망이다. 학원 러브 코미디물인 '사쿠라장의 애완 그녀'도 10월과 11월에 이어 3개월 연속 2위에 올랐다. 3위는 '고양이 이야기'가 차지했다. 괴물이야기로 잘 알려진 니시오 이신의 소설로, 4화짜리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방영된 바 있다. 국내 작가의 작품으로는 8위를 기록한 '숨덕부'가 유일하게 올라와 있다.

3. 만화소설 (라이트노벨) 베스트셀러 (12월)

순위	도서명	작가	출판사	가격	출간일
1	소드 아트 온라인	카와하라 레키 글, abec 그림	J NOVEL	7,000	2012.11.10.
2	사쿠라장의 애완 그녀	카모시다 하지메 글, 미조구치 케이지 그림	디앤씨미디어	6,800	2012.11.01.
3	고양이 이야기	니시오 이신 글, VOFAN 그림	파우스트박스	12,000	2012.11.07.
4	성각의 용기사	미즈치 시키 글, 시메사바 코하다 그림	서울문화사	6,500	2012.11.10.
5	하트 커넥트	안다 사다나츠 글, 시로미자카나 그림	대원씨아이	7,000	2012.11.15.
6	하이스쿨 DxD	이시부미 이치에이 글, 미야마 제로 그림	노블엔진	6,500	2012.11.01.
7	마오유우 마왕 용사	토노 마마레 글, toi8 그림	대원씨아이	4,800	2012.12.25.
8	숨덕부	오버정우기 글, Anmi 그림	디앤씨미디어	6,500	2012.11.01.
9	역시 내 청춘 러브코메디는 잘못됐다	와타리 와타루 글, 풍칸⑧ 그림	디앤씨미디어	6,500	2012.11.10.
10	전파녀와 청춘남	아루마 히토마 글, 브리키 그림	학산문화사	6,800	2012.10.11.

* 집계방식: 시리즈는 합산하였으며, 주요 6개 서점의 순위에 가중치 적용하여 순위산정 (교보문고:8, YES24:6, 인터파크:3, 리브로:2, 알라딘:3, 반디앤루니스:1)
* 출처: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자료제공, 한국콘텐츠진흥원 재구성

12월 만화 단행본 출간 종수는 231종으로 11월에 비해 소폭(11종) 증가했다. 2012년 한 해 동안 출간된 만화 종수는 총 3,241종으로 작년 대비 452종이 감소해 10년간 최저치를 기록했다. 만화 단행본 출간 종수는 2007년 4,000종 아래로 떨어진 이후 5년 동안 3,000종 가량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장르별 만화 출간 현황에서는 여전히 '성인/성애'가 가장 많이 출간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성애'는 만화시장의 불황에도 전월보다 25종 늘어난 84종을 출간했다. '순정'과 '드라마', '판타지'도 강세를 지속하며 30종 이상의 작품을 선보였으나 지난 3개월간 출간 합계는 100편을 넘기지 못했다.

만화 단행본 출간 현황

1. 만화 출간 종수 추이 (2002년 ~ 2012년)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2002	689	622	696	729	698	540	627	585	574	653	574	582	7,569
2003	612	569	566	566	578	581	603	525	511	577	561	615	6,864
2004	522	531	520	462	466	464	513	416	427	406	418	425	5,570
2005	366	396	428	399	385	415	368	348	372	363	373	396	4,609
2006	393	382	351	329	351	318	332	334	347	327	339	346	4,149
2007	330	308	322	300	295	331	321	322	279	299	311	332	3,750
2008	308	294	330	319	334	323	338	303	291	327	278	310	3,755
2009	263	308	345	296	300	306	339	292	332	296	296	357	3,730
2010	305	282	317	337	345	339	401	331	295	320	307	320	3,899
2011	317	272	318	326	291	301	328	275	328	309	309	319	3,693
2012	282	316	300	310	278	279	260	257	237	271	220	231	3,241

* 출처: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자료제공, 한국콘텐츠진흥원 재구성

2. 장르별 만화 출간 현황 (10월~12월)

장르	2009. 10.	2009. 11.	2009.12.	2010. 10.	2010. 11.	2010.12.	2011. 10.	2011. 11.	2011.12.	2012. 10.	2012. 11.	2012.12.	합계
성인/성애	55	62	75	76	77	82	67	65	70	74	59	84	846
순정	64	68	70	55	65	56	37	51	54	34	26	35	615
드라마	44	52	51	50	48	48	61	52	59	36	31	30	562
판타지	39	36	39	45	40	40	56	45	36	37	30	30	473
코믹	13	7	22	18	15	15	10	17	15	18	12	10	172
에세이툰	23	20	11	8	11	14	14	23	13	13	7	10	167
스포츠	14	6	13	13	10	15	12	12	6	10	7	6	124
SF	4	18	19	11	6	8	7	7	8	11	14	7	120
학원	9	5	5	4	12	8	12	9	8	5	6	6	89
액션	6	7	10	6	2	8	6	5	10	7	10	4	81
야오이	-	-	27	8	1	-	-	2	1	13	2	-	54
아동	4	1	1	6	3	3	3	7	4	7	4	2	45

* 출처: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자료제공, 한국콘텐츠진흥원 재구성

2012년 10월에서 12월까지 국내에서 출간된 722종의 만화 중 한국작가의 작품은 248종, 일본작가의 작품은 469종으로 나타났다. 11월과 비교하면 한국작가의 작품이 20종이나 증가했고, 일본작가의 작품은 8종이 감소했다. 2009년과 비교하면 전체 만화 출간 종수가 많이 줄어들기는 했으나, 한국작가의 만화에 비해 일본작가 만화의 출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출판사별 만화 출간 종수를 살펴보면 12월에도 '대원씨아이'가 58종, '㈜학산문화사'가 53종을 기록하며 만화 시장을 이끌었다. 대부분의 출판사가 출간 종수를 줄인 가운데 '삼양출판사'와 '도서출판 우신'은 출간 종수가 오히려 증가했다. 특히 일일만화 작가의 성인극화를 주로 선보이는 '도서출판 우신'은 전월에 비해 10편이나 많은 만화를 출간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화 단행본의 11월 평균정가는 6,232원으로, 전월대비 861원 하락했다. 만화 단행본 정가는 출간 만화의 종류와 작가의 국적, 판형과 판본에 따라 가격차이가 심하게 나는 편이다.

3. 국적별 만화 출간 현황 (10~12월)

구분	2009. 10.	2009. 11.	2009. 12.	2010. 10.	2010. 11.	2010. 12.	2011. 10.	2011. 11.	2011. 12.	2012. 10.	2012. 11.	2012. 12.	합계 (2012년)
한국작가	96	101	124	109	96	109	119	94	95	86	71	91	248 (34.3%)
일본작가	197	191	221	208	204	210	187	214	223	183	147	139	469 (65.0%)
기타	3	4	12	3	7	1	3	1	1	2	2	1	5 (0.7%)
합계	296	296	357	320	307	320	309	309	319	271	220	231	722 (100%)

* 출처: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자료제공, 한국콘텐츠진흥원 재구성

4. 출판사별 만화 출간 종수 (10~12월)

구분	2009. 10.	2009. 11.	2009. 12.	2010. 10.	2010. 11.	2010. 12.	2011. 10.	2011. 11.	2011. 12.	2012. 10.	2012. 11.	2012. 12.
대원씨아이㈜	71	74	90	73	78	85	78	84	74	78	63	58
㈜학산문화사	74	68	68	67	69	70	70	71	83	61	60	53
㈜서울문화사	41	38	36	43	38	34	36	33	38	12	15	12
㈜삼양출판사	10	16	18	27	25	20	18	20	10	13	12	14
현대지능개발사	10	11	12	21	14	19	14	14	20	14	18	16
도서출판 우신	9	13	16	21	8	17	10	12	10	12	9	19

* 월 10종 이상 출간 출판사 대상
* 출처: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자료제공, 한국콘텐츠진흥원 재구성

5. 만화 단행본 평균정가 (10~12월)

구분	2009. 10.	2009. 11.	2009. 12.	2010. 10.	2010. 11.	2010. 12.	2011. 10.	2011. 11.	2011. 12.	2012. 10.	2012. 11.	2012. 12.
평균정가 (원)	5,407	5,470	5,794	6,266	5,610	5,784	6,783	6,742	6,793	6,649	7,093	6,232

* 출처: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자료제공, 한국콘텐츠진흥원 재구성

12월 만화소설(라이트노벨) 및 장르소설의 출간 종수는 355종으로 지난달에 비해 62종이 감소하며 10월 수준으로 회귀했다. 2012년 연간 합계는 총 4,467종으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2006년의 소폭 하락을 제외하면 해마다 성장을 거듭해온 만화소설(라이트노벨)/장르소설 시장이 정체기에 접어드는 것인지 내년의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12월 장르별 출간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을 제외한 모든 장르가 11월보다 적은 수의 소설을 출간했다. '판타지'는 38종이 감소했고, '무협'과 '로맨스'도 각각 17종, 5종이 줄어들었다. 그 밖의 장르에서는 출간물이 나오지 않았는데, 지난 3년 중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출간된 '일반'을 제외한 타 장르의 출간 합계가 50종에도 미치지 못해 독자들의 장르 편중 현상이 심한 현실을 엿볼 수 있다.

만화소설(라이트노벨) / 장르소설 현황

1. 만화소설 / 장르소설 출간 종수 (1~12월)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2002	70	62	71	54	76	61	91	83	88	112	113	111	992
2003	109	132	122	125	121	118	164	197	273	309	299	329	2,298
2004	304	309	318	275	280	303	339	285	307	348	289	375	3,732
2005	338	302	325	317	285	316	365	321	316	319	318	341	3,863
2006	294	312	316	331	313	310	330	320	344	288	303	352	3,813
2007	324	316	355	350	371	355	367	365	331	353	348	347	4,182
2008	363	312	354	343	334	330	401	338	336	373	427	402	4,313
2009	373	352	373	380	386	362	425	366	384	365	374	430	4,570
2010	389	331	398	387	391	395	440	355	359	417	392	391	4,645
2011	391	338	412	412	371	363	404	344	442	372	372	406	4,627
2012	333	355	421	348	363	420	348	376	383	348	417	355	4,467

* 출처: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자료제공, 한국콘텐츠진흥원 재구성

2. 만화소설 / 장르소설 장르별 출간 현황 (10~12월)

구분	2009. 10.	2009. 11.	2009. 12.	2010. 10.	2010. 11.	2010. 12.	2011. 10.	2011. 11.	2011. 12.	2012. 10.	2012. 11.	2012. 12.
판타지	207	210	223	242	246	234	240	225	271	236	260	222
무협	97	79	85	104	87	92	85	89	77	70	89	72
로맨스	47	59	96	53	38	54	38	46	47	36	59	54
일반	8	21	16	12	17	10	5	7	6	3	7	7
N세대	4	2	8	2	2	-	-	2	2	-	2	-
추리	1	2	2	2	1	1	2	2	1	3	-	-
역사	-	-	-	-	1	-	2	-	-	-	-	-
공포	-	-	-	1	-	-	-	1	1	-	-	-

* 출처: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자료제공, 한국콘텐츠진흥원 재구성

2012년 12월 만화소설 및 장르소설의 국적별 출간종수를 살펴보면 한국소설은 291종이, 일본소설은 50종이 출간됐다. 일본소설이 전월대비 4종 줄어든 반면 한국소설은 61종이나 줄어들어 한국작가의 작품 감소가 12월의 만화소설/장르소설 출간종수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부터 3개월간 총 합계는 한국작가 919종, 일본작가 166종으로 한국 작가의 비중은 2% 감소했으나 일본 작가의 비중은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화와 마찬가지로 만화소설/장르소설의 12월 출판사별 출간 현황도 좋지 않다. 대다수의 출판사에서 출간 종수가 감소했다. 세 곳의 출판사만이 변동이 없거나 출간 종수가 증가했으며, 증가한 수치도 1편에 불과했다. '디앤씨미디어'는 49종을 출간하여 12월에도 가장 많은 종수의 만화소설/장르소설을 출간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출판 영상노트'가 42종, '로크미디어'가 39종으로 뒤를 이었고 다른 출판사들은 30종을 넘지 못했다.

3. 만화소설 / 장르소설 국적별 출간 종수 (10~12월)

구분	2009. 10.	2009. 11.	2009. 12.	2010. 10.	2010. 11.	2010. 12.	2011. 10.	2011. 11.	2011. 12.	2012. 10.	2012. 11.	2012. 12.	합계(2012년)
한국작가	319	312	367	365	325	338	310	309	346	276	352	291	919 (82.1%)
일본작가	37	47	37	44	54	44	52	51	50	62	54	50	166 (14.8%)
기타	9	15	26	8	13	9	10	12	10	10	11	14	35 (3.1%)
합계	365	374	430	417	392	391	372	372	406	348	417	355	1,120 (100%)

* 출처: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자료제공, 한국콘텐츠진흥원 재구성

4. 만화소설 / 장르소설 주요 출판사별 출간 종수 (10~12월)

구분	2009. 10.	2009. 11.	2009. 12.	2010. 10.	2010. 11.	2010. 12.	2011. 10.	2011. 11.	2011.12.	2012. 10.	2012. 11.	2012.12.
디앤씨미디어	42	35	42	42	38	47	39	44	47	47	52	49
㈜로크미디어	35	39	40	36	32	39	41	38	39	39	40	39
도서출판 뿔미디어	21	16	11	45	49	53	45	45	49	22	35	26
도서출판 영상노트	25	21	24	26	27	32	38	40	38	41	49	42
㈜마루·마야출판사	35	33	34	31	29	31	28	27	31	25	26	26
도서출판 청어람	29	24	28	24	31	26	23	24	33	23	33	29
어울림 출판사	16	16	19	28	21	27	24	21	24	22	24	22
대원씨아이㈜	-	-	-	9	10	7	25	22	32	31	38	28
㈜루트미디어	21	23	19	16	17	17	14	15	13	14	14	11
도서출판 환상	13	14	12	16	13	18	14	15	16	12	16	14
㈜신영미디어	11	12	15	16	13	11	18	14	10	13	9	8
㈜삼양출판사	21	25	23	18	11	11	9	7	9	3	5	6
㈜학산문화사	10	9	9	10	13	14	11	13	12	14	10	10
㈜서울문화사	11	10	13	12	13	6	9	9	9	9	13	10
도서출판 동아	10	7	8	8	7	6	6	5	7	8	8	6

* 10~12월 5종 이상 출간 출판사 대상
* 출처: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자료제공, 한국콘텐츠진흥원 재구성

12월 일일만화 출간 종수는 350종으로 전월대비 41종이 증가했다. 이로써 2012년 누적 출간종수는 총 4,096종을 기록해 2009년 이후 3년만에 4,000종 이상이 출간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에도 이와 같은 증가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 기대된다.

일일만화의 시장규모 추이에 따르면, 12월에는 350종의 만화가 총 231,000부 발행됐다. 12월 시장규모는 9억 2천4백만 원 수준으로 전월대비 1억1천만원 가량 증가했다. 2012년도 일일만화 시장 합계는 총 4,096종의 만화책이 270만부 발행되었다. 시장규모는 108억 원을 이루어 1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일일만화 출간 현황

1. 일일만화 출간 종수 (2002년 ~ 2012년)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2002	347	344	391	398	357	333	398	399	398	464	463	439	4,731
2003	447	353	443	392	404	379	437	414	387	434	402	471	4,963
2004	439	428	435	394	409	426	372	424	473	450	382	415	5,047
2005	431	361	478	454	463	470	468	432	479	517	525	492	5,570
2006	426	385	403	392	422	374	410	402	436	374	420	438	4,882
2007	410	350	453	398	455	422	433	461	441	475	458	385	5,141
2008	354	334	429	405	375	341	425	364	407	404	366	451	4,655
2009	423	386	399	384	366	385	431	351	338	347	415	229	4,454
2010	299	296	350	283	158	244	285	311	411	385	380	388	3,790
2011	352	348	443	335	258	305	246	266	223	331	233	380	3,720
2012	271	388	415	392	387	295	316	274	366	333	309	350	4,096

* 출처: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자료제공, 한국콘텐츠진흥원 재구성

2. 일일만화 월별 시장규모 추이 (2012. 1. ~ 2012. 12.)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출간종수	271	388	415	392	387	295	316	274	366	333	309	350	4,096
발행부수	178,860	256,080	273,900	258,720	255,420	194,700	208,560	180,840	241,560	219,780	203,940	231,000	2.703.360
시장규모(천원)	715,440	1,024,320	1,095,600	1,034,880	1,021,680	778,800	834,240	723,360	966,240	879,120	815,760	924,000	10,813,440

* 출처: 한국만화영상진흥 자료제공, 한국콘텐츠진흥원 재구성

12월 작가별 일일만화 출간 현황을 살펴보면 62종을 출간한 '야설록'이 3개월 동안 가장 많은 만화를 출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작가들은 출간 종수가 줄어들어 1위와 2위 그룹의 차이가 2배가량으로 벌어지는 모습이다. 무협 만화가 '황성'작가는 11월에 비해 22종 줄어든 37종의 만화를 선보였고, 전월 54종을 발간한 '박봉성' 프로덕션은 12월에 숨을 고르고 있다. 12월에는 각종 행사와 크리스마스, 대선 등 휴일이 많았던 관계로 인기 작가들의 출간 종수가 감소한 것으로 생각된다.

3. 일일만화 작가별 출간 현황 (10~12월)

구분	2009. 10.	2009. 11.	2009. 12.	2010. 10.	2010. 11.	2010. 12.	2011. 10.	2011. 11.	2011. 12.	2012. 10.	2012. 11.	2012. 12.	합계
야설록	53	80	71	57	59	52	37	64	9	79	56	62	679
황성	60	77	61	17	63	47	36	42	24	59	59	37	582
고행석	40	48	30	25	54	50	24	34	53	59	32	26	475
박봉성	26	57	54	19	50	47	23	56	55	31	54	-	472
사마달	49	20	34	14	47	36	26	22	29	27	37	20	361
김성둥	39	26	22	23	55	15	30	19	34	7	26	18	314
신형빈	13	20	23	10	23	37	20	19	3	46	40	16	270
하승남	-	24	36	25	-	23	37	29	-	-	49	32	255
묵검향	-	-	-	23	-	33	-	19	-	28	27	14	144
김성모	17	16	-	-	12	13	-	-	-	13	-	-	71

* 출처: 한국만화영상진흥 자료제공, 한국콘텐츠진흥원 재구성

03 음악

12월 가온 디지털 음악 종합차트에서는 이승기의 '되돌리다'가 1위를 차지했다. 1년여 만에 발표하는 미니앨범이자 인기 인디뮤지션 에피톤 프로젝트와의 공동 작업으로, 발매 전부터 기대를 모았었다. 아이돌 그룹 비스트의 멤버 양요섭의 솔로앨범 수록곡 '카페인'은 전월대비 34계단이 상승하며 2위를 차지했고,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들의 크리스마스 프로젝트 '크리스마스니까'가 3위로 새롭게 순위에 진입했다. '크리스마스니까'를 비롯해 10위의 '하얀 설레임', 11위의 '하얀 겨울' 등 올해도 겨울을 맞아 연말 프로젝트 앨범이 꾸준히 사랑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K팝 스타 시즌2에서 화제의 중심에 서 있는 악동뮤지션은 '매력있어'와 '다리꼬지마' 두 곡을 4위와 5위에 올리며 방송 초기임에도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고, 슈퍼스타 K4의 우승자 로이킴의 '힐링이 필요해'도 좋은 반응을 이어가고 있다.

디지털 음악 종합 TOP 20 (12월)

순위	변동	곡명	앨범명	아티스트	제작사	가온지수
1	△5	되돌리다	숲	이승기	후크엔터테인먼트	110,364,099
2	△34	카페인	The First Collage	양요섭	큐브엔터테인먼트	87,060,519
3	New	크리스마스니까	Jelly Christmas 2012 HEART PROJECT	성시경,박효신,이석훈,서인국,빅스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	84,658,579
4	New	매력있어	SBS K팝 스타 시즌2 매력있어	악동뮤지션	SBS 콘텐츠허브	64,582,974
5	△24	다리꼬지마	SBS K팝 스타 시즌2 '다리꼬지마'	악동뮤지션	SBS 콘텐츠허브	63,901,036
6	New	TALK THAT	TALK THAT	시크릿	TS엔터테인먼트	59,597,473
7	▽3	하지 못한 말	Time For Love	노을	ITM	56,723,089
8	▽6	Officially missing you, too	re:code Episode I	긱스, 소유	로엔엔터테인먼트	56,294,611
9	△11	나쁜 사람	원앤원	주니엘	로엔엔터테인먼트	55,690,828
10	△79	하얀 설레임	Starship Planet 2012	케이윌, 소유, 정민	스타쉽엔터테인먼트	53,958,120
11	New	하얀 겨울	하얀 겨울	김범수 & 박정현	일광폴라리스 / 타엔터테인먼트	52,520,436
12	▽11	1,2,3,4	1,2,3,4	이하이	YG Entertainment	49,010,634
13	▽10	보여줄게	Invitation	에일리	YMC엔터테인먼트	44,512,465
14	△2	힐링이 필요해	슈퍼스타K4 TOP12 Part 6	로이킴	CJ E&M	43,228,234
15	New	일 년째	Anemone	지아	로엔엔터테인먼트	42,871,281
16	New	백야	Holding Onto Gravity	넬	울림 엔터테인먼트	42,572,553
17	New	Goodbye To Romance	Antique Romance	써니힐	로엔엔터테인먼트	42,318,737
18	New	Dancing Queen	I Got A Boy	소녀시대	SM Entertainment	42,092,090
19	▽14	? (feat. 최자 Of 다이나믹듀오, Zion.T)	Primary And The Messengers LP	프라이머리	아메바 컬쳐	38,748,721
20	△50	스쳐간다	스쳐간다	로이킴	CJ E&M	35,296,657
합계						1,126,606,919

* 순위 집계 : 스트리밍 + 다운로드 + BGM 판매량 + 모바일 판매량
* 출처 : 가온차트 (www.gaonchart.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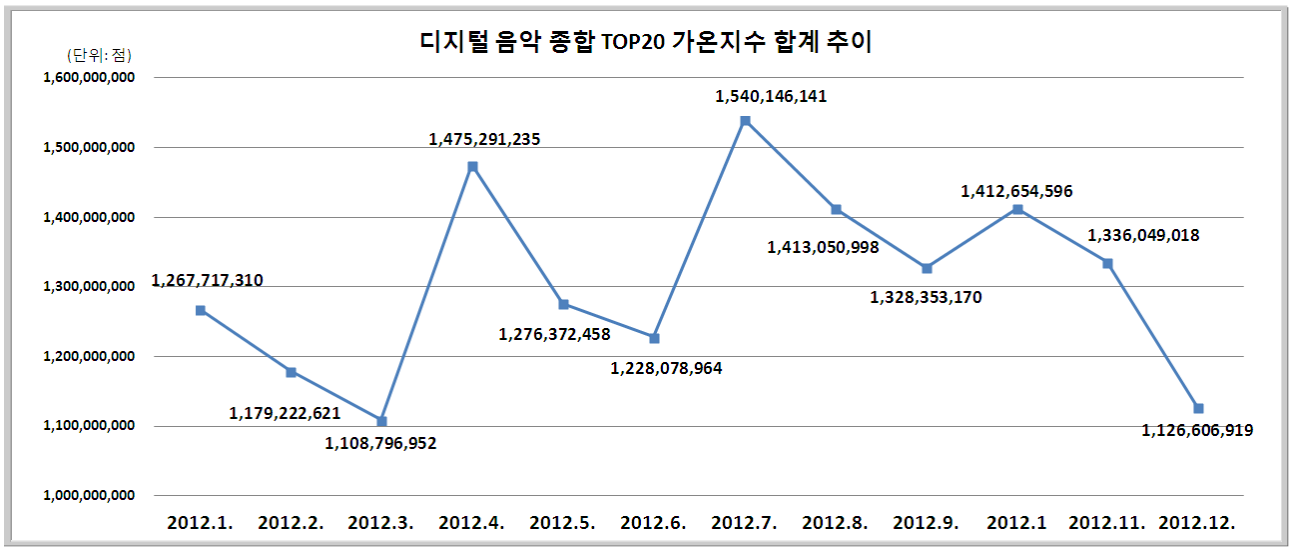
12월 디지털 음악 종합차트의 20위권 곡들의 가온지수 합계는 1,126,606,919점으로 전월대비 대폭 감소했다. 이는 2012년 조사 결과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치이다. 연말 콘서트나 특집 방송, 시상식 준비로 바쁜 시기인데다, 4집 앨범 발매를 예고한 소녀시대와의 맞대결을 피해 신곡발매가 저조했기 때문이다.

디지털 음악 종합 TOP 3 추이를 보면 아이돌 그룹의 홍수 속에 상반기 버스커 버스커, 하반기 싸이의 활약이 돋보인 한 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차트에서 아이돌, 걸그룹의 위세가 한풀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디지털 음악 종합 TOP 20 가온지수 합계 추이 (2012. 1. ~ 2012. 12.)

구분	2012. 1.	2012. 2.	2012. 3.	2012. 4.	2012. 5.	2012. 6.	2012. 7.	2012. 8.	2012. 9.	2012. 10	2012. 11.	2012. 12.
가온지수	1,267,717,310	1,179,222,621	1,108,796,952	1,475,291,235	1,276,372,458	1,228,078,964	1,540,146,141	1,413,050,998	1,328,353,170	1,412,654,596	1,336,049,018	1,126,606,919

* 출처 : 가온차트 (www.gaonchart.co.kr), 한국콘텐츠진흥원 재구성



2012년 디지털 음악 종합 TOP 3 추이 (2012. 1. ~ 2012. 12.)

구분	1위	2위	3위
2012. 1.	티아라 / Lovey-Dovey	다이나믹 듀오 / 거기서거기	10cm / 애상
2012. 2.	빅뱅 / BLUE	린 / 시간을 거슬러	F.T Island / 지독하게
2012. 3.	빅뱅 / FANTASTIC BABY	2AM / 너도 나처럼	빅뱅 / BLUE
2012. 4.	버스커 버스커 / 벚꽃 엔딩	씨스타 / 나혼자	버스커버스커 / 첫사랑
2012. 5.	소녀시대-태티서 / Twinkle	아이유 / 하루 끝	백지영 / 목소리(Feat. 개리 of 리쌍)
2012. 6.	원더걸스 / Like this	빅뱅 / MONSTER	f(x) / Electric Shock
2012. 7.	2NE1 / I Love You	티아라 / DAY BY DAY	씨스타 / Loving U
2012. 8.	싸이 / 강남스타일	보아 / Only One	다비치 / 남자도 우나요
2012. 9.	정은지, 서인국 / All For You	G-Dragon / 그XX	티아라 / SEXY LOVE
2012. 10.	가인 / 피어나	에픽하이 / 춥다 (Feat. 이하이)	케이윌 / 이러지마 제발
2012. 11.	이하이 / 1,2,3,4	긱스, 소유 / Officially missing you, too	에일리 / 보여줄게
2012. 12.	이승기 / 되돌리다	양요섭 / 카페인	성시경,박효신,이석훈,서인국,빅스 / 크리스마스니까

* 출처 : 가온차트 (www.gaonchart.co.kr), 한국콘텐츠진흥원 재구성

12월 오프라인 앨범차트에서는 장수 아이돌 그룹 신화의 신혜성 스페셜 앨범 'WINTER POETRY'가 깜짝 1위를 차지했다. 1년 만에 스페셜 앨범 'Winter Poetry'를 발매한 신혜성은 연말 단독 콘서트에 이어 1월 오사카와 도쿄에서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동방신기의 리패키지 앨범 'Humanoids'는 지난달에 이어 2위를 지켰고, 양요섭이 B1A4와 순위를 바꾸며 3위로 한 단계 올라섰다.

앨범 판매 차트에서의 인기 아이돌 그룹의 강세는 여전했다. 'KARA SOLO Collection'과 '2012 2NE1 Global Tour Live : New Evolution In Seoul'이 각각 6, 7위에 올랐다. 더불어, 12월 말 기준 3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의 인기에 힘입어 5위에 오른 'Les Miserables OST'를 비롯해, '풀하우스 테이크 2', '신의' 등 3개의 OST 앨범이 순위에 들어있다.

앨범 판매량 15위권 유통사별 판매 현황을 살펴보면, 3장의 앨범에서 43,838장을 판매한 'CJ E&M'이 12월 가장 많은 앨범 판매량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엔엔터테인먼트'는 순위권에 6장의 앨범을 올렸으나 판매량은 38,647장으로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KMP 홀딩스'와 'Universal Music'은 세 장과 두 장의 앨범을 통해 각각 39,381장, 32,199장의 판매고를 올렸고 '포니캐년 코리아'은 한 장의 앨범에서 16,105장을 판매했다.

오프라인 앨범 판매 TOP 15 (12월)

순위	변동	앨범명	아티스트	유통사	발매일	판매량	누적판매량
1	New	WINTER POETRY	신혜성	CJ E&M	2012.12.04.	24,102	24,102
2	-	Humanoids (Repackage)	동방신기	KMP 홀딩스	2012.11.26.	22,788	80,386
3	△1	The First Collage	양요섭	Universal Music	2012.11.26.	17,514	53,754
4	▽1	In The Wind	B1A4	포니캐년코리아	2012.11.12.	16,105	63,664
5	New	Les Miserables OST	Various Artists	Universal Music	2012.12.25.	14,685	14,685
6	New	KARA SOLO Collection	카라	CJ E&M	2012.11.30.	14,575	14,575
7	New	2012 2NE1 Global Tour Live : New Evolution In Seoul	2NE1	KMP 홀딩스	2013.01.16.	8,900	8,900
8	New	풀하우스 테이크 2 OST	Various Artists	로엔엔터테인먼트	2012.12.10.	8,718	8,718
9	New	Holding onto Gravity	넬	로엔엔터테인먼트	2012.12.03.	8,070	8,070
10	-	One Of A Kind	G-Dragon	KMP 홀딩스	2012.09.15.	7,693	204,326
11	▽10	Another Me	김성규	로엔엔터테인먼트	2012.11.19.	7,594	70,552
12	New	Jelly Christmas 2012 HEART PROJECT	성시경,박효신,이석호,서인국,빅스	CJ E&M	2012.12.06.	5,161	5,161
13	▽8	야누스	보이프렌드	로엔엔터테인먼트	2012.11.08.	5,043	30,730
14	▽8	숲	이승기	로엔엔터테인먼트	2012.11.22.	4,748	23,414
15	New	신의 OST	Various Artists	로엔엔터테인먼트	2012.10.22.	4,474	4,474
합계						170,170	615,511

* 앨범 순위집계 : 제작사 출고단위 도매 수량
* 출처 : 가온차트 (www.gaonchart.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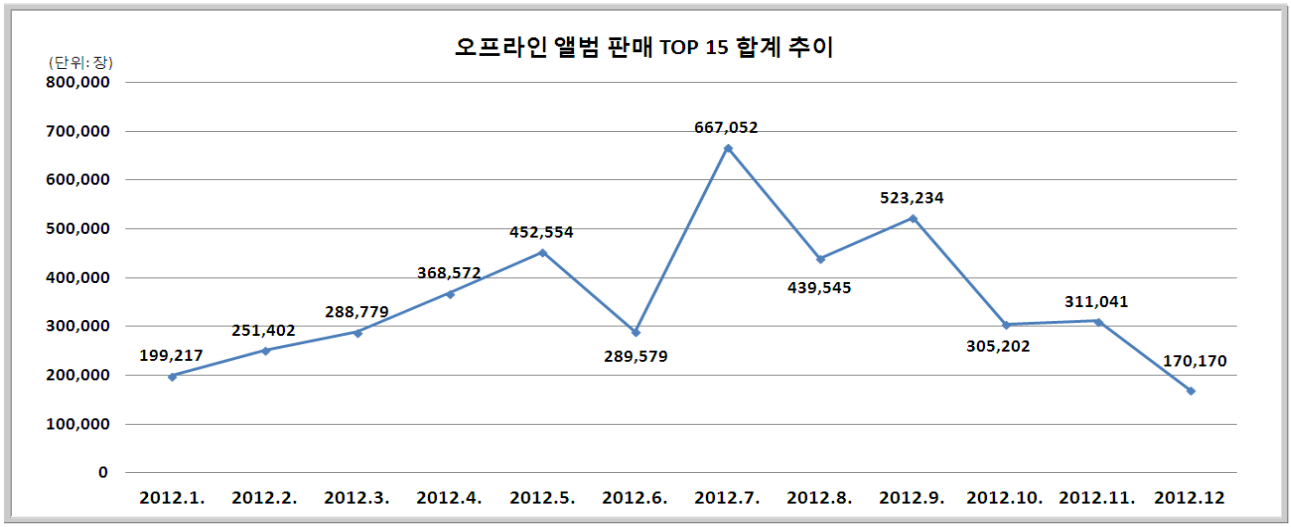
12월 오프라인 앨범판매 TOP 15의 합계는 17만장으로 2012년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 12월은 전통적으로 소비심리가 상승하며 매출을 견인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음원 유통의 일반화와 더불어 음반 판매량은 전월대비 14만장이 하락하며 40%가 넘는 감소율을 보였다. 1위 앨범의 판매량이 2만4,000장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저조했다. 다만, 5위 이하의 앨범 판매량은 전월 대비 비교적 차이가 크지 않아 소수 아이돌 가수의 앨범 판매에 영향을 심하게 받는 차트의 특징을 짐작케 한다.

2012년 오프라인 앨범판매 TOP 3 추이를 살펴보면 남자 아이돌이 차트를 이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녀시대의 유닛 태티서가 1위를 차지한 5월을 제외하면 남자 아이돌이 모두 1위를 기록했다. 2, 3위를 포함해도 여자 가수의 앨범은 총 3개에 불과했다.

2012년 오프라인 앨범 판매 TOP 15 합계 추이 (2012. 1. ~ 2012. 12.)

구분	2012. 1.	2012. 2.	2012. 3.	2012. 4.	2012. 5.	2012. 6.	2012. 7.	2012. 8.	2012. 9.	2012. 10.	2012. 11.	2012. 12
판매량	199,217	251,402	288,779	368,572	452,554	289,579	667,052	439,545	523,234	305,202	311,041	170,170

* 출처 : 가온차트 (www.gaonchart.co.kr), 한국콘텐츠진흥원 재구성



2012년 오프라인 앨범 판매 TOP 3 추이 (2012. 1. ~ 2012. 12.)

구분	1위	2위	3위
2012. 1.	엠블렉 / MBLAQ 4th Mini Album '100%Ver.'	티아라 / Funky Town (EP)	F.T Island / GROWN-UP (EP)
2012. 2.	빅뱅 / 5집 ALIVE	박재범 / New Breed	샤이니 / THE 1st ASIA TOUR CONCERT ALBUM 'SHINee'
2012. 3.	샤이니 / 'Sherlock' SHINee The 4th Mini Album	씨엔블루 / 3rd Mini Album Ear Fun	빅뱅 / 5집 ALIVE
2012. 4.	EXO-K / 'MAMA' EXO-K The 1st Mini Album	씨엔블루 / 3rd Mini Album Ear Fun	버스커버스커 / 버스커버스커 정규 1집
2012. 5.	소녀시대-태티서 / 'Twinkle' Mini Album	XIA / Tarantallegra	인피니트 / Infinitize
2012. 6.	빅뱅 / BIGBANG SPECIAL EDITION 'STILL ALIVE'	f(x) / 'Electric Shock' The 2nd Mini Album	틴 탑 / aRtisT
2012. 7.	슈퍼주니어 / 6집 Sexy, Free & Single	비스트 / Midnight Sun	장우영 / 23, Male, Single
2012. 8.	슈퍼주니어 / `SPY` The 6th Album Repackage	비스트 / Midnight Sun	XIA (준수) / Uncommitted
2012. 9.	G-Dragon / One Of A Kind	동방신기 / Catch Me	F.T Island / Five Treasure Box
2012.10.	동방신기 / Catch Me	싸이 / 싸이6甲 Part.1	에픽하이 / 7집 99
2012.11.	김성규 / Another Me	동방신기 / Humanoids	B1A4 / In The Wind
2012.12.	신혜성 / WINTER POETRY	동방신기 / Humanoids	양요섭 / The First Collage

* 출처 : 가온차트 (www.gaonchart.co.kr), 한국콘텐츠진흥원 재구성

서비스별 음원 차트에서는 이승기가 모든 차트에서 1위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다. '되돌리다'는 모든 차트에서 순위가 상승하며 순조롭게 정상을 차지했다. 종합차트 2위인 '카페인'은 스트리밍 차트에서 2위, 다운로드와 BGM 차트에서 3위를 기록했고, 하트 프로젝트의 '크리스마스니까'는 다운로드와 BGM 음원 차트에서 2위에 올랐다.

악동뮤지션과 주니엘은 순위가 급상승하며 종합차트에 이어 세부 차트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2010년 발매된 아이유의 '미리 매리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77계단이 상승하며 BGM 음원 차트 5위에 올랐다. 양요섭의 '카페인'과 다운로드 음원 차트 5위로 진입한 시크릿의 'TALK THAT'을 제외하면 아이돌 가수의 신곡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진 것도 특징적이다.

서비스별 음원 차트

1. 스트리밍 음원 TOP 10 (12월)

순위	변동	곡명	아티스트
1	△19	되돌리다	이승기
2	△87	카페인	양요섭
3	▽1	Officially missing you, too	긱스, 소유
4	△5	크리스마스니까	성시경, 박효신 등
5	New	먼지가 되어	로이킴, 정준영
6	△59	다리꼬지마	악동뮤지션
7	▽6	1,2,3,4	이하이
8	▽5	보여줄게	에일리
9	△37	나쁜 사람	주니엘
10	▽4	? (feat. 최자 Of 다이나믹듀오, ZionT)	프라이머리

2. 다운로드 음원 TOP 10 (12월)

순위	변동	곡명	아티스트
1	△2	되돌리다	이승기
2	New	크리스마스니까	성시경, 박효신 등
3	△31	카페인	양요섭
4	New	매력있어	악동뮤지션
5	New	TALK THAT	시크릿
6	△17	다리꼬지마	악동뮤지션
7	New	하얀 겨울	김범수 & 박정현
8	△73	하얀 설레임	케이윌, 소유, 정민
9	△8	나쁜 사람	주니엘
10	▽6	하지 못한 말	노을

3. BGM 음원 TOP 10 (12월)

순위	변동	곡명	아티스트
1	△5	되돌리다	이승기
2	New	크리스마스니까	성시경, 박효신 등
3	△15	카페인	양요섭
4	▽3	Officially missing you, too	긱스, 소유
5	△77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아이유
6	New	니 얼굴 떠올라	별
7	▽5	귀여워	별
8	△22	나쁜 사람	주니엘
9	New	매력있어	악동뮤지션
10	New	키다리 아저씨	백아연

4. 벨소리 음원 TOP 10 (12월)

순위	변동	곡명	아티스트
1	△10	되돌리다	이승기
2	▽1	보여줄게	에일리
3	-	39.5	간종욱
4	New	하얀 겨울	김범수 & 박정현
5	△51	카페인	양요섭
6	△49	다리꼬지마	악동뮤지션
7	△2	Missing You (Feat. 김윤아 of 자우림)	G-Dragon
8	New	Don`t Go	디셈버
9	New	매력있어	악동뮤지션
10	New	크리스마스니까	성시경, 박효신 등

* 출처 : 가온차트 (www.gaonchart.co.kr)

인디음반 판매 차트는 에피톤 프로젝트가 장기간 1위를 차지했던 중순과 달리 지난달에 이어 변동이 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2월 전반기에는 '어반자카파'의 〈02〉가 정상을 탈환하는데 성공했으나, 2주 뒤 새롭게 발매된 '브로콜리너마저'에게 1위를 내주고 말았다. 앵콜요청금지, 보편적인 노래, 졸업 등 다양한 히트곡을 가지고 있는 '브로콜리너마저'의 〈1/10〉은 발매와 동시에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인디 여성 듀오 '제이레빗'의 캐럴 앨범 〈Merry Christmas with J Rabbit〉과 '푸른 새벽'이 소설가 김연수와 함께 작업한 〈Blue Christmas〉는 새롭게 순위에 들어왔다. 이 중 〈Blue Christmas〉는 크리스마스라는 주제를 '푸른 새벽'의 음악과 김연수의 소설로 표현해 만든 독특한 컨셉의 콜라보레이션 앨범이다.

인디음반 판매 TOP 10 (11. 26. ~ 12. 10.)

순위	변동	아티스트	앨범명	제작사	유통사
1	△1	어반자카파	(2집) 02	플럭서스뮤직	Universal Music
2	△7	제이레빗	(2집) Looking Around	Friendz.net	Mirrorball Music
3	-	이지형	(3집) 청춘마끼아또	해피로봇레코드	해피로봇레코드
4	▽3	페퍼톤스	(EP) Open Run	안테나뮤직	CJ E&M
5	▽1	10cm	(2집) 2.0	텐뮤직	Mirrorball Music
6	▽1	어반자카파	(1집) 01	플럭서스뮤직	Mirrorball Music
7	△5	에피톤 프로젝트	(2집) 낯선 도시에서의 하루	파스텔뮤직	KT 뮤직
8	▽2	원모어찬스	(1집) First Album	Snow Music	Mirrorball Music
9	△14	에피톤 프로젝트	(1집) 유실물 보관소	파스텔뮤직	브라우니엔터테인먼트
10	▽2	9와 숫자들	(EP) 유예	파고뮤직	파고뮤직

* 출처 : 인디고차트50 (http://music.daum.net/musicbar/)

인디음반 판매 TOP 10 (12. 11. ~ 12. 25.)

순위	변동	아티스트	앨범명	제작사	유통사
1	New	브로콜리너마저	(EP) 1/10	스튜디오 브로콜리	Mirrorball Music
2	New	제이레빗	Merry Christmas with J Rabbit	Friendz.net	Mirrorball Music
3	▽2	어반자카파	(2집) 02	플럭서스뮤직	Universal Music
4	New	푸른새벽 with 김연수	Blue Christmas	파스텔뮤직	브라우니 엔터테인먼트
5	▽3	제이레빗	(2집) Looking Around	Friendz.net	Mirrorball Music
6	▽1	10cm	(2집) 2.0	텐뮤직	Mirrorball Music
7	△3	9와 숫자들	(EP) 유예	파고뮤직	파고뮤직
8	-	원모어찬스	(1집) First Album	Snow Music	Mirrorball Music
9	▽6	이지형	(3집) 청춘마끼아또	해피로봇레코드	해피로봇레코드
10	▽3	에피톤 프로젝트	(2집) 낯선 도시에서의 하루	파스텔뮤직	KT 뮤직

* 출처 : 인디고차트50 (http://music.daum.net/musicbar/)

로이킴, 정준영의 '먼지가 되어'는 12월의 노래연습장 차트에서도 1위를 유지했다. TV 프로그램에서 방송된 음악이 순위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는 현상도 그대로 이어졌다. 정준영이 불렀던 '응급실'은 2위로 한 단계 상승했고, '말리꽃', 악동뮤지션의 '다리꼬지마', 로이킴의 '휘파람', 나는 가수다 시즌2의 우승자 더 원이 부른 '사랑아'까지 TV 매체를 통해 알려지며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12월 차트에서는 10월 이후 발매된 곡들이 상위권을 대거 차지하며 기존 노래방 애창곡들을 아래로 밀어내는 모습이 눈에 띈다. 하지만 12월 순위에 새롭게 진입한 곡은 9, 10위에 오른 '되돌리다'와 '다리꼬지마' 두 곡에 불과해, 마음을 사로잡는 대형히트곡은 없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노래연습장 TOP 15 (12월)

순위	변동	곡명	앨범명	아티스트	발매일
1	-	먼지가 되어	슈퍼스타K 4 TOP12 Part 1	로이킴, 정준영	2012.10.15.
2	△1	응급실	쾌걸춘향 OST	이지(izi)	2005.01.20.
3	△3	보여줄게	Invitation	에일리	2012.10.16.
4	△5	1,2,3,4	1,2,3,4	이하이	2012.10.29.
5	▽3	말리꽃	Confession	이승철	2001.03.23.
6	△1	Officially Missing You	re:code Episode I	긱스, 소유	2012.11.01.
7	▽3	All For You	응답하라 1997 Love Story Part.1	정은지, 서인국	2012.08.28.
8	▽3	강남스타일	싸이6甲 Part.1	싸이	2012.07.15.
9	New	되돌리다	숲	이승기	2012.11.22.
10	New	다리꼬지마	SBS K팝 스타 시즌2 - 다리꼬지마	악동뮤지션	2012.11.25.
11	△90	휘파람	슈퍼스타K 4 TOP12 Part 2	로이킴	2012.10.22.
12	△19	보고싶다	3집 보고 싶다	김범수	2002.12.17.
13	-	너를 위해	Story Of Two Years	임재범	2000.05.16.
14	△11	사랑아	내 남자의 여자 OST	더 원	2007.05.10.
15	-	애인... 있어요	Ma Non Tanto	이은미	2005.10.24.

* 출처 : 가온차트 (www.gaonchart.co.kr)

12월 음악 관련 프로그램 시청률은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사간의 희비가 엇갈렸다. 연말을 맞아 각종 특집방송을 편성한 지상파 프로그램은 대부분의 시청률이 상승했으나, 케이블 방송은 시청률이 오히려 하락했다. 프로그램별로 살펴보면 SBS의 'K팝 스타 시즌2'가 13.4%의 시청률로 전월에 이어 1위를 차지했다. 음원시장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악동뮤지션을 비롯해 다양한 화제를 양산하고 있으며, 기획사의 트레이닝을 받는 본격적인 경연이 시작되어 당분간 인기가 지속될 전망이다. KBS의 '불후의 명곡'도 10%에 가까운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고, 12월 가왕전을 펼친 '나는 가수다 시즌2'도 0.5%p 상승한 5.65%의 시청률로 프로그램을 매듭지었다.

음악 관련 프로그램 시청률 (12월)

분류	프로그램명	방송사	최초방영일 방영시간	시청률(%) 가구	남자	여자	13-18	19+	60+
댄스 + 아이돌 중심	SBS 인기가요	SBS	1991. 12. 15. 일/ 오후 3:40	3.47	1.06	2.10	2.18	1.48	1.13
	뮤직뱅크	KBS	2001. 02. 15. 금/ 오후 6:10	4.63	1.37	2.56	3.14	1.76	1.19
	쇼! 음악중심	MBC	2005. 10. 29. 토/ 오후 4:00	3.80	1.14	2.11	2.28	1.54	1.20
	M! COUNTDOWN	Mnet	2004. 07. 29. 목/ 오후 6:00	0.23	0.04	0.12	0.20	0.07	0.06
	더 쇼 : 올뉴 케이팝	SBS MTV	2012. 03. 23. 금/ 오후 8:00	0.03	0.01	0.01	0.01	0.01	0.02
경연 + 버라이어티	불후의 명곡	KBS	2012. 04. 07. 토/ 오후 6:15	9.88	3.49	4.84	1.97	4.61	7.01
	나는 가수다 시즌2	MBC	2012. 04. 29. 일/ 오후 6:20	5.65	2.24	2.68	1.20	2.80	3.10
	K팝 스타 시즌2	SBS	2012. 11. 18. 일/ 오후 4:55	13.40	5.62	7.85	7.73	6.52	4.36
	내 생애 마지막 오디션	KBS	2012. 09. 28. 금/ 오후 8:50	4.64	1.66	2.31	1.00	2.15	1.90
	위대한 탄생 3	MBC	2012. 10. 09 금/ 오후 9:55	8.93	3.20	5.33	3.18	4.54	3.02
초대손님 + 토크쇼	유희열의 스케치북	KBS	2009. 04. 24. 금/ 밤 12:15	2.97	0.88	1.65	0.80	1.45	1.01
	아름다운 콘서트	MBC	2010. 11. 06. 일/ 밤 12:50	0.98	0.26	0.41	0.03	0.41	0.47
	윤도현의 MUST	Mnet	2011. 07. 05. 토/ 밤 12:00	0.07	0.04	0.03	0.01	0.04	0.02
	MTV The Stage Big Pleasure	SBS MTV	2010. 10. 01. 수/ 오후10:30	0.01	0.01	0.01	0.00	0.01	0.01
	리모콘	MBC MUSIC	2012. 05. 23. 수/ 밤 12:00	0.01	0.00	0.01	0.00	0.01	0.01
	스페이스 공감	EBS	2005. 01. 23. 수, 목/ 밤 12:35	0.23	0.07	0.11	0.02	0.10	0.12
	쇼! 챔피언	MBC MUSIC	2012. 02. 14. 화/ 오후 6:00	0.06	0.01	0.03	0.04	0.02	0.02
	이한철의 올댓뮤직	KBS	2010. 12. 20. 월/ 밤 12:40	0.02	0.01	0.01	0.00	0.02	0.04
	뮤직 트라이앵글	Mnet	2012. 09. 19. 수/ 오후 6:00	0.08	0.01	0.04	0.03	0.03	0.01
가곡 + 복고	가요무대	KBS	1985. 11. 04. 월/ 오후 10:00	9.01	2.69	3.20	0.32	3.58	10.87
	콘서트7080	KBS	2004. 11. 06. 일/ 오후 11:10	3.65	1.24	1.58	0.51	1.64	2.12

* 출처: AGB닐슨 미디어리서치(본방 기준)

유튜브 K-POP 조회수 순위(12월 신규등록)에서는 소녀시대가 1위부터 3위까지를 휩쓸었다. 2013년 1월 1일에 정식 발매된 정규 4집 앨범의 타이틀곡 'I Got A Boy'의 티져가 각각 1위와 3위를 차지했고, 영국가수 더피의 Mercy를 재해석한 'Dancing Queen'이 2위에 올랐다. 한편 국내외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I Got A Boy'의 뮤직비디오는 공개 7일 만에 2,000만, 16일 만에 3,000만 조회수를 돌파하며 K팝 뮤직비디오 최단시간 기록을 세우고 있다. 새해 첫날 11억건을 돌파하며 유튜브 최다 조회수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강남스타일'의 뒤를 이을 수 있을지 기대된다.

K-POP 유튜브 조회수 TOP 15 (12월)

순위	곡명	아티스트	종류	업로더	등록일자	조회수
1	I GOT A BOY Dance Teaser	소녀시대	뮤직비디오 티져	SMTOWN	12. 28.	7,143,800
2	Dancing Queen	소녀시대	뮤직비디오	SMTOWN	12. 21.	4,280,910
3	I GOT A BOY Drama Teaser	소녀시대	뮤직비디오 티져	SMTOWN	12. 26.	3,302,210
4	강남스타일 (The B96 Jingle Bash 2012 in Chicago)	싸이	무대 영상	officialpsy	12. 16.	2,361,806
5	TALK THAT	시크릿	뮤직비디오	TSENT2008	12. 03.	1,460,184
6	매력있어	악동뮤지션	무대 영상	KPOPSTAR	12. 10.	1,201,539
7	크레용 & 판타스틱 베이비	빅뱅	무대 영상	Mnet	12. 10.	665,065
8	크리스마스니까	성시경,박효신,이석훈 등	뮤직비디오	Jellyfishenter	12. 05.	452,567
9	Goodbye To Romance	SunnyHill	뮤직비디오	LOENENT	12. 13.	286,480
10	일 년째	지아	뮤직비디오	LOENENT	12. 09.	258,940
11	백야	넬	뮤직비디오	woolliment	12. 02.	237,514
12	눈물같은사람	최강창민	뮤직비디오	BubbleFeetGravityOST	12. 17.	153,472
13	키다리 아저씨	백아연	뮤직비디오	BubbleFeetGravityOST	12. 14.	140,553
14	My Grown Up Christmas List	에일리	뮤직비디오	LOENENT	12. 17.	103,483
15	반창꼬	노을	뮤직비디오	LOENENT	12. 10.	98,128

* 출처 : Youtube(www.youtube.com), 12월 31일 기준(11월 30일 ~ 12월 31일 등록 동영상)

K-POP 유튜브 누적 조회수 TOP 15 (12월 31일 기준)

순위	변동	곡명	아티스트	종류	업로더	등록일자	조회수	변동(11.30대비)
1	-	GANGNAMSTYLE	PSY	뮤직비디오	officialpsy	2012.07.15.	1,087,009,427	234,795,326
2	-	오빤 딱 내 스타일	PSY(ft.HYUNA)	뮤직비디오	officialpsy	2012.08.14.	219,852,227	48,990,294
3	-	Gangnamstyle	PSY	무대 영상	CapsuleHD20	2012.07.16.	172,684,147	16,628,637
4	-	Gee	소녀시대	뮤직비디오	sment	2009.06.08.	94,577,455	2,123,296
5	-	THE BOYS	소녀시대	뮤직비디오	SMTOWN	2011.10.18.	65,036,857	2,061,595
6	△1	I AM THE BEST	2NE1	뮤직비디오	2NE1	2011.06.27.	61,163,661	2,108,266
7	▽1	Oh!	소녀시대	뮤직비디오	sment	2010.01.26.	60,379,701	1,205,643
8	-	Nobody	Wonder Girls	무대 영상	Mnet	2008.11.18.	59,103,928	222,958
9	△2	GANGNAM STYLE @ Summer Stand Live Concert	PSY	무대 영상	officialpsy	2012.08.29.	58,027,539	12,207,542
10	-	FANTASTICBABY	BIGBANG	뮤직비디오	BIGBANG	2012.03.06.	57,310,020	4,327,671
11	▽2	Mr.Simple	슈퍼주니어	뮤직비디오	SMTOWN	2011.08.03.	57,273,184	1,252,533
12	△2	Bubble Pop	HYUNA	뮤직비디오	4minuteofficial	2011.07.04.	45,179,745	2,643,782
13	▽1	BONAMANA(미인아)	슈퍼주니어	뮤직비디오	sment	2010.05.11.	45,131,057	717,193
14	▽1	Run Devil Run	소녀시대	뮤직비디오	sment	2010.03.16.	44,841,178	840,467
15	-	SORRY,SORRY	슈퍼주니어	뮤직비디오	sment	2009.06.07.	42,254,231	554,369

* 출처 : Youtube(www.youtube.com), 12월 31일 기준

12월에는 177장의 앨범에서 총 926곡이 방송심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월대비 앨범 113장과 노래 467곡이 감소한 수치로, 종합차트와 앨범판매 차트에서와 마찬가지로 음반시장의 침체를 엿볼 수 있다. 1월부터 12월까지 2012년도에 방송심의를 받은 앨범과 노래의 총 합계는 각각 2,515장, 9,916곡으로 집계되었다.

한국 대중들의 사랑을 받는 '발라드' 장르는 계절적 요인에 힐링을 원하는 소비자의 심리가 더해지며 12월에도 35장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대부분의 장르에서 심의 신청 건수가 감소한 가운데 '트롯(트로트)'과 '힙합'이 각각 27장, 22장을 심의 받았고 기타 장르는 20장 미만의 앨범을 심의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발매형태별 구분을 살펴보면 12월 발매된 177장의 앨범 중 '디지털 싱글'이 110장, '일반(CD)'가 66장을 차지하고 있다. '일반(CD)'는 지난달의 증가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11월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연도별 합계로는 '디지털 싱글'이 62%가 넘는 1,563장을 발매해 음원 발매의 대표적인 형태로 자리매김했음을 알 수 있다.

음반 방송심의 통계

1. 월별 방송심의 건수 (2012. 1. ~ 2012. 12.)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앨범	157	196	194	195	245	180	233	200	220	228	290	177	2,515
곡	548	607	657	673	890	659	740	696	861	1,266	1,393	926	9,9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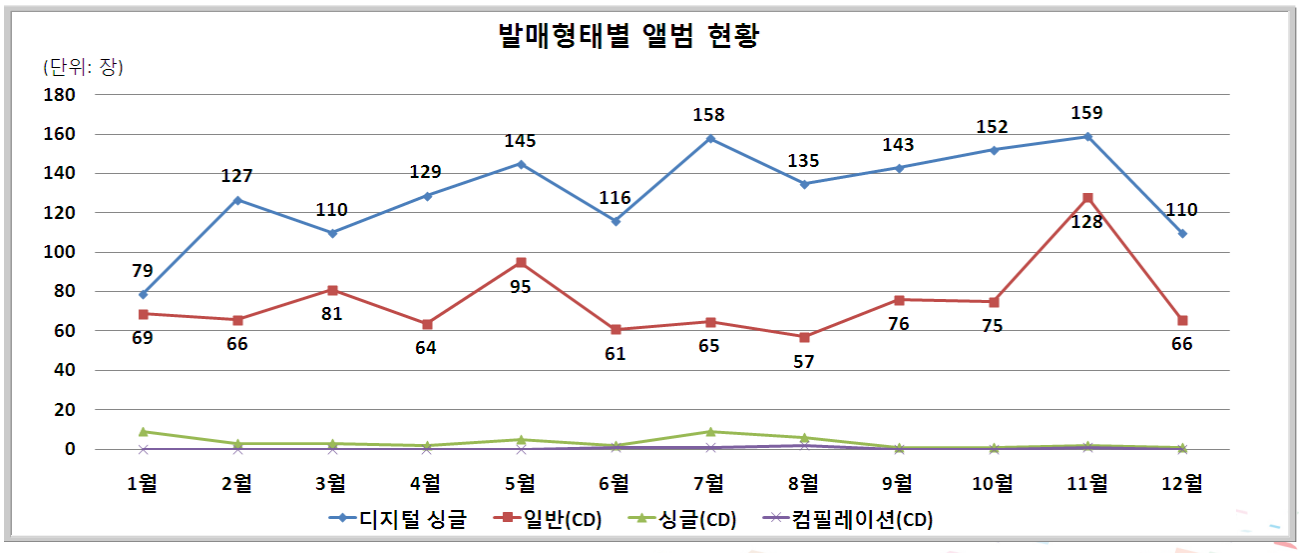
2. 장르별 방송심의 앨범 현황 (2012. 12.)

장르	댄스	발라드	트롯	힙합	락	락발라드	모던락	일렉트로닉	재즈	포크	펑크	하우스	레게	크로스오버	팝페라	알앤비	소울	OST	클래식, 기타	미분류	일반가요	합계
앨범	17	35	27	22	14	3	6	10	4	9	-	-	1	1	-	7	-	2	-	5	14	177
비율 (%)	10	20	15	12	8	2	3	6	2	5	-	-	1	1	-	4	-	1	-	3	8	100

3. 발매형태별 앨범 현황 (2012. 1. ~ 2012. 12.)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디지털 싱글	79	127	110	129	145	116	158	135	143	152	159	110	1,563
일반 (CD)	69	66	81	64	95	61	65	57	76	75	128	66	903
싱글 (CD)	9	3	3	2	5	2	9	6	1	1	2	1	44
컴필레이션 (CD)	-	-	-	-	-	1	1	2	-	-	1	-	5
합계	157	196	194	195	245	180	233	200	220	228	290	177	2,515

* 출처 : 한국음원제작자협회 (www.kapp.or.kr)



04 공연

12월 공연시장 종합 순위에서는 '오페라의 유령'이 1위에 오르며 10월, 11월에 이어 3개월째 1위를 수성했다. '오페라의 유령'은 개막 전부터 2개월 분량의 표가 매진되며 큰 인기를 모았으며, 연말에 오픈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파크가 집계한 2012년 뮤지컬 결산에서 3위를 차지했다. 1월 10일 3차 티켓 오픈을 앞두고 3월 24일로 종연일이 확정된 이 작품의 인기는 90% 이상의 좌석점유율을 바탕으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오는 1월 26일에는 2001년 국내 초연 이래 총관객 1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겨울방학 시즌을 맞아 돌아온 EBS 어린이 뮤지컬 '번개맨의 비밀'은 2위에 올랐다. EBS 어린이 프로그램 〈모여라 딩동댕〉의 인기 캐릭터 '번개맨'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이 작품은 방학시즌 어린이 관객을 대상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주간 순위에서는 '오페라의 유령'을 따돌릴 만큼 가족 관람객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4월 말까지 디큐브 아트센터에서 펼쳐지는 뮤지컬 '아이다'는 11월에 이어 3위를 유지했다. 베르디의 오페라 '아이다'를 토대로 엘튼 존과 팀 라이스가 음악을 맡고 디즈니에서 제작하여 2000년 브로드웨이에서 초연된 이 작품은 쏘냐, 차지연 등 실력있는 배우들의 호연을 바탕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겨울방학에 돌입하는 12월에는 '번개맨의 비밀'을 필두로 '파워레인저 캡틴포스', '로보카 폴리' 등 총 세 편의 어린이 뮤지컬이 순위에 올랐다. 이제는 방학 특수를 노린 창작 어린이 뮤지컬 공연이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 잡은 모습이다. 한편, 오는 4월 서울 공연을 앞둔 '레미제라블'은 동명의 뮤지컬 영화가 큰 인기를 얻으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사운드트랙과 DVD 판매도 덩달아 호조를 보이고 있다.

공연시장 종합 TOP 20 (12월)

순위	변동	공연명	공연장	점유율	장르	공연기간
1	-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 25주년 기념 내한공연	블루스퀘어 삼성전자홀	4.6%	뮤지컬	2012.12.07. ~ 2013.03.24.
2	△3	번개맨의 비밀	코엑스 오디토리움	4.1%	뮤지컬	2012.12.24. ~ 2013.01.23.
3	-	뮤지컬 <아이다>	디큐브 아트센터	4.0%	뮤지컬	2012.11.27. ~ 2013.02.28.
4	▽2	뮤지컬 <황태자 루돌프>	충무아트홀 대극장	4.0%	뮤지컬	2012.11.10. ~ 2013.01.27.
5	△4	액션 라이브쇼 <파워레인저 캡틴포스>	어린이대공원 내 돔 아트홀	3.3%	뮤지컬	2012.12.22. ~ 2013.01.27.
6	-	뮤지컬 <캐치 미 이프 유 캔>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2.6%	뮤지컬	2012.12.14. ~ 2013.02.09.
7	△6	뮤지컬 <레미제라블> - 대구	대구 계명아트센터	2.2%	뮤지컬	2012.12.07. ~ 2013.01.20.
8	▽1	옥탑방고양이 - 대학로	대학로 틴틴홀	2.0%	연극	2010.04.06. ~ 2013.01.31.
9	△2	연극 나쁜자석 - OUR BAD MAGNET	대학로 아트원씨어터 1관	1.8%	연극	2012.11.07. ~ 2013.01.27.
10	△16	뮤지컬 벽을 뚫는 남자	이화여자대학교 삼성홀	1.6%	뮤지컬	2012.11.27. ~ 2013.02.06.
11	△13	코믹극 뉴보잉보잉 - 대학로	대학로 두레홀 3관	1.6%	연극	2009.01.01. ~ 2013.01.31.
12	▽2	국민연극 라이어 1탄 - 해피씨어터 (대학로)	대학로 해피씨어터	1.5%	연극	2012.03.12. ~ 2013.01.20.
13	△9	뮤지컬 맘마미아! - 부산	센텀시티 소향아트센터	1.4%	뮤지컬	2012.12.21. ~ 2013.01.13.
14	-	뮤지컬 리걸리 블론드	코엑스아티움 현대아트홀	1.3%	뮤지컬	2012.11.17. ~ 2013.03.17.
15	▽11	뮤지컬 <맨 오브 라만차>	샤롯데씨어터	1.2%	뮤지컬	2012.06.19. ~ 2012.12.31.
16	▽1	유니버설 발레단 <호두까기 인형>	유니버설아트센터	1.1%	국악/무용	2012.12.21. ~ 2012.12.31.
17	New	뮤지컬 심야식당	동숭아트센터 동숭홀	1.0%	뮤지컬	2012.12.11. ~ 2013.02.17.
18	△15	초특급 애니 뮤지컬 <로보카 폴리>	서울교육문화회관 대극장	0.9%	뮤지컬	2012.12.16. ~ 2013.02.03.
19	△20	최현우 매직 콘서트 셜록홈즈 2 - 셜록홈즈의 귀환	인터파크 아트센터 아트홀	0.9%	뮤지컬	2012.12.08. ~ 2013.01.20.
20	▽2	뮤지컬 레베카 <REBECCA>	LG아트센터	0.9%	뮤지컬	2013.01.12. ~ 2013.03.31.

* 출처: 인터파크 티켓 (순위 집계: 12.1. ~ 12.31. 판매매수 기준), 콘서트는 제외

〈뮤지컬〉 분야에서는 '오페라의 유령'이 1위를 지킨 가운데 '아이다'와 '황태자 루돌프'가 2, 3위 자리를 바꾸었다. 올 한해는 창작 뮤지컬이 나름의 성과를 거두기는 했지만 티켓 매출과 점유율 면에서는 검증받은 대작 위주의 오리지널, 라이선스 뮤지컬이 시장을 이끌었다. 이러한 흐름은 연말까지 지속되어 12월 뮤지컬 상위 10개 작품 중 9편이 오리지널, 라이선스 뮤지컬이었다. 유일하게 창작 뮤지컬로 10위에 오른 '심야식당'도 동명의 일본 베스트셀러 만화를 원작으로 제작한 작품으로, 어린이 뮤지컬과 달리 성인 시장에서는 국내 창작물이 고전했다.

〈연극〉에서는 장기 공연작인 '옥탑방고양이(대학로)'가 1위를 유지했고, '나쁜 자석'과 '국민연극 라이어 1탄 - 대학로'는 순위를 바꾸며 2, 3위를 기록했다. 또한 '옥탑방고양이'의 강남 공연이 5위에, '라이어'는 무려 3편이 4, 6, 7위에 올랐는데, 이들 작품은 온오프라인을 망라하는 다양한 마케팅과 할인 혜택을 통해 관객을 끌어들이고 있다.

공연시장 분야별 TOP 10 (12월)

1. 뮤지컬

순위	변동	공연명	공연장	구분	점유율	공연기간
1	-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 25주년 기념 내한공연	블루스퀘어 삼성전자홀	오리지널	7.5%	2012.12.07. ~ 2013.02.28.
2	△1	뮤지컬 <아이다>	디큐브 아트센터	라이선스	6.4%	2012.11.27. ~ 2013.02.28.
3	▽1	뮤지컬 <황태자 루돌프>	충무아트홀 대극장	라이선스	6.4%	2012.11.09. ~ 2013.01.27.
4	△1	뮤지컬 <캐치 미 이프 유 캔>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라이선스	4.2%	2012.12.14. ~ 2013.02.09.
5	△3	뮤지컬 <레미제라블> - 대구	대구 계명아트센터	라이선스	3.6%	2012.12.07. ~ 2013.01.20.
6	△10	뮤지컬 <벽을 뚫는 남자>	이화여자대학교 삼성홀	라이선스	2.6%	2012.11.27. ~ 2013.02.06.
7	△6	뮤지컬 <맘마미아!> - 부산	센텀시티 소향아트센터	라이선스	2.2%	2012.12.21. ~ 2013.01.13.
8	△1	뮤지컬 <리걸리 블론드>	코엑스아티움 현대아트홀	라이선스	2.2%	2012.11.17. ~ 2013.03.17.
9	▽5	뮤지컬 <맨 오브 라만차>	샤롯데씨어터	라이선스	2.0%	2012.06.19. ~ 2012.12.31.
10	New	뮤지컬 <심야식당>	동숭아트센터 동숭홀	창작	1.6%	2012.12.11. ~ 2013.02.17.

* 출처: 인터파크 티켓(순위 집계: 12.1. ~ 12.31. 판매매수 기준)

2. 연극

순위	변동	공연명	공연장	점유율	공연기간
1	-	옥탑방고양이 - 대학로	대학로 틴틴홀	6.9%	2010.04.06. ~ 2013.01.31.
2	△1	연극 나쁜자석 - OUR BAD MAGNET	대학로 아트원씨어터 1관	6.2%	2012.11.07. ~ 2013.01.27.
3	▽1	코믹극 뉴보잉보잉 - 대학로	대학로 두레홀 3관	5.4%	2009.01.01. ~ 2013.01.31.
4	△2	국민연극 라이어1탄 - 대학로	해피씨어터	5.3%	2012.03.12. ~ 2013.01.20.
5	△2	연애지침서 연극 옥탑방고양이 - 강남	강남 동양아트홀	2.9%	2012.03.02. ~ 2013.02.03.
6	New	국민연극 라이어 1탄 - 강남 코엑스	코엑스아트홀	2.8%	2012.11.08. ~ 2013.02.03.
7	-	국민연극 라이어 1탄 - 아티스탄홀 (대학로)	대학로 아티스탄홀	2.8%	2012.11.20. ~ 2012.12.31.
8	▽4	장진의 〈서툰사람들〉	대학로 아트원씨어터 1관	2.6%	2012.06.05. ~ 2012.12.31.
9	New	그와 그녀의 목요일 앵콜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2.4%	2013.01.01. ~ 2013.02.11.
10	△3	연극 키사라기 미키짱	컬처스페이스 엔유	2.0%	2012.11.29. ~ 2013.02.24.

* 출처: 인터파크 티켓(순위 집계: 12.1. ~ 12.31. 판매매수 기준)

〈콘서트〉 티켓 판매 순위에서는 코엑스에서 펼쳐진 'XIA Ballad & Musical Concert with Orchestra'가 1위에 올랐다. 티켓 오픈 직후 전석을 매진시키며 〈제8회 골든티켓 어워즈〉 국내콘서트 뮤지션 부문을 수상한 김준수는 2012 뮤지컬 결산 2위에 오른 '엘리자벳'으로 뮤지컬 남자배우 부문까지 2관왕을 차지하며 공연시장에서의 흥행력을 입증했다. 2위와 3위는 컬투의 '크리스말쇼', 김범수 박정현 콘서트 '그해, 겨울'이 각각 차지했다. 4위를 차지한 김동률 콘서트 '감사'를 제외하면 모두 연말을 노린 콘서트여서 1월 콘서트 차트의 변동이 심할 것으로 보인다.

〈클래식/오페라〉에서는 지난달 3위였던 '디즈니 온 클래식'이 1위로 올라섰다. 이 공연은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유명한 곡들을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더불어 해외 유명 뮤지컬 배우들이 노래하는 구성으로 꾸며졌다. 2002년 일본에서 기획되어 매년 새로운 주제로 공연되었으며 한국에서는 2008년 이후 4년만의 내한공연이었는데, 연말을 맞아 자녀들과 함께 공연을 즐기는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많았다. 매년 크리스마스 저녁에 정기적으로 공연이 이뤄지고 있는 '유키 구라모토와 친구들'은 2위로 한 단계 하락했으며, 정명훈이 이끄는 서울시향의 '특별음악회 : 베토벤'은 3위를 차지했다.

3. 콘서트

순위	변동	공연명	공연장	점유율	공연기간
1	New	2012 XIA Ballad&Musical Concert with Orchestra	코엑스 Hall D	9.1%	2012.12.29. ~ 2012.12.31.
2	▽1	2012 컬투 크리스말쇼	코엑스 Hall C	8.3%	2012.12.30. ~ 2012.12.31.
3	△1	2012 김범수 박정현 콘서트 〈그해, 겨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4.7%	2012.12.23. ~ 2012.12.25.
4	New	앵콜 2012 김동률 콘서트 '감사'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3.7%	2013.01.17. ~ 2013.01.19.
5	-	성시경 연말 콘서트 〈2012 마지막 하루〉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3.0%	2012.12.30. ~ 2012.12.31.
6	▽4	2012 이승철 크리스마스 콘서트 [Rock'n Roll Tree] - 서울	코엑스 Hall D	3.0%	2012.12.21. ~ 2012.12.24.
7	△11	2012 김연우 콘서트〈크리스마스 선물〉	올림픽공원 올림픽홀	1.7%	2012.12.22. ~ 2012.12.25.
8	-	김장훈 원맨쇼 ' 아듀 '	잠실실내체육관	1.7%	2012.12.20. ~ 2012.12.25.
9	▽5	2012 김범수 박정현 콘서트 <그해, 겨울> - 부산	부산 벡스코	1.7%	2012.12.31.
10	▽7	박효신 2012 라이브 콘서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1.7%	2012.12.28. ~ 2012.12.29.

* 출처: 인터파크 티켓(순위 집계: 12.1. ~ 12.31. 판매매수 기준)

4. 클래식/오페라

순위	변동	공연명	공연장	점유율	공연기간
1	△2	디즈니 온 클래식	올림픽공원 內 올림픽홀	4.9%	2012.12.28. ~ 2012.12.29.
2	▽1	유키 구라모토와 친구들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3.9%	2012.12.25.
3	New	서울시향 특별음악회 : 베토벤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2.4%	2013.01.17.
4	New	스위트 크리스마스 콘서트 '크리스마스 액츄얼리'	성남아트센터 앙상블시어터	2.1%	2012.12.23. ~ 2012.12.25.
5	New	KBS교향악단 크리스마스 콘서트	KBS홀	1.8%	2012.12.23.
6	New	2012 오페라 갈라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1.7%	2012.12.29. ~ 2012.12.30.
7	New	2012 소프라노 조수미 내한공연 La Luce - 대구	천마아트센터 그랜드홀	1.6%	2012.12.28.
8	▽3	로맨틱콘서트 〈어떤 하루〉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1.5%	2012.12.08.
9	△11	서울시향의 그레이트 시리즈 I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1.5%	2013.01.25.
10	New	대구오페라하우스 2012 제야음악회	대구오페라하우스	1.4%	2012.12.31.

* 출처: 인터파크 티켓(순위 집계: 12.1. ~ 12.31. 판매매수 기준)

12월 〈국악/무용 분야〉 순위에서는 연말의 주요 레퍼토리인 발레 '호두까기 인형'이 1위부터 6위까지 차트를 휩쓸었다. 유니버설 발레단의 서울, 군포 공연이 1위와 4위에 올랐고, 예술의 전당에서 펼쳐진 국립발레단의 서울 공연이 2위에 올랐으며, 대전 · 대구 · 여수에서 펼쳐진 지방 공연이 3, 5, 6위를 차지했다. '호두까기 인형'의 공연이 종료되는 2013년 1월 차트에서는 새로운 작품들이 대거 순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서울이나 수도권에 집중된 다른 공연들과 달리 국악/무용 분야는 지방에서도 다양한 공연이 활발히 펼쳐지며 관객들을 찾아가고 있다. 7위에 오른 정동극장의 공연 레퍼토리 '미소2'는 경주에서 상설공연을 펼치고 있다. 서울 정동극장에서 전용극장 체제로 펼쳐지는 '미소' 공연이 호응을 얻음에 따라, 경주에서 신라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미소2 - 신국의 땅, 신라'가 기획되어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나름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국악/무용

순위	변동	공연명	공연장	점유율	공연기간
1	-	유니버설 발레단 <호두까기 인형>	유니버설아트센터	40.4%	2012.12.21. ~ 2012.12.31.
2	-	국립발레단 2012 송년발레 <호두까기 인형>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8.6%	2012.12.18. ~ 2012.12.25.
3	-	국립발레단 <호두까기 인형> - 대전	대전 문화예술의전당 아트홀	4.6%	2012.12.07. ~ 2012.12.09.
4	△1	유니버설 발레단 <호두까기 인형> - 군포	군포시 문화예술회관 수리홀	3.4%	2012.12.14. ~ 2012.12.15.
5	△9	국립발레단 <호두까기 인형> - 대구	대구 오페라하우스	2.9%	2012.12.15.
6	△10	2012 국립발레단 <호두까기 인형>	여수 GS칼텍스 예울마루 대극장	2.4%	2012.12.29. ~ 2012.12.30.
7	New	미소2 - 신국의 땅, 신라	경주 예술의전당 대공연장	2.4%	2012.12.19.
8	▽1	국립발레단 <백조의 호수>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2.4%	2012.12.07. ~ 2012.12.12.
9	New	2013 Winter Festival DHA	대전 문화예술의전당 아트홀	2.0%	2013.01.16.
10	△8	2012 제야음악회 - 군포	군포시 문화예술회관 수리홀	2.0%	2012.12.31.

* 출처: 인터파크 티켓 (순위 집계: 12.1. ~ 12.31. 판매매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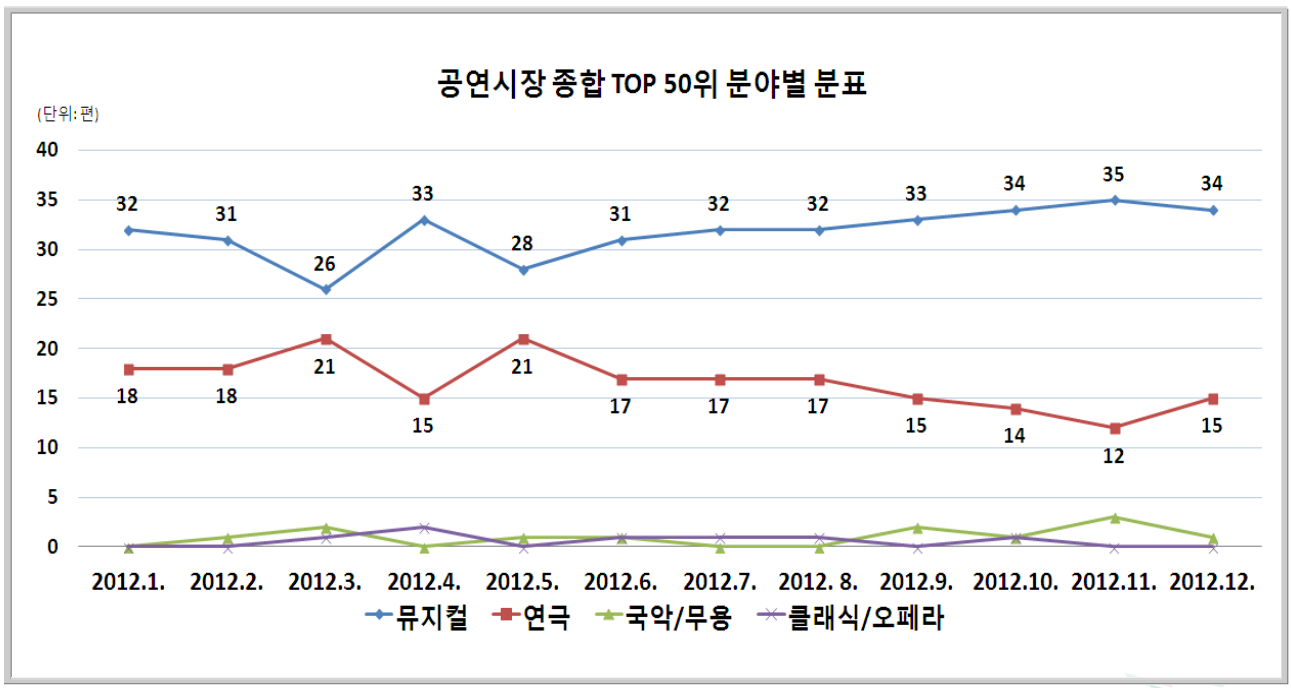
12월 공연시장 종합 50위(콘서트 제외)를 분석해보면, 34편을 차트에 올린 〈뮤지컬〉의 강세가 압도적이다. 2012년 뮤지컬 산업은 2011년 대비 25% 매출이 상승한 2,500억원의 시장으로 급속히 성장했다. 여기에는 장기 공연이 가능한 뮤지컬 전용극장의 개장과 한류 아이돌 스타들의 뮤지컬 진출로 외국인 관객이 증가한 점, 그리고 수준 높은 오리지널 작품의 내한과 기존 인기 뮤지컬의 재공연이 시장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내 초연된 '위키드' 오리지널 공연은 유료 좌석 점유율 95%, 관객 23만 5,000명이라는 기록을 세우며 역대 최고 흥행 뮤지컬로 기록됐다. 검증된 대형 오리지널 · 라이선스 뮤지컬의 강세 속에서 '모비딕', '번지점프를 하다', '광화문연가' 등과 같은 창작 뮤지컬이 가능성을 보여준 점도 성과로 꼽을 수 있다. 2013년에도 대형 라이선스 뮤지컬의 공연이 다수 예정되어 있고, 일본을 중심으로 창작뮤지컬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어 시장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연극〉은 지난달에 비해 3편 많아진 15편이 50위에 들었고, 연간 합계 200편으로 33%의 점유율을 나타냈다. 1년 내내 꾸준히 사랑받은 '옥탑방고양이', '뉴보잉보잉', '라이어 1탄' 등 로맨틱코미디나 희극 장르가 시장을 이끈 가운데 '과부들', '그게 아닌데' 등 탄탄한 작품성을 갖춘 연극도 관객과 평단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어냈다. 〈국악/무용〉과 〈클래식/오페라〉는 총 600편 중 각각 12편과 7편을 순위에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공연시장 종합 TOP 50위 분야별 분포 (2012. 1. ~ 2012. 12)

순위	분야	2012. 1.	2012. 2.	2012. 3.	2012. 4.	2012. 5.	2012. 6.	2012. 7.	2012. 8.	2012. 9.	2012. 10.	2012. 11.	2012. 12.	합계
1	뮤지컬	32	31	26	33	28	31	32	32	33	34	35	34	381
2	연극	18	18	21	15	21	17	17	17	15	14	12	15	200
3	국악/무용	0	1	2	0	1	1	0	0	2	1	3	1	12
4	클래식/오페라	0	0	1	2	0	1	1	1	0	1	0	0	7

* 콘서트는 인터파크 공연 랭킹에 포함되지 않아 분야별 분포에서 제외
* 출처: 인터파크 티켓, 한국콘텐츠진흥원 재구성



05 게임

온라인게임 순위에서는 '리그 오브 레전드'가 12월에도 1위를 지키며 화려하게 한해를 마무리했다. '리그 오브 레전드'는 200만 이용시간을 돌파하며, 2위에 오른 '블레이드 앤 소울'과 3배 이상으로 격차를 벌렸다. '리그 오브 레전드'는 지난 2011년 12월 서비스 시작 이후 약 7개월간 정상에 올랐고, '블레이드 앤 소울', '디아블로 3'와의 경쟁 속에서도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단순한 인터페이스와 조작으로 접근성이 용이하고, 100개가 넘는 챔피언을 이용한 풍부한 전략과 탄탄한 게임성이 주효했다고 평가받는다. 또한 '스타크래프트 1'의 인기 저하와 함께 침체기에 빠져 있던 e스포츠 대회에서도 주류로 안착하며 제 2의 전성기를 이끌고 있어, 앞으로의 흥행 전망도 밝다.

'블레이드 앤 소울'은 8월부터 4개월간 2위를 지키고 있고, 방학을 맞아 접속자가 급속히 증가한 '서든어택'은 '피파온라인 2'를 밀어내고 3위에 올랐다. '피파온라인 2'는 올해 3월 31일로 예정된 서비스 종료와 차기작 '피파온라인 3'의 오픈이 맞물리며 점유율이 급속히 하락하는 모습이다. 반면 '피파온라인 2'의 기존유저와 신규유저 흡수에 성공한 '피파온라인 3'는 12월 18일에 서비스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9위로 순위에 진입했다. 1월에는 전작과의 순위 역전 현상이 일어날 것이 확실시된다. 학생 유저가 많은 '서든어택', '던전 앤 파이터', '메이플 스토리'의 점유율이 모두 상승한 가운데 11월 오픈 베타를 시작한 MMORPG '카발2'도 0.43%p의 점유율 증가를 보이며 18위에 올랐다.

11월 TOP 20위 게임의 이용시간 합계는 6,126,329시간으로 전월에 비해 591,546시간(11%) 증가했다. 겨울방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데다가 대선, 크리스마스 등 휴일이 많았고, 겨울맞이 대규모 업데이트와 '피파온라인 3'등 대형 신작 게임의 오픈으로 인해 사용시간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게임 종합 TOP 20 (12월)

순위	변동	게임명	장르	이용시간 (시간)	시간점유율		평균체류 시간(분)	개발사	유통사
					점유율	증감률			
1	-	리그 오브 레전드	RTS	2,021,766	27.85%	1.78%p	122	라이엇 게임즈	라이엇 게임즈
2	-	블레이드 & 소울	RPG	629,598	8.67%	-2.57%p	156	엔씨소프트	엔씨소프트
3	△1	서든어택	FPS	561,481	7.73%	0.90%p	84	게임하이	CJ E&M/넥슨
4	△2	아이온	RPG	395,638	5.45%	-0.09%p	176	엔씨소프트	엔씨소프트
5	▼2	피파온라인 2	스포츠	346,143	4.77%	-3.03%p	49	EA/네오위즈게임즈	네오위즈게임즈
6	▼1	디아블로 3	RPG	279,005	3.84%	-2.08%p	134	블리자드	블리자드
7	-	스타크래프트	RTS	253,236	3.49%	0.05%p	73	블리자드	블리자드
8	-	리니지	RPG	251,162	3.46%	0.31%p	115	엔씨소프트	엔씨소프트
9	NEW	피파온라인 3	스포츠	206,164	2.84%	2.84%p	67	EA	넥슨
10	△2	던전앤파이터	RPG	182,274	2.51%	1.04%p	77	네오플	넥슨
11	▼2	워크래프트 3	RTS	170,996	2.36%	-0.19%p	77	블리자드	블리자드
12	△3	메이플 스토리	RPG	144,534	1.99%	0.97%p	68	넥슨	넥슨
13	▼2	모두의 마블	보드	108,460	1.49%	-0.06%p	67	엔투플레이	CJ E&M
14	▼1	사이퍼즈	RPG	106,889	1.47%	0.01%p	116	네오플	넥슨
15	▼1	리니지 2	RPG	105,003	1.45%	0.18%p	184	엔씨소프트	엔씨소프트
16	▼6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RPG	100,862	1.39%	-0.22%p	129	블리자드	블리자드
17	▼1	스페셜포스	FPS	75,558	1.04%	0.04%p	96	드래곤플라이	네오위즈게임즈
18	△8	카발 2	RPG	64,360	0.89%	0.43%p	135	이스트소프트	이스트소프트
19	▼1	카트라이더	레이싱	62,262	0.86%	0.11%p	44	넥슨	넥슨
20	▼3	한게임 로우바둑이	포커	60,938	0.84%	0.02%p	43	NHN	NH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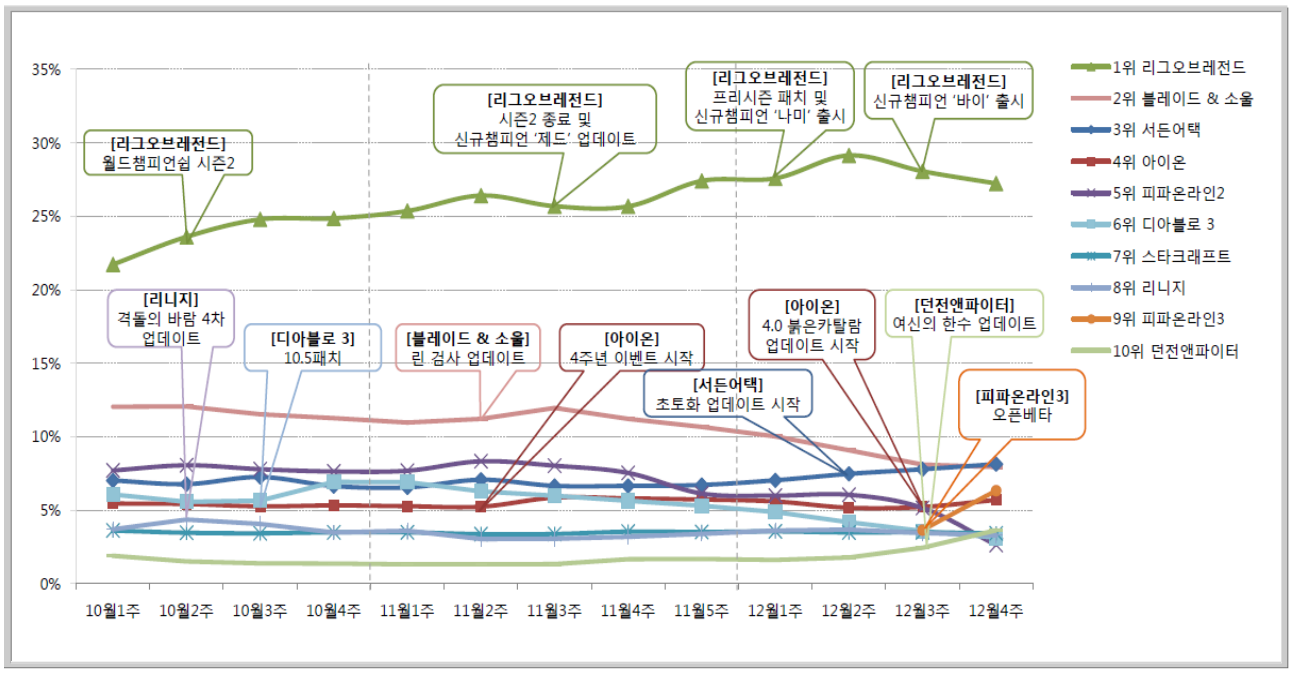
* 출처: 게임트릭스 (www.gametrics.com)

온라인게임 점유율의 추이를 살펴보면 '리그 오브 레전드'가 25~30% 선에서 주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프리시즌 패치 이후 점유율이 크게 증가했으나 이후 2주 연속 하락했는데, 아이템과 인터페이스 등 게임 내적인 요소가 대거 변경되면서 거치게 되는 적응기로 생각된다. '블레이드 & 소울'은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12월 마지막 주에는 '초토화 업데이트' 이후 점유율이 증가한 '서든어택'에게 따라잡히는 모습이다. 여귀검사를 업데이트한 '던전앤 파이터'도 전월대비 점유율을 1.04%p 끌어올리며 방학 성수기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한편, 12월 18일 오픈베타를 시작한 '피파온라인 3'는 서비스 개시와 함께 상위권으로 진입했고, 그와 동시에 '피파온라인2'의 점유율은 급격히 하락해 12월 4주째에는 점유율이 역전됐다.

올해 온라인게임 시장은 '리그 오브 레전드'와 '디아블로 3'의 열풍 속에서 국산 대작인 '블레이드 앤 소울'이 선전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500억 원의 제작비와 6년여의 제작 기간을 거쳐 6월 30일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블레이드 앤 소울'은 최고 동시접속자 20만 명을 상회하며 큰 인기를 끌었고, 〈제 17회 대한민국 게임대상〉에서 대상을 포함해 게임사운드 · 게임그래픽 · 게임캐릭터 등 4개 부문을 수상하며 국산 게임의 자존심을 지켰다. '리그 오브 레전드'의 폭발적인 인기 때문에 출시전 기대만큼의 점유율을 기록하지 못한 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다.

한편, 전작 이후 10여년 만에 출시된 '디아블로 3'는 한정판을 판매하는 전야 행사에 5,000명의 게이머가 몰렸으며, 출시 첫 날 전 세계 350만장 판매, 아시아 서버 최고 동시접속자 64만명(한국 동시 접속자 43만명), 39%라는 역대 최고 PC방 시간점유율을 기록하며 화제를 뿌렸다. 그러나 예상을 뛰어넘는 폭발적인 반응에 따른 서버 접속 문제가 몇 달 동안 지속되며 이용자들의 불만이 치솟았고, 계정 해킹 · 아이템 복사 · 콘텐츠 고갈 등의 문제로 유저가 대거 이탈하면서 12월에는 3%대로 점유율이 하락했다.

온라인게임 점유율 추이 (2012. 10. ~ 2012. 12.)



* 출처: 게임트릭스 (www.gametrics.com)

12월 온라인게임 장르별 현황을 살펴보면 시간점유율 34.7%(11월 대비 1.6%p 상승)를 기록한 〈RTS〉가 〈RPG〉를 0.16%p 차이로 따돌리고 장르별 현황 1위에 올랐다. 한때 국민 게임으로 불렸던 '스타크래프트'와 흥망성쇠를 함께 했던 〈RTS〉 장르는 2011년 말 '리그 오브 레전드'의 등장으로 다시 한 번 전성기를 맞이했다. 〈RPG〉는 '디아블로 3'와 '블레이드 앤 소울'의 영향으로 한때 50%를 넘었으나 이후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12월 현재 35% 아래로 내려갔다. 그러나 서비스 중인 게임이 180종에 가까운 〈RPG〉와 달리 〈RTS〉는 해당 장르 시간점유율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리그 오브 레전드'에 대한 의존도가 크고, '카발 2'를 시작으로 2013년 1월에 게이머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아키에이지'와 '열혈강호 2' 등 〈RPG〉 진영의 기대작이 오픈을 앞두고 있어 점유율 역전 현상이 지속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FPS〉는 전월 대비 점유율이 1.03%p 증가하며 0.55%p 감소한 〈스포츠〉를 밀어내고 3위를 탈환하는데 성공했다. '피파온라인 3'가 '피파온라인 2'의 하락분을 거의 그대로 흡수하며 선전했으나 겨울방학 특수를 누린 '서든어택'의 사용시간이 11월보다 12만 시간가량 증가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그밖에 〈포커〉, 〈아케이드〉, 〈레이싱〉 장르가 소폭 증가한 반면, 〈보드〉와 〈고스톱〉은 소폭 하락했다.

온라인게임 장르별 현황

1. 장르별 이용 현황 (12월)

장르명	사용시간 (시간)	시간점유율(%)		기간대비 등락현황(개)				PC방당 사용시간(분)	평균체류 시간(분)	평균이용 횟수(회)	일간평균 접속자수	일간최대 접속자수
		점유율	증감률	전체	상승	하락	보합					
RTS	2,518,746	34.70%	1.60%p	8	1	1	6	2,347	110	1,375,804	3,254,044	6,438,215
RPG	2,507,255	34.54%	-2.13%p	178	79	69	21	852	125	1,205,079	3,242,845	6,541,607
FPS	775,325	10.68%	1.03%p	26	4	10	10	711	83	563,338	1,001,795	2,290,587
스포츠	733,485	10.10%	-0.55%p	26	0	22	1	551	56	785,123	946,863	2,209,286
보드	199,265	2.74%	-0.11%p	28	5	3	20	205	66	180,374	257,598	476,677
포커	188,786	2.60%	0.03%p	26	1	10	10	151	32	353,276	243,564	417,298
아케이드	158,371	2.18%	0.04%p	36	10	10	13	173	57	165,605	204,696	538,761
고스톱	98,973	1.36%	-0.05%p	29	10	4	15	122	41	144,983	128,035	250,392
레이싱	79,459	1.09%	0.14%p	6	0	0	6	218	45	105,815	102,739	246,828

* 출처: 게임트릭스 (www.gametrics.com)

2. 장르별 점유율 추이 (2011. 1Q ~ 2012. 12)

장르명	2011. 1Q	2011. 2Q	2011. 3Q	2011. 4Q	2012. 1Q	2012. 2Q	2012. 3Q	2012. 7.	2012. 8.	2012. 9.	2012. 10.	2012. 11.	2012. 12.
RTS	13.09%	15.95%	16.60%	17.36%	22.49%	24.74%	26.56%	23.77%	26.85%	29.07%	31.02%	33.12%	34.70%
RPG	47.85%	43.40%	41.33%	40.14%	36.77%	44.20%	43.59%	47.43%	42.21%	41.12%	38.09%	36.63%	34.54%
FPS	15.56%	14.44%	16.46%	15.46%	16.87%	11.89%	10.89%	10.44%	11.73%	10.51%	10.48%	9.66%	10.68%
스포츠	9.37%	11.62%	11.87%	13.40%	10.83%	8.70%	8.89%	9.27%	9.01%	8.39%	10.01%	10.67%	10.10%
보드	1.81%	1.95%	1.81%	1.80%	1.82%	1.59%	2.10%	1.50%	1.87%	2.94%	3.09%	2.85%	2.74%
포커	4.04%	4.32%	3.75%	3.87%	3.80%	2.98%	2.50%	2.26%	2.51%	2.72%	2.51%	2.57%	2.60%
아케이드	3.73%	3.83%	3.97%	3.97%	3.56%	2.88%	2.64%	2.54%	2.79%	2.60%	2.41%	2.14%	2.18%
고스톱	2.52%	2.61%	2.29%	2.14%	2.02%	1.70%	1.52%	1.43%	1.58%	1.56%	1.41%	1.41%	1.36%
레이싱	2.03%	1.87%	1.93%	1.86%	1.84%	1.32%	1.30%	1.36%	1.44%	1.10%	0.99%	0.95%	1.09%

* 출처: 게임트릭스 (www.gametrics.com)

게임 제작사별 점유율 순위에서는 '라이엇 게임즈'가 11월에 이어 1위를 차지했다. 사용시간 200만 시간을 넘긴 '라이엇 게임즈'는 11월 대비 2.67%p 시간점유율이 증가하여 두 달 연속 2%p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다. 2위에 오른 '엔씨소프트'는 1위보다 63만 시간 적은 140만 시간을 기록하며 10%대로 떨어졌다. '블레이드 앤 소울'의 하락세와 함께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어 내수시장에 대한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학생 유저가 많은 게임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넥슨'은 겨울방학 특수를 누리며 시간점유율이 전월대비 3.18%p나 상승해 3위로 올라섰다. '피파온라인3'가 오픈한 터라 '넥슨'이 당분간 높은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012년은 게임제작사들에게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는 한해였다. 셧다운제를 포함한 정부 규제 정책과 외산게임의 폭발적인 인기에 의해 시장 상황이 악화되자 '넥슨'과 '엔씨소프트'는 지분인수라는 방법으로 한식구가 되었고, 다른 업체들은 자사 게임의 채널링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며 힘을 합치기 시작했다. 카카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 게임이 대세로 떠오른 점도 기존 게임회사들의 사업 방향에 큰 영향을 미쳤다. '엔씨소프트'를 비롯한 상위 5개 업체들이 모두 모바일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대형 제작사의 모바일 시장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온라인게임 시장에 대한 위기의식이 자리잡고 있다. RPG를 비롯해 스포츠, FPS 등 다양한 장르의 기대작들이 발매를 앞두고 있는 2013년에는 국산 온라인게임이 재도약할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게임 제작사별 점유율 (12월)

순위	게임사명 (사용시간 기준 정렬)	사용시간 (시간)	시간점유율		전월 대비 보유게임 등락현황 (개)			
			점유율	증감률	전체	상승	하락	보합
1	라이엇 게임즈	2,021,766	28.71%	2.67%p	1	0	0	1
2	엔씨소프트	1,390,505	19.74%	-1.62%p	9	5	2	2
3	넥슨	946,796	13.44%	3.18%p	26	13	12	1
4	블리자드	845,976	12.01%	-2.18%p	6	0	5	1
5	네오위즈게임즈	590,385	8.38%	-2.85%p	36	12	23	1
6	CJ E&M	546,188	7.76%	0.48%p	43	12	28	3
7	NHN	260,701	3.70%	0.09%p	28	7	21	0
8	JCE	85,723	1.22%	0.02%p	5	1	3	1
9	이스트소프트	68,830	0.98%	0.47%p	2	2	0	0
10	엠게임	27,419	0.39%	-0.02%p	31	7	22	2
11	예당온라인	26,573	0.38%	-0.01%p	4	2	1	1
12	웹젠	18,588	0.26%	0.06%p	3	1	2	0
13	라이브플렉스	17,862	0.25%	-0.10%p	7	0	7	0
14	윈디소프트	17,046	0.24%	-0.04%p	5	1	4	0
15	YNK코리아	10,346	0.15%	0.01%p	1	1	0	0
16	한빛소프트	8,767	0.12%	-0.01%p	9	3	6	0
17	게임하이	8,443	0.12%	0.01%p	2	2	0	0
18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7,787	0.11%	0.01%p	9	6	3	0
19	KTH	3,700	0.05%	-0.01%p	5	0	5	0
20	그라비티	3,188	0.05%	0.01%p	5	2	2	1
21	액토즈소프트	2,770	0.04%	0.01%p	5	4	1	0
22	엔플루토	950	0.01%	0%p	1	1	0	0

* 출처: 게임트릭스 (www.gametrics.com)

모바일 게임 순위에서는 〈구글플레이〉에선 여전히 '카카오톡 게임하기'의 강세가 이어졌으나 〈앱스토어〉에선 분위기가 다소 누그러진 분위기다. 이는 〈구글플레이〉에 관련 게임들이 선출시되는 게 가장 큰 이유다. 하지만 카카오톡 게임에 대한 잠재적 수요는 여전히 큰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구글플레이〉에서 한창 인기몰이 중인 '탭소닉 링스타 for 카카오'를 대표적인 예로 꼽을 수 있다. 〈앱스토어〉에는 아직 출시되지 않은 게임이라 '카카오톡 게임하기'가 탑재되지 않은 구버전이 반사효과로 인해 랭크에 오른 재미있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게임성이 높은 이유도 있겠지만 현재 스마트폰 게임시장에서 카카오톡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카카오톡과 연계하지 않은 해외 제작사들의 선전도 돋보였다. '게임로프트'는 화려한 그래픽으로 업그레이드된 FPS '모던 컴뱃 4'를 선보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한 〈티스토어〉 유료 1~3위는 모조리 게임로프트의 게임이 꿰차고 있으며, 히트작 '아스팔트7'은 무료 이벤트에 힘입어 무료 1위에도 랭크되었다. '남코'와 '캡콤'의 콜라보레이션 게임 '스트리트파이터 X 철권'도 할인 이벤트를 통해 〈앱스토어〉 1위에 등극했고, 'EA코리아'도 '피파13'을 비롯한 대표작들의 연말 이벤트를 펼쳐 좋은 결과를 얻었다. 〈티스토어〉 무료게임 '몬스터크라이'의 인기도 만만찮다. 작년 하반기부터 이러한 장르의 카드배틀 RPG 혹은 TCG 게임들이 스마트폰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했는데 여기에 화려한 이펙트와 손맛을 느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반면, 〈올레마켓〉과 〈U+ 스토어〉는 여전히 앱마켓다운 면모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랭킹에 큰 변화도 없고 주요 게임업체들의 진출도 더딘 편이다.

모바일 게임 TOP 5 (12월)

1. 구글플레이

순위	유료 APP.			무료 APP.	
1	아스팔트7 : 히트	자동차경주	₩1,000	탭소닉 링스타 for 카카오	아케이드 게임
2	Minecraft - Pocket Edition	아케이드 게임	₩6,420	모두의 게임 for 카카오	두뇌게임 및 퍼즐
3	모던 컴뱃 4: 제로 아워	아케이드 게임	₩5,000	버드팡 for 카카오	두뇌게임 및 퍼즐
4	팔라독	아케이드 게임	₩3,000	컴투스 홈런왕 for 카카오	아케이드 게임
5	스왐피 - Where's My Water?	두뇌게임 및 퍼즐	₩1,064	과일나라 앨리스 for 카카오	캐주얼 게임

* 집계방식: 구글플레이 순위 인용, 12월 18일 기준 (다음달부터는 앱스토리 서버 자체집계 순위로 변경)

2. 앱스토어

순위	유료 APP.			무료 APP.	
1	스트리트파이터 X 철권	액션	$0.99	드래곤플라이트 for 카카오	롤플레잉
2	앵그리버드 스타워즈	아케이드	$0.99	탭소닉 링스타	음악
3	피파13	시뮬레이션	$0.99	나는 야구감독이다	스포츠
4	Minecraft - Pocket Edition	어드벤쳐	$6.99	Smash Cops Heat - Hutch	액션
5	팔라독	롤플레잉	$1.99	아이러브커피 for 카카오	시뮬레이션

* 집계방식: 애플 앱스토어, 12월10일~12월16일 주간순위 (앱스토리 서버 자체집계-마감일 기준으로 평균 월 2주 혹은 3주)

* 출처: 앱스토리 (www.appstory.co.kr)

3. 티스토어

순위	유료 APP.			무료 APP.	
1	모던 컴뱃 4: 제로 아워	액션	₩5,000	아스팔트7 : 히트	스포츠
2	와일드 블러드	액션	₩5,000	몬스터크라이	RPG
3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액션	₩5,000	타이니워	RPG
4	아쿠아슬롯2	퍼즐/보드	₩5,000	크림슨하트NS	RPG
5	파이널판타지	RPG	₩,000	문명의 시작 : 더 팜 월드	시뮬레이션

* 집계방식: 티스토어 순위 인용, 12월 18일 기준

4. 올레마켓

순위	유료 APP.			무료 APP.	
1	팔라독	아케이드	₩3,000	제노니아5	RPG
2	파이널판타지	RPG	₩5,000	모두의 아일랜드	시뮬레이션
3	사이터스	아케이드	₩2,200	리버스SE	액션/슈팅
4	방탈출4	보드/퍼즐	₩4,000	몬스터크라이	RPG
5	틀린그림찾기 온라인 PLUS	보드/퍼즐	₩2,500	드래곤런	아케이드

* 집계방식: 올레 앱스토어 순위 인용, 12월 18일 기준

5. U+앱마켓

순위	유료 APP.			무료 APP.	
1	팔라독	아케이드	₩3,000	포트리스2 레드	아케이드
2	스타일리시 스프린트	대작/RPG	₩3,300	프리스타일2 Anywhere	스포츠
3	미니게임천국5	퍼즐	₩3,000	2012프로야구	스포츠
4	액션퍼즐패밀리4	퍼즐	₩3,000	제노니아4	대작/RPG
5	제노니아4 PLUS	대작/RPG	₩5,000	타이니팜	시뮬레이션

* 집계방식: U+앱마켓 순위 인용, 12월 18일 기준

* 출처: 앱스토리 (www.appstory.co.kr)

게임물 등급분류 결정 현황(게임물등급위원회)에 따르면, 12월에 등급 분류를 신청한 게임물은 총 239종으로 전월대비 69종 감소했다. 그 이유는 지난달 특정 외국계 업체들이 대거 등급분류를 신청하며 증가했던 수치가 9, 10월 수준으로 돌아간 것으로 파악된다. '비디오콘솔'이 43종이 줄어든 27종을 기록하며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고, 'PC · 온라인'도 34종이 감소한 99종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케이드'와 '모바일'은 각각 5건, 3건이 증가했다.

이용등급별로는 '전체이용가'가 119종으로 58.9%를 차지했고, 69종(34.2%)이 '청소년 이용불가'로 등급분류를 받았다. 1월 셧다운제 강화 법률 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법안 통과시 향후 '청소년 이용불가' 신청 게임의 비율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르별로는 '캐주얼' 장르가 78종으로 가장 높은 38.6%의 비중을 차지했고, '보드게임(베팅성)'과 '액션'이 뒤를 이었다. '보드게임'은 베팅성을 포함해 모바일 플랫폼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오픈마켓의 자율등급분류 제도에 따라 게임물등급위원회를 거치는 모바일게임은 대다수가 '청소년 이용불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게임물 등급분류 결정

1. 플랫폼별 등급분류 결정 현황 (12월)

구분	아케이드	PC · 온라인	비디오콘솔	*모바일(오픈마켓)	합계	비율
전체이용가	19	70	17	13(11)	119	58.9%
12세이용가	-	5	1	3(2)	9	4.5%
15세이용가	-	4	0	1(1)	5	2.5%
청소년이용불가	7[7]	18	9	35(32)	69	34.2%
등급분류 소계	26[7]	97	27	52(46)	202	84.5%
등급분류 거부	35[12]	2	-	-	37	15.5%
합계	61[19]	99	27	52(46)	239	100.0%

* 대부분의 모바일게임은 오픈마켓 대상 게임물로 분류되어 자율등급분류제도의 적용을 받음. 이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에 해당하는 게임들만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받기 때문에, 해당 수치는 모바일게임의 전체 동록 현황을 대변하는 것이 아님

2. 장르별 등급분류 결정 현황 (12월)

구분	아케이드	PC · 온라인	비디오콘솔	모바일(오픈마켓)	합계	비율
캐주얼	8	63	1	6(6)	78	38.6%
보드게임(베팅성)	7[7]	8	-	17(14)	32	15.8%
액션	2	5	10	7(6)	24	11.9%
보드게임	1	1	-	10(9)	12	5.9%
MMORPG	-	7	-	-	7	3.5%
기타	3	1	3	-	7	3.5%
스포츠	3	3	1	-	7	3.5%
시뮬레이션	1	3	-	3(3)	7	3.5%
퍼즐	-	1	3	3(3)	7	3.5%
롤플레잉	-	1	2	2(2)	5	2.5%
전략시뮬레이션	-	3	1	1(1)	5	2.5%
어드벤처	-	-	3	1(1)	4	2.0%
FPS [1인칭슈팅]	1	-	1	1	3	1.5%
교육용	-	1	-	1(1)	2	1.0%
레이싱	-	-	2	-	2	1.0%
합계	26[7]	97	27	52(46)	202	100.0%

* [ ]안의 숫자는 청소년이용불가 아케이드 게임물임
* 출처: 게임물등급위원회(http://www.grb.or.kr)

06 영화

12월 박스오피스 순위에서는 12월 19일에 개봉한 뮤지컬 영화 '레미제라블'이 관객수 321만명을 동원하며 1위를 차지하였다. '레미제라블' 이전까지 뮤지컬영화로 가장 관객을 많이 동원한 영화는 2008년 9월에 개봉한 '맘마이아(453만명)'로 개봉 2주차 누적관객수가 213만명이었는데, 개봉한지 2주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레미제라블'은 '맘미이아' 2주차 기록보다 110만명 이상 많은 관객을 동원했다. 관객 266만명을 동원한 진구, 한혜진 주연의 '26년'은 2위에 올랐고. 3위는 '반지의 제왕' 전편 격인 피터잭슨 감독의 '호빗: 뜻밖의 여정'으로 261만명의 관객수를 기록했다. 그리고 '타워', '나의 PS파트너'가 각각 관객수 201만명, 178만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타워'는 개봉 1주일 만에 200만 명이상의 관객을 동원하며, 2012년 한국영화의 흥행여세를 이어갔다.

한편 12월 박스오피스 상위 15위 영화의 제작 국가는 한국 8편, 미국 5편, 일본이 2편을 기록하며 한국영화의 강세가 2012년 내내 지속되었다.

박스오피스 순위 TOP 15 (12월)

순위	제목	배급사	제작	개봉일	스크린수	매출액 (백만원)	관객수 (천 명)	누적관객수 (천 명)
1	레미제라블	유니버설 픽쳐스 인터내셔널 코리아(유)	미국	2012-12-19	696	23,429	3,210	3,210
2	26년	(주)인벤트스톤, 영화사 청어람(주)	한국	2012-11-29	611	19,119	2,656	2,940
3	호빗: 뜻밖의 여정	워너브러더스코리아(주)	미국	2012-12-13	1,028	21,725	2,605	2,605
4	타워	씨제이이앤엠 주식회사	한국	2012-12-25	617	14,659	2,014	2,015
5	나의 PS 파트너	씨제이이앤엠 주식회사	한국	2012-12-06	552	13,497	1,778	1,787
6	반창꼬	(주)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NEW)	한국	2012-12-19	466	12,433	1,726	1,731
7	가문의 영광5 - 가문의 귀환	롯데쇼핑㈜롯데엔터테인먼트	한국	2012-12-19	447	7,245	1,012	1,012
8	가디언즈	씨제이이앤엠 주식회사	미국	2012-11-29	470	7,119	946	1,056
9	주먹왕 랄프	소니픽쳐스릴리징 월트디즈니스튜디오스코리아(주)	미국	2012-12-19	361	4,473	617	617
10	브레이킹 던 part2	(주)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	미국	2012-11-15	348	3,070	428	2,655
11	늑대소년 - 확장판	씨제이이앤엠 주식회사	한국	2012-12-06	278	2,868	414	414
12	내가 살인범이다	쇼박스㈜미디어플렉스	한국	2012-11-08	312	2,950	391	2,730
13	늑대소년	씨제이이앤엠 주식회사	한국	2012-10-31	409	2,425	341	6,654
14	극장판 포켓몬스터 베스트위시 「큐레무 VS 성검사 케르디오」	씨제이이앤엠 주식회사	일본	2012-12-19	275	1,280	330	330
15	극장판 포켓몬스터 베스트위시 「메로엣타의 반짝반짝 음악회」	씨제이이앤엠 주식회사	일본	2012-12-19	237	917	273	273

* 출처: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2012년 연간 누적 박스오피스 매출액은 작년에 비해 약 2,193억원(17.7%) 증가한 1조 4,551억원으로 집계되었다. 관객 수도 전년 대비 약 3,516만명(22.0%)이 증가한 1억9,489만명으로 역대 최고의 관객수를 기록했다. 개봉편수에서는 한국영화 개봉이 전년에 비해 25편이 늘어난 175편이었고, 관객수는 3,175만명이 증가하였으며, 2012년 한국영화 관객수는 1억 1,461만명으로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두었다. 외국영화는 146편 증가한 455편이 개봉했고, 관객수는 약 342만명이 늘었다. 누적 관객점유율은 한국영화가 58.8%를 기록하며 외국영화 점유율(41.2%)을 크게 앞섰으나, 11월 누적 수치 대비로는 0.6%p 하락했다. 하지만 전년도 한국영화 점유율 51.9%에 비해 6.9%p가 증가하였을 정도로 2012년에는 한국영화의 강세가 지속되었다.

월별 관객 점유율을 보면, 작년 12월 한국영화 점유율이 37.2%를 기록했던 것에 비하여 올해 12월에는 53.7%를 기록하며 16.5%p 증가하였다. 12월 한국영화는 14편이 개봉했고, 동원 관객수는 1,106만명을 넘기며 한국영화 관객수가 7월 이후 6개월 연속 1,000만명을 상회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영화는 2012년에 1,000만명 이상 영화 2편, 300만명 이상 영화 10편 등 흥행기록 면에서 좋은 성과를 보였으나, 2편의 영화가 1,000만명 이상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저예산 영화의 상영기회 제한, '터치'의 조기 종영 등 상영에 있어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연간 누적 박스오피스 현황

구분	2012. 1. ~ 2012. 12.					2011. 1. ~ 2011. 12.				
	개봉편수	상영편수	매출액 (백만 원)	관객수 (천 명)	점유율	개봉편수	상영편수	매출액 (백만 원)	관객수 (천 명)	점유율
한국	175	870	836,115	114,613	58.8%	150	825	613,723	82,868	51.9%
외국	455	1,763	619,018	80,275	41.2%	309	1,240	622,076	76,856	48.1%
전체	630	2,633	1,455,133	194,887	100.0%	459	2,065	1,235,799	159,724	100.0%

* 출처: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한국콘텐츠진흥원 재구성

월별 관객 동원 추이 (2011. 12 ~ 2012. 12)

구분	개봉편수			상영편수			관객수 (천 명)			점유율 (%)	
	한국	외국	전체	한국	외국	전체	한국	외국	전체	한국	외국
2011. 12.	14	27	41	146	229	375	6,262	10,566	16,829	37.2%	62.8%
2012. 01.	8	24	32	51	139	190	8,243	8,386	16,629	49.6%	50.4%
2012. 02.	10	42	52	50	140	190	9,912	3,153	13,065	75.9%	24.1%
2012. 03.	20	25	45	94	142	236	6,832	4,560	11,393	60.0%	40.0%
2012. 04.	11	38	49	55	143	198	5,061	6,932	11,993	42.2%	57.8%
2012. 05.	15	40	55	67	133	200	6,753	9,217	15,970	42.3%	57.7%
2012. 06.	9	27	36	77	133	210	7,661	6,552	14,213	53.9%	46.1%
2012. 07.	13	43	56	72	147	219	10,043	10,921	20,964	47.9%	52.1%
2012. 08.	15	43	58	62	167	229	17,011	7,228	24,239	70.2%	29.8%
2012. 09.	10	49	59	71	147	218	10,167	4,430	14,597	69.7%	30.3%
2012. 10.	20	28	48	76	124	200	10,172	5,117	15,289	66.5%	33.5%
2012. 11.	30	43	73	106	153	259	11,700	4,248	15,947	73.4%	26.6%
2012. 12.	14	53	67	89	195	284	11,059	9,533	20,592	53.7%	4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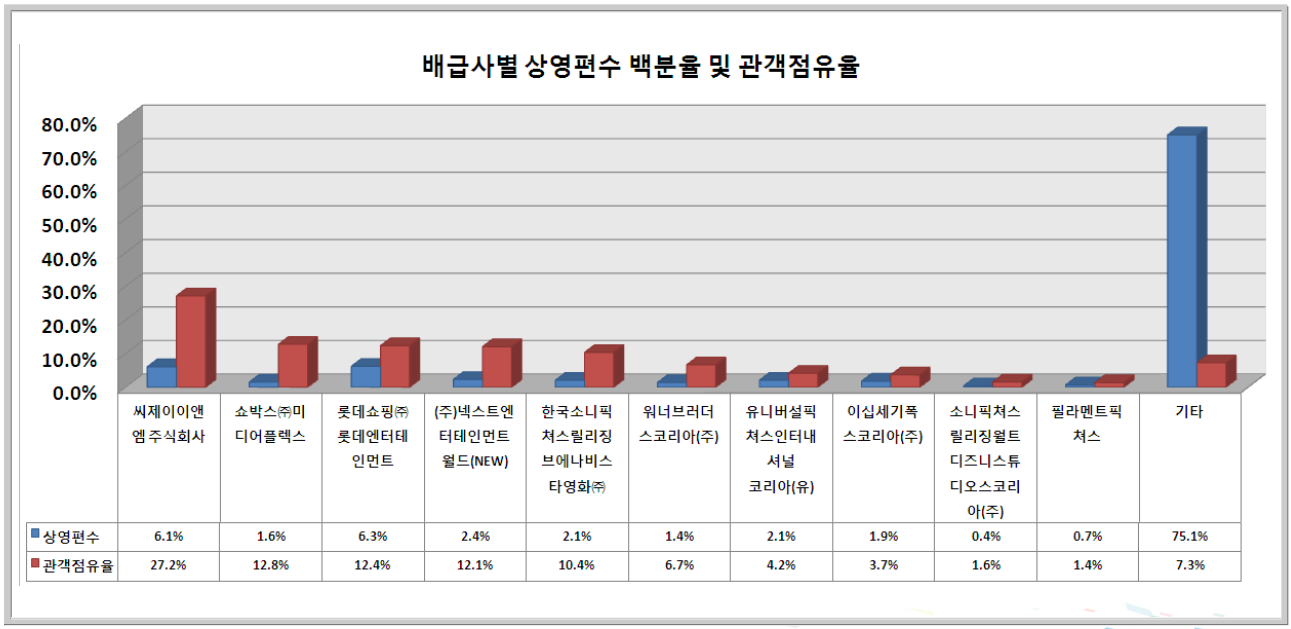
* 출처: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2012년 연간 누적기준으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한 배급사는 'CJ E&M'으로, 총 관객 5,246만명을 동원하며 27.2%의 점유율을 기록했고, 매출액은 3,848억원으로 집계되었다. 'CJ E&M'은 12월 '타워'와 '나의 PS 파트너', '가디언즈' 등의 흥행에 힘입어 전월대비 점유율이 0.4%p 상승했다. '쇼박스㈜미디어플렉스'는 전월에 이어 2위를 기록하였으나, 흥행순위 15위 이내 영화 중 쇼박스가 배급한 영화는 전월에 배급한 '내가 살인범이다' 이외엔 없어 점유율은 전월 대비 1.3%p 감소한 12.8%이었다. 12월에 '가문의 영광5: 가문의 귀환'을 배급한 '롯데쇼핑㈜롯데엔터테인먼트'도 점유율이 전월대비 0.5%p가 감소한 12.4%였으나, 3위를 유지하였다. '㈜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NEW)'도 흥행 6위를 기록한 '반창꼬'를 배급하며 비교적 선전하였으나, 점유율은 전월대비 0.1%p 감소한 12.1%로 4위를 기록하였다.

배급사별 점유율 TOP 10 (2012. 1. ~ 2012. 12.)

순위	배급사	상영편수	관객		매출	
			관객수 (천 명)	점유율	매출액 (백만 원)	점유율
1	씨제이이앤엠 주식회사	43	52,464	27.2%	384,779	26.7%
2	쇼박스㈜미디어플렉스	11	24,739	12.8%	182,171	12.6%
3	롯데쇼핑㈜롯데엔터테인먼트	44	23,876	12.4%	173,331	12.0%
4	(주)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NEW)	16.5	23,304	12.1%	169,980	11.8%
5	한국소니픽쳐스릴리징브에나비스타영화㈜	15	20,143	10.4%	165,926	11.5%
6	워너브러더스코리아(주)	10	13,023	6.7%	101,575	7.0%
7	유니버설픽쳐스인터내셔널 코리아(유)	15	8,040	4.2%	59,700	4.1%
8	이십세기폭스코리아(주)	13	7,154	3.7%	55,386	3.8%
9	소니픽쳐스릴리징월트디즈니스튜디오스코리아(주)	3	3,037	1.6%	22,326	1.6%
10	필라멘트픽쳐스	5	2,749	1.4%	20,783	1.4%
-	기타	527	14,730	7.3%	107,287	7.0%
합 계		702	193,259	100%	1,443,244	100%

* 순위는 관객 수(점유율)로 집계
* 두 개 배급사가 공동으로 배급한 작품은 각 편수, 관객수, 매출액 모두 각 배급사에 절반씩 나누어 집계
* 출처: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2012년 12월까지의 상영유형별 누적 관객점유율에서는 2D영화(디지털)가 86.5%로 전월대비 0.8%가 늘어났으며, 아날로그 필름은 0.5%p 감소한 7.8%, 3D도 0.3%p 감소한 4.2%를 기록했다. 아날로그 필름과 3D관객 점유율이 감소한 만큼 2D(디지털)영화의 점유율이 증가한 것이다. IMAX와 4D는 관객점유율은 0.7%로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2011년 상영유형별 관객점유율의 경우 2D영화(디지털)가 68.7%, 아날로그 필름이 21.4%, 3D 영화 8.5%, 4D와 IMAX가 0.7%이었다. 2011년과 비교할 때 아날로그 필름과 3D 영화가 각각 13.6%p, 4.3%p가 감소하는 대신에 2D영화(디지털)가 17.8%p 증가하였다. 상영시설이 필름에서 디지털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관객들이 3D로 더 많은 가격을 지불하면서까지 즐길만한 3D 영화가 나오지 않은 이유로 2D영화 점유율이 급격히 늘어난 것이다. 4D와 IMAX는 2011년과 동일한 비율이긴 하나, 멀티플렉스 체인회사들이 다른 미디어 부문과 차별화 및 고급화 전략 차원에서 4D상영관을 늘린 점을 고려하면 점유율은 감소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상영유형별 점유율 (2012. 1. ~ 2012. 12.)

순위	분류	개봉편수	상영편수	관객		매출	
				관객수 (천 명)	점유율	매출액 (백만 원)	점유율
1	2D	481	658	168,026	86.5%	1,218,265	84.1%
	디지털	410	571	157,963	81.3%	1,153,714	79.6%
	디지털더빙	41	52	10,035	5.2%	64,335	4.4%
	디지털 영문자막	21	24	20	0.0%	159	0.0%
	디지털 일본자막	5	6	5	0.0%	33	0.0%
	디지털 청각장애인용 자막	4	5	4	0.0%	21	0.0%
2	필름	441	917	15,187	7.8%	105,349	7.3%
	필름	405	872	14,260	7.3%	99,489	6.9%
	더빙	25	32	923	0.5%	5,832	0.4%
	청각장애인용 자막	5	5	2	0.0%	8	0.0%
	영문자막	5	7	2	0.0%	12	0.0%
	일어자막	1	1	1	0.0%	8	0.0%
3	3D	53	65	8,237	4.2%	90,882	6.3%
	3D디지털	34	40	5,401	2.8%	61,849	4.3%
	3D더빙	16	21	2,836	1.5%	29,033	2.0%
4	IMAX	19	22	1,436	0.7%	19,868	1.4%
	IMAX 3D	13	15	821	0.4%	12,705	0.9%
	IMAX	6	7	615	0.3%	7,163	0.5%
5	4D	34	38	1,371	0.7%	14,913	1.0%
	4D	25	29	1,104	0.6%	12,146	0.8%
	4D더빙	9	9	267	0.1%	2,767	0.2%
합계		1,028	1,700	194,257	100%	1,449,277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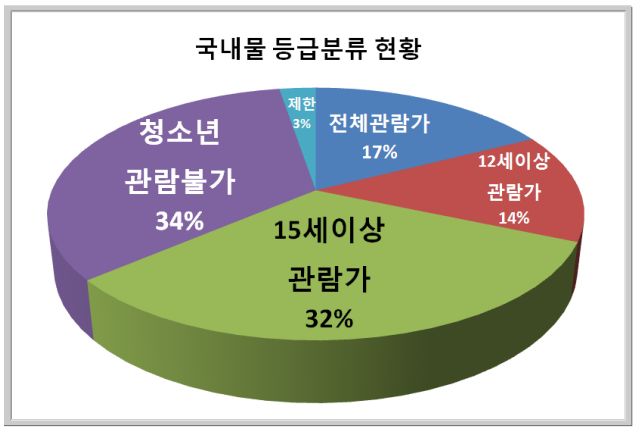
* 출처: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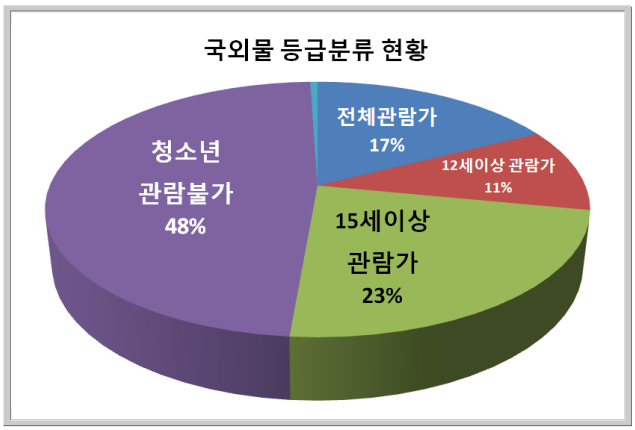
2012년 들어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진행한 영상물은 1,002편이었고, 이중 국내물이 229편, 국외물이 773편으로 집계되어 국외물이 국내물보다 3.4배 많았다. 등급별로는 국내물과 국외물 모두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이 77편(34%), 372편(48%)으로 1위를 차지하였으며,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이 각각 74편(32%), 180편(23%)으로 국내외 모두 2위를 기록하였다. 3번째로 많은 등급은 국내외 모두 '전체 관람가' 등급이었다.

등급분류 현황 (2012. 1. ~ 2012. 12.)

구분	등급						불가	보류	속행	자료 제출	합계
	전체 관람가	12세이상 관람가	15세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	합계					
국내물	40	32	74	77	6	229	0	0	1	0	230
	17.47%	13.97%	32.31%	33.62%	2.62%	100%	-	-	-	-	-
국외물	135	82	180	372	4	773	0	0	1	4	778
	17.46%	10.61%	23.29%	48.12%	0.52%	100%	-	-	-	-	-
합계	175	114	254	449	10	1,002	0	0	2	4	1,008

* 출처: 영상물등급위원회 (http://www.kmrb.or.kr)





영화 DVD · 블루레이 판매처별 판매 순위에서는 〈YES24〉와 〈핫트랙스〉 블루레이 부문에서 '[블루레이] 다크나이트' 시리즈가 1·2위를 기록하였으며, 〈알라딘〉과 〈인터파크〉에서는 각각 '반지의 제왕: 반지 원정대', '반지의 제왕: 왕의 귀환'이 1위를 기록하였다. 〈핫트랙스〉의 일반 DVD부문 1위는 전월에 이어 '트와일라잇'이 차지했다. 극장에서 개봉하는 할리우드 대작 영화의 시리즈가 개봉할 경우 DVD·블루레이 판매시장에서 관련 영화의 시리즈가 강세를 보이는 현상이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반지의 제왕' 시리즈의 전편 격인 '호빗: 뜻밖의 여정'이 개봉을 앞두고 '반지의 제왕'시리즈 3편 모두가 〈YES24〉를 제외하고 판매처별 순위 10위 이내에 포함되어 있다.

영화 DVD / 블루레이 판매 TOP 10 (12월)

순위	YES24			알라딘		
	제목	발매일	판매가	제목	발매일	판매가
1	다크나이트 트릴로지 : 블루레이	2012-11-28	39,600	반지의 제왕 : 반지 원정대 - 확장판	2012-12-06	9,900
2	다크나이트 라이즈 (한정판 스틸북) : 블루레이	2012-11-28	66,000	반지의 제왕 : 왕의 귀환 - 확장판	2012-12-06	9,900
3	룩배송콜렉션(한정판디지팩):블루레이	2012-12-27	99,000	이와이 슌지 컬렉션	2012-10-30	39,600
4	건축학개론 : 블루레이	2012-12-07	31,900	반지의 제왕 : 두 개의 탑 - 확장판	2012-12-06	9,900
5	멋진하루 : 블루레이	2012-10-30	31,900	[블루레이] 본 레거시 : 한정판 스틸북	2012-12-28	35,200
6	다크나이트 라이즈 : 블루레이	2012-11-28	35,200	[블루레이] 형사 Duelist	2013-01-03	33,000
7	레옹 : 블루레이(극장판+감독판)	2012-12-27	25,200	찰리 채플린 단편 영화 콜렉션	2010-03-08	9,800
8	내 아내의 모든 것 : 블루레이	2012-11-29	29,700	러브레터	2005-03-07	2,900
9	본 레거시(스틸북 한정판) : 블루레이	2012-12-28	35,200	[블루레이] 도둑들	2013-01-16	31,900
10	사운드 오브 뮤직	2010-06-15	8,800	사운드 오브 뮤직 : 40주년 기념 한정 할인판	2012-01-26	14,400

순위	인터파크			핫트랙스	
	제목	발매일	판매가	블루레이	DVD
1	반지의 제왕 : 왕의 귀환 - DVD	2012-12-06	9,900	다크 나이트 라이즈 : 스틸북 한정판	트와일라잇
2	다크 나이트 라이즈 - DVD	2012-11-28	19,800	다크 나이트 라이즈	사운드 오브 뮤직 : 40주년 특별 한정판
3	반지의 제왕 : 두 개의 탑 - DVD	2012-12-06	9,900	건축학개론	반지의 제왕 : 왕의 귀환 확장판
4	반지의 제왕 : 반지원정대 - DVD	2012-12-06	9,900	레지던트 이블5 : 최후의 심판 3D+2D	반지의 제왕 : 반지 원정대 확장판
5	사운드 오브 뮤직 40주년 (2DISC) - DVD	2012-01-26	14,400	반지의 제왕 : 반지 원정대 확장판	반지의 제왕 : 두 개의 탑 확장판
6	다크 나이트 트릴로지[기프트 한정판] - 블루레이	2012-11-28	66,000	다크 나이트 : 트릴로지 한정판	노팅 힐
7	노팅힐 - DVD	2012-04-18	9,900	반지의 제왕 : 두 개의 탑 확장판	이클립스 : 트와일라잇 3
8	어벤져스 - DVD	2012-09-05	20,400	반지의 제왕 : 왕의 귀환 확장판	뉴문 : 트와일라잇 2
9	다크 나이트 트릴로지[기프트 한정판] - DVD	2012-11-28	44,000	어벤져스	다크 나이트 라이즈 S.E
10	브레이킹 던 Part 1 - DVD	2012-11-23	9,900	아바타 3D&2D+DVD : 초회한정 렌티큘러	맘마미아!

* 출처: YES24, 인터파크, 핫트랙스(이상 12월 기준), 알라딘(12월 5주 기준)

영화 VOD 서비스 업체별 판매 순위는 〈네이버 N스토어〉와 〈네이트 호핀〉에서 '이프 온리'가 1위를 차지하였고, 〈다음 영화〉에서는 '남영동1985'가 1위, 〈티스토어〉에서 '용의자X'가 1위였다. '남영동1985'는 극장에서 12월 중순까지 상영된 영화로, 극장동시상영 형태로 Qook-TV 등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지면서 극장에서의 상영기회 제한이 일정 수준 VOD서비스를 앞당긴 측면이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비MPAA계열 저예산 영화 중 상영하는 스크린 수가 매우 적은 영화들은 극장 개봉을 한지 1주가 지나면 온라인 VOD서비스를 하는 동시에 하는 것이 일반적인 윈도우 전략이다. 하지만 '남영동1985'와 달리 스크린 수 및 상영기회를 비교적 적지 않게 확보한 롯데엔터테인먼트나 쇼박스 등의 영화도 극장개봉과 함께 동시에 VOD서비스를 하거나 종영 기준일 다음 날부터 바로 VOD서비스를 하는 경우가 2012년 들어 늘어나 윈도우별 홀드백 질서가 붕괴되고 있다. 극장과 동시에 또는 종영기준일 바로 다음날부터 VOD서비스를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극장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우려된다.

영화 VOD 이용 TOP 10 (12월)

순위	네이버 N스토어			다음 영화		
	제목	상영시간	판매가	제목	상영시간	판매가
1	이프 온리	96분	500	남영동1985	106분	3,500
2	건축학개론	118분	2,000	도둑들	135분	4,000
3	용의자X	119분	4,000	용의자X	119분	4,000
4	내 아내의 모든 것	121분	2,500	범죄와의 전쟁	133분	2,500
5	도둑들	135분	4,000	우리도 사랑일까	116분	3,500
6	맛있는 섹스, 맛있는 상상	61분	3,500	돈 크라이 마미	91분	4,000
7	다크 섀도우	112분	2,000	건축학개론	118분	2,000
8	남영동1985	106분	3,500	개들의 전쟁	96분	3,500
9	해리 포터와 죽음의 성물 - 2부	131분	2,000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121분	4,000
10	엄청나게 시끄럽고 믿을수 없게 가까운	210분	2,000	세 얼간이	141분	1,200
순위	네이트 호핀			티스토어		
	제목	상영시간	판매가	제목	상영시간	판매가
1	이프 온리	96분	500	용의자X	110분	4,000
2	금지된 섹스, 불륜(무삭제판)	60분	2,000	돈 크라이 마미	91분	10,000
3	19곰 테드	106분	3,500	음치 클리닉	124분	8,000
4	용의자X	110분	4,000	도둑들	135분	4,000
5	돈 크라이 마미	91분	4,000	남영동1985	106분	5,000
6	후궁 : 제왕의 첩	122분	2,000	자칼이 온다	107분	3,500
7	레미제라블 : 25주년 런던 라이브	169분	1,000	본 레거시	135분	1,800
8	본 레거시	135분	1,800	다크 나이트 라이즈	164분	3,500
9	어벤져스	142분	1,800	태극권 : 무림 7대 고수전	115분	3,500
10	레지던트 이블 5 : 최후의 심판	95분	3,500	더 스토리 : 세상에 숨겨진 사랑	102분	3,500

* 출처: 네이버 N스토어, 다음 영화, 네이트 호핀, 티스토어 (12월 31일 기준)

07 애니메이션

12월 지상파 채널 애니메이션 시청률 순위에서는 크리스마스 특집 애니메이션이 대거 순위에 올랐다. '빨간모자의 진실2'가 3.93%의 높은 시청률로 1위를 차지했고, 220만 관객을 동원한 국산 애니메이션 '마당을 나온 암탉'이 3.91%로 2위에 올랐다. 3위를 기록한 '상상친구 꾸메푸메'는 TV 애니메이션 중에는 유일하게 TOP 5에 들었다. 본격적인 겨울방학에 돌입하고 크리스마스 등 연휴가 발생하는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20위까지의 애니메이션이 많게는 3%p에서 적게는 0.4%p 가량 시청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KBS는 11월에 비해 세 편 늘어난 13편의 애니메이션을 방영했는데, 이 중 두 편이 극장용 애니메이션이었다. 3편의 특집 애니메이션을 편성한 SBS는 6편을 20위에 올렸다. SBS는 '만화왕국'이라는 타이틀로 꾸준히 애니메이션을 방영 중에 있다. 전월 6편이 순위에 포함되었던 MBC는 1위를 차지한 '빨간모자의 진실2'를 제외하면 시청률에서 저조한 모습을 보였다.

지상파 채널 (방송 3사) 애니메이션 시청률 (12월)

순위	프로그램명	방송사	방영시간	시청률(%)
1	성탄특선영화 빨간모자의 진실2	MBC	화/ 9:45	3.93
2	성탄특집애니메이션 마당을 나온 암탉	SBS	화/ 10:40	3.91
3	상상친구 꾸메푸메	KBS1	토/ 14:00	1.17
4	성탄특선만화 티니 와일드	KBS2	월/ 16:30	1.09
5	특선애니메이션 볼츠와 블립	KBS1	토/ 14:00	0.96
6	만화왕국 안녕자두야2	SBS	화-수/ 16:00	0.94
7	프랭키와 친구들	KBS1	토/ 14:30	0.91
8	알록달록 종이마을	KBS2	월-목/ 15:35	0.86
9	딸기가 좋아	KBS2	월-목/ 15:35	0.82
10	방학특집애니메이션 마법천자문	SBS	수/ 14:30	0.81
11	빠뿌야 놀자	KBS2	수,토/ 17:15	0.80
12	유후와 친구들	KBS2	금/ 17:00	0.78
13	구름빵	KBS2	월/ 17:00	0.77
14	두리뭉실 뭉게공항	KBS2	수,토/ 17:00	0.76
15	프랭키와 친구들	KBS2	화/ 17:00	0.73
16	만화왕국 매일엄마2	SBS	목/ 16:00	0.71
17	만화왕국 아이엠뮹니	SBS	월/ 16:00	0.71
18	상상친구 꾸메푸메	KBS2	목/ 17:00	0.70
19	성탄특집 스폰지밥	SBS	월/ 16:30	0.70
20	피쉬와 칩스	KBS2	월-목/ 16:00	0.70

* 출처: AGB닐슨 미디어리서치(본방 기준, 13대전국, 모든 플랫폼, 가구시청률), EBS 제외

EBS에서는 12월 56편의 애니메이션을 방영했다. 1989년에 탄생한 원작만화를 TV 시리즈물로 제작한 '머털도사'가 2%대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1위에 올랐고, 국내 제작사인 대원미디어가 일본 원작의 판권을 사들여 제작한 '곤'이 뒤를 바짝 쫓고 있다. '머털도사'는 중국 CCTV와 수출 계약 체결이 진행 중이며 '곤'은 호주·뉴질랜드·인도 등에서 방영되는 등 해외 시장에 활발히 진출하고 있다. 3위부터 7위까지는 EBS의 인기 프로그램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의 애니메이션 코너들이 차지했다.

EBS 방영 애니메이션 현황 (12월)

구분	프로그램명	방송사	방영요일	러닝타임
1	머털도사	EBS	수-목	19:06
2	곤	EBS	월-목	18:52
3	생물이 생생 (톡톡 보니하니)	EBS	월-목	18:29
4	캐니멀 (톡톡 보니하니)	EBS	월-화	18:42
5	과학이 톡톡 (톡톡 보니하니)	EBS	화	18:29
6	꼬마기사 마이크 (톡톡 보니하니)	EBS	수-목	18:07
7	꼬마거북 프랭클린 (톡톡 보니하니)	EBS	월-화	18:11
8	빼꼼	EBS	월-화	19:09
9	도라의 크리스마스 캐럴 여행	EBS	화	18:02
10	오스카의 오아시스	EBS	금	18:57
11	어린왕자	EBS	월-화	19:13
12	로보카 폴리와 함께하는 교통안전이야기	EBS	금	17:58
13	릴로와 스티치	EBS	금	18:08
14	뽀롱뽀롱 뽀로로	EBS	수-목	8:29
15	디보와 노래해요	EBS	수	9:13
16	춤추는 곰쿵야	EBS	수-목	8:45
17	로보카 폴리	EBS	월-화	8:29
18	꼬마요리사	EBS	금	8:24
19	우당탕탕 아이쿠	EBS	금	8:46
20	뽀로로와 노래해요	EBS	월-화	9:13
21	빠삐에 친구	EBS	금	8:15
22	떼굴떼굴 미술상자	EBS	금	8:58
23	치로의 클래식 동요	EBS	목	9:12
24	뚜바뚜바 눈보리	EBS	수	9:18
25	따개비루	EBS	금	16:47
26	괴물그루팔로	EBS	화	20:07
27	한글친구 아라차	EBS	금	9:08
28	트랜스포머 프라임	EBS	금	19:08
29	코코몽2	EBS	월-화	9:19
30	깨미	EBS	목	9:18

31	마샤와 곰	EBS	월-화	9:34
32	아기공룡 버디	EBS	월-화	9:48
33	공주가 된 올리비아	EBS	화	19:42
34	똑똑박사 에디	EBS	금	7:44
35	클로이의 요술옷장	EBS	수-목	9:45
36	트리푸톰	EBS	금	9:19
37	피들리팜	EBS	금	16:12
38	달려라 카카	EBS	수-목	9:34
39	아기고릴라 둥둥	EBS	금	16:21
40	꼬마버스 타요	EBS	수-목	7:43
41	미술탐험대	EBS	일	10:45
42	행복배달부 팻아저씨	EBS	금	9:43
43	부릉부릉 브루미즈	EBS	월-화	7:42
44	미라벨의 동물극장	EBS	월-화	15:09
45	고양이 파피	EBS	수-목	15:11
46	꼬마펭귄 핑구	EBS	수-금	7:28
47	버블버블 인어친구들	EBS	금	15:09
48	수학특공대 우미주미	EBS	월-화	14:45
49	시계마을 티키톡	EBS	토	7:30
50	로보의 별나라여행	EBS	금	14:44
51	치로와 친구들	EBS	월-화	7:28
52	수학의원 리마테마티카	EBS	금	14:33
53	호야네 집	EBS	금	7:01
54	꾸러기 상상여행	EBS	월-화	7:01
55	몬스터 수학나라	EBS	목	7:00
56	칙칙폭폭 처깅턴	EBS	수	7:00

* 출처: AGB닐슨 미디어리서치(본방 기준), 시청률순 정렬

12월 어린이/애니메이션 전문채널 시청률 순위에서는 국산 애니메이션 '안녕 자두야'가 1위에 올랐다. 방영횟수가 1회에 불과하지만 0.72%의 비교적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후속작인 '안녕자두야2'도 5위에 오르며 지난달에 이어 선전했다. 전문채널에서도 연말 분위기와 맞물려 '이웃집 토토로',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등 극장판 애니메이션이 21편이나 편성됐으며 '명탐정 코난 극장판 침묵의 15분'이 2위, 지상파 채널에서도 방영되어 좋은 반응을 얻은 '마당을 나온 암탉'이 3위를 차지하며 시청률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였다.

제작 국적별로 살펴보면 일본에서 제작된 작품이 25편으로 여전히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국산 프로그램으로는 '안녕자두야' 시리즈를 비롯해 총 4편이 순위에 들었고, '스머프 크리스마스 캐롤'이 미국 작품으로는 드물게 차트에 이름을 올렸다.

어린이/애니메이션 전문채널 프로그램 TOP 30 (12월)

순위	프로그램	제작	방영회수	시청률 (%)
1	안녕 자두야	한국	1	0.72
2	명탐정 코난 극장판 침묵의 15분	일본	4	0.67
3	마당을 나온 암탉	한국	8	0.64
4	짱구는 못말려 12	일본	70	0.63
5	안녕자두야2	한국	68	0.62
6	이웃집 토토로<재>	일본	2	0.57
7	명탐정 코난 극장판 시한장치의 마천루	일본	2	0.53
8	명탐정 코난 극장판 11번째 스트라이커	일본	6	0.53
9	명탐정 코난 극장판 14번째 표적	일본	2	0.52
10	아따맘마 극장판	일본	2	0.51
11	짱구는 못말려 폭풍을 부르는 석양의 떡잎마을 방범대<재>	일본	2	0.51
12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재>	일본	2	0.51
13	명탐정 코난 스페셜	일본	13	0.50
14	아따맘마 5기	일본	18	0.49
15	스머프 크리스마스 캐롤	미국	2	0.44
16	마보이	한국	2	0.43
17	짱구는 못말려 어른제국의 역습<재>	일본	2	0.43
18	짱구는 못말려 10	일본	34	0.43
19	짱구는 못말려 폭풍을 부르는 정글<재>	일본	2	0.43
20	짱구는 못말려 11	일본	47	0.42
21	하울의 움직이는 성<재>	일본	2	0.41
22	닌자보이 란타로 9	일본	2	0.40
23	짱구는 못말려 전설을 부르는 춤을 춰라<재>	일본	3	0.40
24	극장판 짱구는 못말려 초시공 태풍을 부르는 나의 신부<재>	일본	2	0.38
25	짱구는 못말려 부리부리 3분 대작전<재>	일본	3	0.38
26	짱구는 못말려 액션가면 그래그래마왕<재>	일본	2	0.37
27	나루토 SD 록리의 청춘 닌자전	일본	3	0.35
28	짱구는 못말려 헨더랜드의 모험<재>	일본	1	0.35
29	극장판 짱구는 못말려 포효하라 떡잎야생왕국<재>	일본	2	0.35
30	도라에몽 극장판 진구의 인어 대해전<재>	일본	3	0.34

* 해당 수치는 어린이/애니메이션 전문채널(투니버스, 챔프, 카툰네트워크, 애니원, 애니박스, 어린이TV, 애니맥스, 재능TV, 니켈로디언, 디즈니주니어, 디즈니채널, 애니플러스, 육아방송, Kids talk talk, Kids Co, 대교플러스, 키즈원, 키즈TV, 에듀TV, 에듀키즈, KBS kids)에서 방영되는 모든 애니메이션의 시청률을 합한 값임

* 출처: AGB닐슨 미디어리서치

어린이/애니메이션 전문채널별 프로그램 시청률 순위를 살펴보면 〈투니버스〉에서는 전체 1위를 기록한 '안녕 자두야'가, 〈카툰네트워크〉에서 '톰과 제리 마법의 반지'가 1위를 차지했다. 〈니켈로디언〉에서는 '네모바지 스폰지밥'이, '짱구는 못말려' 시리즈가 초강세를 보이던 〈챔프〉에서는 '이웃집 토토로'가 1위에 올랐다. 〈대교어린이TV〉에서는 전월과 마찬가지로 '변신자동차 또봇' 시리즈가 여전히 인기를 끌고 있고 〈재능TV〉에서는 유아용 애니메이션 '안아줘요 무무'가 정상을 차지했다. 대부분의 전문채널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전월 같은 순위와 비교해 상승했으나 〈니켈로디언〉은 오히려 시청률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애니메이션 전문채널별 프로그램 시청률 순위 (12월)

투니버스			카툰네트워크		
1	안녕자두야	0.72	1	톰과 제리 마법의 반지	0.34
2	명탐정 코난 극장판 침묵의 15분	0.67	2	쌍둥이맑음	0.27
3	마당을 나온 암탉	0.64	3	톰과 제리 오즈의 마법사	0.25
4	짱구는 못말려 12	0.63	4	키테레츠 대백과	0.24
5	안녕자두야2	0.62	5	톰과 제리 수퍼레이스	0.23
6	명탐정 코난 극장판 시한장치의 마천루	0.53	6	말짱팡돌이	0.21
7	명탐정 코난 극장판 11번째 스트라이커	0.53	7	핀과 제이크의 어드벤처 타임	0.21
8	명탐정 코난 극장판 14번째 표적	0.52	8	톰과 제리 셜록 홈즈를 만나다	0.21
9	아따맘마 극장판	0.51	9	이누야샤 스페셜 천하패도의 검	0.18
10	명탐정 코난 스페셜	0.50	10	닌자고	0.18
니켈로디언			**챔프**		
1	네모바지 스폰지밥	0.15	1	이웃집토토로<재>	0.57
2	아기공룡 둘리	0.15	2	짱구는 못말려 폭풍을 부르는 석양의 떡잎마을 방범대<재>	0.51
3	마다가스카의 펭귄	0.13	3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재>	0.51
4	아바타아앙의 전설	0.12	4	짱구는 못말려 어른 제국의 역습<재>	0.43
5	슈파닌자	0.11	5	짱구는 못말려 폭풍을 부르는 정글<재>	0.43
6	윙스클럽	0.11	6	하울의 움직이는 성<재>	0.41
7	돌연변이 특공대 닌자거북이	0.11	7	짱구는 못말려 전설을 부르는 춤을 춰라<재>	0.40
8	쿵푸팬더 전설의 마스터	0.09	8	극장판 짱구는 못말려 초시공 태풍을 부르는 나의 신부<재>	0.38
9	티미의 못말리는 수호천사	0.08	9	짱구는 못말려 부리부리 3분 대작전<재>	0.38
10	골판지전사 더블	0.07	10	짱구는 못말려 액션가면 그래그래마왕<재>	0.37
대교어린이TV			**재능TV**		
1	변신자동차 또봇 최강 합체 트라이탄	0.24	1	안아줘요 무무	0.32
2	포켓몬스터 베스트위시 극장판	0.19	2	라바	0.27
3	변신자동차 또봇 또 하나의 또봇	0.19	3	FRIENDS	0.23
4	변신자동차 또봇 합체 또봇 타이탄	0.16	4	문구계의 슈퍼아이돌 지우개군	0.23
5	변신자동차 또봇 엄마의 자장가2	0.14	5	으랏차차 짠돌이네	0.20
6	라바	0.14	6	썬더일레븐 극장판 최강군단 오우거의 습격	0.19
7	포켓몬스터 극장판	0.11	7	으랏차차 짠돌이네 2기	0.18
8	변신자동차 또봇 진화의 시작	0.10	8	변신자동차 또봇 엄마의 자장가2	0.17
9	변신자동차 또봇 엄마의 자장가	0.10	9	뽀롱뽀롱 뽀로로	0.14
10	닌자고	0.09	10	닌자고	0.14

* 출처: AGB닐슨 미디어리서치

어린이/애니메이션 전문채널의 평균 가구시청률에서는 〈투니버스〉의 독주가 지속되고 있다. 〈투니버스〉는 0.27%의 시청률로 2위 그룹인 〈챔프〉, 〈카툰네트워크〉와 2배가 넘는 격차를 보였으며, 11월 대비 시청률과 도달율이 각각 0.02%, 0.12% 상승한 반면 점유율은 0.0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챔프〉는 전월대비 0.04%p가 증가한 0.12%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0.01%p 상승에 그친 〈카툰네트워크〉를 제치고 2위에 올랐다. 그밖에 〈Anibox〉, 〈애니원〉, 〈KBS Kids〉, 〈육아방송〉이 한 계단 상승했고, 〈디즈니채널〉과 〈디즈니주니어〉가 각각 한 계단, 〈애니플러스〉가 두 계단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애니메이션 전문채널 평균 가구시청률 (12월)

순위	채널명	시청률	점유율	도달율	시청시간
1	Tooniverse	0.27%	0.72%	8.42%	0:03:57
2	Champ	0.12%	0.31%	5.36%	0:01:43
3	카툰네트워크	0.11%	0.29%	3.98%	0:01:37
4	JEI재능TV	0.10%	0.25%	5.19%	0:01:24
5	Nickelodeon	0.07%	0.18%	2.61%	0:00:59
6	Animax	0.07%	0.17%	3.80%	0:00:57
7	어린이TV	0.06%	0.15%	2.62%	0:00:49
8	Anibox	0.03%	0.08%	1.78%	0:00:26
9	디즈니채널	0.03%	0.07%	1.40%	0:00:23
10	애니원	0.02%	0.06%	0.96%	0:00:19
11	디즈니주니어	0.02%	0.05%	0.61%	0:00:16
12	KBS Kids	0.02%	0.05%	1.29%	0:00:16
13	육아방송	0.01%	0.04%	1.38%	0:00:12
14	애니플러스	0.01%	0.03%	0.84%	0:00:10
15	에듀키즈TV	0.00%	0.01%	0.22%	0:00:02
16	키즈원	0.00%	0.00%	0.11%	0:00:01
17	Kids Talk Talk Plus	0.00%	0.00%	0.04%	0:00:01
18	키즈TV	0.00%	0.00%	0.06%	0:00:00
19	KidsCo	0.00%	0.00%	0.00%	0:00:00
20	에듀TV	0.00%	0.00%	0.00%	0:00:00
21	대교플러스	0.00%	0.00%	0.00%	0:00:00

* 출처: AGB닐슨 미디어리서치

애니메이션 채널의 시간대별 평균 시청률을 살펴보면 20대를 포함해 전 연령대에서 17~20시에 시청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구 기준 최고 시청률은 11월과 동일하게 18시에 기록한 1.94%였으나 개인 기준 최고 시청률은 0.89%로 전월대비 0.05%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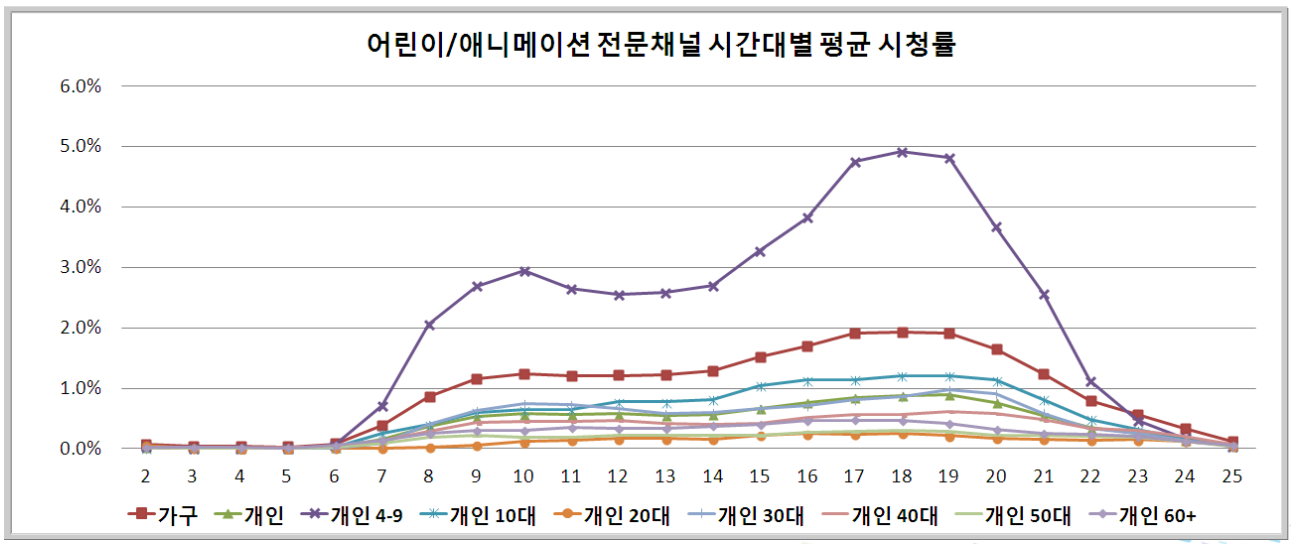
어린이/애니메이션 전문채널의 주요 소비자층인 4~9세의 최고 시청률은 4.92%(18시)였고, 10대가 1.21%로 뒤를 이었다. 전반적으로 시청률이 11월에 비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겨울방학을 맞이한 영유아/청소년 연령대의 아침 시간 시청률이 많이 증가했다.

어린이/애니메이션 전문채널 시간대별 평균 시청률 (12월)

(단위: %)

시간	가구	개인	개인 4-9	개인 10대	개인 20대	개인 30대	개인 40대	개인 50대	개인 60+
2	0.08	0.03	0.03	0.02	0.06	0.03	0.03	0.02	0.03
3	0.04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2
4	0.03	0.01	0.00	0.01	0.01	0.01	0.02	0.01	0.02
5	0.03	0.01	0.00	0.01	0.00	0.01	0.02	0.01	0.01
6	0.08	0.03	0.05	0.03	0.01	0.01	0.02	0.03	0.06
7	0.38	0.16	0.72	0.26	0.01	0.09	0.14	0.10	0.13
8	0.86	0.38	2.07	0.40	0.03	0.40	0.29	0.19	0.26
9	1.16	0.53	2.69	0.60	0.06	0.64	0.43	0.21	0.31
10	1.24	0.58	2.95	0.64	0.12	0.75	0.46	0.18	0.30
11	1.21	0.57	2.65	0.65	0.14	0.73	0.45	0.19	0.35
12	1.21	0.58	2.55	0.78	0.17	0.67	0.47	0.23	0.33
13	1.23	0.55	2.59	0.78	0.17	0.58	0.41	0.23	0.34
14	1.29	0.57	2.70	0.82	0.15	0.60	0.40	0.22	0.38
15	1.52	0.67	3.28	1.05	0.22	0.67	0.42	0.22	0.41
16	1.69	0.76	3.83	1.14	0.25	0.71	0.52	0.27	0.47
17	1.91	0.85	4.75	1.14	0.24	0.81	0.57	0.28	0.47
18	1.94	0.88	4.92	1.21	0.25	0.86	0.56	0.30	0.47
19	1.92	0.89	4.83	1.21	0.22	0.98	0.62	0.29	0.42
20	1.64	0.76	3.68	1.14	0.17	0.91	0.59	0.23	0.32
21	1.25	0.56	2.58	0.82	0.16	0.59	0.48	0.22	0.26
22	0.80	0.35	1.13	0.48	0.14	0.34	0.34	0.21	0.24
23	0.57	0.25	0.46	0.32	0.15	0.25	0.31	0.19	0.21
24	0.33	0.15	0.18	0.16	0.13	0.13	0.21	0.12	0.13
25	0.12	0.05	0.04	0.05	0.05	0.04	0.07	0.05	0.05

* 해당 수치는 어린이/애니메이션 전문채널(투니버스, 챔프, 카툰네트워크, 애니원, 애니박스, 어린이TV, 애니맥스, 재능TV, 니켈로디언, 디즈니주니어, 디즈니채널, 애니플러스, 육아방송, Kids talk talk, Kids Co, 대교플러스, 키즈원, 키즈TV, 에듀TV, 예듀키즈, KBS kids)채널의 시청률을 합한 값임
* 출처: AGB닐슨 미디어리서치



2012년 한 해 동안 개봉한 극장판 애니메이션은 총 55편이다. 그 중 일본 제작이 24편으로 가장 많았고 11편이 미국 제작이었다. 타국과의 공동제작을 포함한 한국 제작은 5편으로 나타났다. 유형으로는 2D가 32편으로 과반수를 차지했는데 일본 제작 2D 애니메이션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매출액은 3D 애니메이션이 1,005억원으로 195억원의 2D 애니메이션보다 5배 이상 많았다. 한편 11월 29일 개봉한 '가디언즈'가 107만명을 동원함에 따라 올해 100만 관객을 넘긴 애니메이션은 총 7편이 되었고, 1월에 개봉한 '장화신은 고양이'가 2012년 최다 관객 동원 애니메이션으로 기록됐다.

2013년 1월에는 총 7편의 신작이 겨울방학을 맞아 극장에 상영될 예정이다. 한·미·일을 대표하는 작품들이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먼저 미국에서 제작한 '몬스터호텔'은 개봉 첫 주에 전미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하며 4,2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린 3D 애니메이션이다. 일본 개봉 당시 박스오피스 1위에 오른 '명탐정 코난 8 : 은빛 날개의 마술사'는 24일 관객을 찾아간다. 두터운 고정 팬을 확보하고 있는 시리즈여서 52만 명을 동원했던 전작의 흥행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 기대된다. 한편 영유아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국민 캐릭터 뽀로로의 10주년 기념 애니메이션도 같은 날에 극장 개봉을 앞두고 있다. 뽀로로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120개국에 판권과 라이선스를 수출했고 경제적 부가효과가 5조 7,000억에 이른다는 평가를 받는 글로벌 캐릭터 애니메이션이다. 이번 극장판을 통해 미국의 미키마우스나 일본의 도라에몽, 포켓몬스터처럼 세대를 뛰어넘어 사랑받는 캐릭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으며, 중국 6,000개 스크린에서 동시에 상영될 예정이어서 해외시장에서의 흥행 여부도 주목된다.

2012년 애니메이션 극장 개봉 현황 (12월 31일 기준)

구분	제목	개봉일	스크린수	매출액 (백만 원)	관객수 (천 명)	유형	관람등급	제작
1	치코와 리타	1월 05일	17	122	15	2D	15세관람가	스페인, 영국
2	코알라 키드 : 영웅의 탄생	1월 12일	234	1,426	204	3D	전체관람가	한국, 미국
3	장화신은 고양이	1월 12일	593	17,390	2,053	3D	전체관람가	미국
4	요나요나 펭귄	1월 12일	104	30	5	2D	전체관람가	일본, 프랑스
5	점박이 : 한반도의 공룡3D	1월 26일	455	9,534	1,032	3D	전체관람가	한국
6	원피스3D : 밀짚모자 체이스	1월 26일	112	92	13	3D	전체관람가	일본
7	강철의 연금술사 : 마로스의 성스러운 별	1월 26일	36	23	3	2D	12세관람가	일본
8	해피피트 2	2월 02일	314	1,439	181	3D	전체관람가	호주
9	토르 : 마법망치의 전설	2월 09일	382	5,482	757	3D	전체관람가	아이슬란드
10	레전드 오브 래빗	2월 22일	224	565	82	3D	전체관람가	중국
11	볼츠와 블립: 달나라 리그의 전투	2월 23일	60	150	14	3D	전체관람가	한국, 캐나다
12	나루토 질풍전 극장판 : 블러드 프리즌	2월 23일	43	45	7	2D	전체관람가	일본
13	닌자보이 란타로 극장판 : 시끌벅적 방학숙제 대소동	2월 23일	64	52	8	2D	전체관람가	일본
14	밀림의 왕자 레오: 세상을 바꾸는 용기	2월 29일	49	154	24	2D	전체관람가	일본
15	은실이	3월 08일	1	1	0.1	2D	청소년관람불가	한국
16	스페이스 독	3월 22일	148	282	42	3D	전체관람가	러시아
17	짱구는 못말려 극장판 : 태풍을 부르는 황금스파이 대작전	4월 26일	277	1,802	271	2D	전체관람가	일본
18	파리의 도둑 고양이	4월 26일	4	8	1	2D	12세관람가	프랑스
19	장화신은 고양이 디 오리지널	5월 03일	46	31	4	2D	전체관람가	프랑스
20	로렉스	5월 03일	462	2,150	298	3D	전체관람가	미국
21	컬러풀	5월 10일	13	32	4	2D	15세관람가	일본

22	극장판 썬더일레븐GO : 궁극의 우정 그리폰	5월 24일	242	574	84	3D	전체관람가	일본
23	마다가스카3 : 이번엔 서커스다!	6월 06일	564	12,475	1,623	3D	전체관람가	미국
24	뉴타입 히어로 앗타맨	6월 21일	38	14	2.2	2D	전체관람가	일본
25	모모와 다락방의 수상한 요괴들	7월 05일	253	1,956	294	2D	전체관람가	일본
26	명탐정 코난: 11번째 스트라이커	7월 19일	350	3,363	525	2D	전체관람가	일본
27	도니도니 삼형제와 아기늑대 침투작전	7월 19일	2	0.5	0.1	2D	전체관람가	미국
28	극장판 모라에몽: 진구와 기적의 섬 애니멀 어드벤처	7월 25일	184	1,071	166	2D	전체관람가	일본
29	아이스 에이지 4: 대륙 이동설	7월 25일	501	12,292	1,648	3D	전체관람가	미국
30	파닥파닥	7월 25일	50	84	12	2D	전체관람가	한국
31	새미의 어드벤쳐 2	8월 01일	486	10,850	1,455	3D	전체관람가	벨기에
32	빌리와 용감한 녀석들 3D	8월 08일	241	1,961	299	3D	전체관람가	독일
33	손오공: 돌원숭이의 탄생	9월 06일	83	69	11	2D	전체관람가	일본
34	늑대아이	9월 13일	226	1,479	215	2D	전체관람가	일본
35	테드: 황금도시 파이티티를 찾아서	9월 20일	301	917	127	3D	전체관람가	스페인
36	메리다와 마법의 숲	9월 27일	479	9,022	1,231	3D	전체관람가	미국
37	닌자보이 란타로 : 삼총사의 대모험	10월11일	1	0.2	0.04	2D	전체관람가	일본
38	프랑켄위니	10월11일	226	365	44	3D	12세관람가	미국
39	반딧불 언덕에서	11월 01일	14	11	1.6	2D	전체관람가	일본
40	밀림의 왕자 레오2	11월 08일	159	274	45	2D	전체관람가	일본
41	방과 후 미드나이터즈	11월 08일	4	0.7	0.1	2D	12세관람가	일본
42	극장판 전국 바사라	11월 15일	2	1.8	0.4	2D	15세관람가	일본
43	토끼와 거북이 패밀리가 떴다	11월 22일	2	2.7	0.4	3D	전체관람가	미국
44	가디언즈	11월 29일	472	8,190	1,071	3D	전체관람가	미국
45	밤의 이야기	11월 29일	21	88	12	2D	전체관람가	프랑스
46	악동 프레디 길들이기	11월 29일	2	0.3	0.1	3D	전체관람가	덴마크
47	신비의 법	11월 29일	2	7	0.9	2D	12세관람가	일본
48	메모리즈	12월 13일	6	3	0.4	2D	15세관람가	일본
49	극장판 파워레인저 : 캡틴포스 VS 미라클포스 199 히어로 대전	12월 13일	229	752	110	2D	전체관람가	일본
50	주먹왕 랄프	12월 19일	361	5,796	802	2D	전체관람가	미국
51	극장판 포켓 몬스터 베스트위시 큐레무 VS 성검사	12월 19일	275	1,337	343	2D	전체관람가	일본
52	극장판 포켓 몬스터 베스트위시 메로엣타의 반짝반짝 음악회	12월 19일	237	950	284	2D	전체관람가	일본
53	니코 : 산타 비행단의 모험	12월 25일	306	2,554	372	3D	전체관람가	핀란드
54	잠베지아 : 신비한 나무섬의 비밀	12월 26일	273	2,798	391	3D	전체관람가	미국
55	샌드맨과 꿈나라 모험	12월 25일	1	0.04	0.01	2D	전체관람가	독일,프랑스
56	빨간머리 앤 : 그린게이블로 가는 길	1월 10일	-	-	-	2D	전체관람가	일본
57	파이스토리	1월 10일	-	-	-	3D	전체관람가	미국,한국
58	몬스터 호텔	1월 17일	-	-	-	3D	전체관람가	미국
59	명탐정 코난 8 : 은빛 날개의 마술사	1월 24일	-	-	-	2D	전체관람가	일본
60	드래곤 헌터	1월 24일	-	-	-	3D	-	프랑스,독일
61	뽀로로의 슈퍼썰매 대모험	1월 24일	-	-	-	3D	전체관람가	한국
62	부도리의 꿈	1월 31일	-	-	-	2D	전체관람가	일본

* 출처: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12월 31일 기준

12월 애니메이션 DVD / 블루레이 판매 순위에서도 '메리다와 마법의 숲'이 강세를 지속했다. '메리다와 마법의 숲'은 〈YES24〉와 〈인터파크〉, 〈핫트랙스〉 DVD 차트에서 1위를 기록했다. 겨울방학을 앞두고 대형 신작 애니메이션의 개봉 및 DVD 출시가 뜸한 것이 장기간 상위권을 지키는 이유로 추정된다. 9월 이후 꾸준히 판매되며 차트에 자리잡은 '안데르센 명작동화 애니메이션 세트'는 〈알라딘〉에서 1위에 올랐고 충격적인 내용과 잔혹한 영상으로 2011년 일본 현지에서 화제를 뿌렸던 TV 애니메이션 '마법소녀 마도카 마기카'는 1위를 차지한 VOL.4-6를 비롯해 총 6편을 〈핫트랙스〉 블루레이 부문에 올려놓았다. 〈핫트랙스〉 블루레이 차트는 '메리다와 마법의 숲'을 제외하면 비교적 최근에 발표된 일본의 TV 애니메이션으로 순위가 채워져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애니메이션 DVD / 블루레이 판매 TOP 10 (12월)

순위	YES24			알라딘		
	제목	발매일	판매가	제목	발매일	판매가
1	메리다와 마법의 숲	2012-11-29	20,400	안데르센 명작동화 애니메이션 세트	2008-03-07	19,800
2	신세기 에반게리온 리뉴얼 일반판 Box Set	2007-12-28	39,800	메리다와 마법의 숲	2012-11-21	27,500
3	별을 쫓는 아이 : 아가르타의 전설 : 블루레이	2012-11-01	29,700	프린스 앤 프린세스	2003-07-30	2,900
4	마다가스카3 : 이번엔 서커스다	2012-11-15	20,400	마다가스카3 : 이번엔 서커스다	2012-11-15	20,400
5	메리다와 마법의 숲 : 블루레이	2012-11-29	27,500	디즈니 고전명작 10종 세트 Vol.1 뉴패키지	2004-12-01	7,500
6	라푼젤	2011-04-19	20,400	아더 크리스마스	2012-12-04	19,800
7	까이유 뉴 스페셜 Full Set	2009-06-01	56,280	[블루레이] 기동전사 건담 U.C Vol.5 : 초회판	2012-12-27	24,700
8	초속 5 센티미터 : 블루레이	2012-04-02	29,000	소중한 날의 꿈 : 한정판 커피북	2012-12-13	23,500
9	아이스 에이지3 : 공룡시대	2009-12-29	9,900	아이스 에이지4 : 대륙 이동설	2012-11-06	20,400
10	픽사 단편 Vol.2 : 블루레이	2012-11-14	27,500	철인 28호 박스세트	2012-07-27	9,800

순위	인터파크			핫트랙스	
	제목	발매일	판매가	블루레이	DVD
1	메리다와 마법의 숲 - DVD	2012-11-29	20,400	마법소녀 마도카 마기카 VOL.4-6	메리다와 마법의 숲
2	디즈니 베스트 애니메이션 12종 - DVD	2011-09-27	12,000	마법소녀 마도카 마기카 VOL.2 OST 포함 한정판	라이온 킹 D.E
3	아이스 에이지 4 : 대륙 이동설	2012-11-08	20,400	마법소녀 마도카 마기카 VOL.1 OST 포함 한정판	라푼젤
4	아더 크리스마스 - DVD	2012-12-04	19,800	마법소녀 마도카 마기카 VOL.3 OST 포함 한정판	아더 크리스마스
5	마다가스카3 : 이번엔 서커스다	2012-11-15	20,400	기동전사 건담 00 극장판 초회한정 콘티북	크리스마스 캐롤
6	토이 스토리3 - DVD	2010-10-19	14,800	기동전사 건담 U.C 유니콘 OVA VOL.5	아이스 에이지 4 : 대륙 이동설
7	니모를 찾아서 - DVD	2011-03-04	14,800	메리다와 마법의 숲	카툰 : 메이터의 놀라운 이야기
8	바비와 비밀의 성 - DVD	2011-03-17	9,900	마법소녀 마도카 마기카 VOL.5 OST 포함 한정판	업 + 라따뚜이
9	쿵푸팬더 2 - DVD	2012-01-13	20,400	마법소녀 마도카 마기카 VOL.4 OST 포함 한정판	라푼젤 + 뮬란
10	하울의 움직이는 성 일반판 - DVD	2005-12-27	26,100	기동전사 건담 U.C 유니콘 OVA VOL.1	라이온 킹 2

* 출처: YES24, 인터파크, 핫트랙스: 12월 기준 / 알라딘: 12월 5주 기준

애니메이션 VOD 다운로드 차트에서는 각 차트별로 다양한 영화들이 사랑받았다. 〈네이버 영화〉에서는 '메리다와 마법의 숲'이 4편이나 순위에 오른 가운데, 1위를 차지한 '폴라 익스프레스'를 포함해 크리스마스를 배경으로 한 애니메이션 3편이 순위에 포함되었다. 또한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전시회가 개최중인 팀 버튼 감독의 '유령신부'도 10위에 이름을 올렸다. 〈다음 영화〉에서는 11월에 이어 국산 애니메이션 '점박이: 한반도의 공룡 3D'가 1위를 수성했고, 〈네이트 호핀〉에서는 '마다가스카3'가 1위에 올랐다. 11월 말과 12월 25일 개봉작이었던 '악동 프레디 길들이기', '샌드맨과 꿈나라 모험'은 빠르게 VOD로 출시되며 순위에 진입했다. 〈T스토어〉 차트는 누적 다운로드 순위인 관계로 전월과 비교해 큰 변동이 없었다.

애니메이션 VOD 다운로드 TOP 10 (12월)

순위	네이버 영화			다음 영화		
	제목	상영시간	가격(원)	제목	상영시간	가격(원)
1	[대여] 폴라 익스프레스	100분	1,000	점박이 : 한반도의 공룡 3D	90분	4,000
2	[대여] 아더 크리스마스(자막판)	96분	1,800	빌리와 용감한 녀석들 3D	93분	2,000
3	[구매] 메리다와 마법의 숲(더빙판)	102분	5,500	마당을 나온 암탉	93분	2,000
4	[구매] 메리다와 마법의 숲(자막판)	102분	5,500	새미의 어드벤쳐	85분	1,000
5	[대여] 메리다와 마법의 숲(더빙판)	102분	3,500	악동 프레디 길들이기	84분	3,500
6	[구매] 크리스마스 캐롤(자막판)	96분	5,500	테드 : 황금도시 파이티티를 찾아서	91분	3,500
7	[대여]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	90분	1,000	모모와 다락방의 수상한 요괴들	120분	3,500
8	[구매] 점박이 : 한반도의 공룡 3D(2D버전)	90분	4,000	빨간모자의 진실	84분	1,000
9	[대여] 메리다와 마법의 숲(자막판)	102분	2,000	토르 : 마법망치의 전설	83분	2,000
10	[대여] 유령신부(자막판)	77분	1,000	닌자거북이 TMNT	87분	1,000
순위	네이트 호핀			T스토어		
	제목	상영시간	가격(원)	제목	다운로드	가격(원)
1	마다가스카 3	94분	1,800	모모와 다락방의 수상한 요괴들(자막판)	205,995	3,500
2	메리다와 마법의 숲(자막)	102분	3,500	내친구호비	162,211	0
3	서핑 업	85분	1,000	고 녀석 맛나겠다	85,715	1,500
4	마당을 나온 암탉	94분	1,000	강철의 연금술사 : 미로스의 성스러운 별	72,018	1,500
5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	90분	1,000	토르 : 마법망치의 전설	58,713	3,500
6	메리다와 마법의 숲(더빙)	102분	3,500	마다가스카 3	56,688	5,000
7	샌드맨과 꿈나라 모험	83분	4,000	돼지의 왕	45,117	2,000
8	신데렐라 3	73분	5,500	마당을 나온 암탉	42,718	1,000
9	신데렐라 2	73분	5,500	청의 엑소시스트	12,355	500
10	신데렐라	74분	5,500	소드 아트 온라인	11,607	600

* 출처: 네이버 N스토어, 다음 영화, 네이트 호핀, 티스토어 (2012. 12. 31. 기준)

08 캐릭터

12월 G마켓 캐릭터 상품 TOP 10에서는 전월대비 비교적 많은 변동이 있었다. 올 한해 국산 애니메이션 캐릭터 상품이 큰 사랑을 받은 〈작동완구〉, 〈캐릭터완구〉 부문에서는 '변신자동차 에볼루션 또봇X'와 '로보카폴리 변신로봇 4종'이 1위를 차지한 가운데 극장 애니메이션 개봉을 앞두고 있는 '뽀로로' 관련 상품 5종이 순위에 들었다. 〈승용완구〉에서는 겨울을 맞아 '하은맘 S-JOY 눈썰매'가 가장 많이 판매됐고 〈신생아/영아완구〉, 〈스포츠완구〉 부문에서는 '클래식 아기체육관', '포고스틱 스카이콩콩'처럼 활동적인 완구가 사랑받았다. 〈캐릭터/패션인형〉 부문에서는 '실바니안패밀리 인형 100종 특별모음전'이 1위를 차지했으나 '미미월드'도 자사의 제품 4종을 순위에 올리며 선전했다.

G마켓 캐릭터 상품 TOP 10 (12월)

순위	작동완구		캐릭터완구	
1	변신자동차 에볼루션 또봇X	영실업	로보카폴리 변신로봇 4종	아카데미과학
2	꼬마버스 타요 도로놀이	미미월드	뽀로로 아기청소기	-
3	로봇피쉬	오로라월드	뽀로로 봉제인형	미미월드
4	똑똑한 꼬마버스 타요	아이스쿨	파워레인저 캡틴포스 모바일럿폰/캡틴건	반다이
5	스핀고 350	데이비드토이	디즈니 애니메이션 프린세스 시리즈	-
6	토미카모음	-	프린세스 미미의 집	미미
7	KTE 3단 고속열차	-	소프트 코코 가방집	원앤원
8	뽀로로 자동 도미노	아이스쿨	똑똑한 꼬마버스 타요	아이스쿨
9	파워레인저 캡틴포스	반다이	앵그리버드 그랜드 도미노 세트	올림포스
10	뽀로로 어린이 버스	구원아이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구원아이
순위	**승용완구**		**신생아/영아완구**	
1	하은맘 S-JOY 눈썰매	-	클래식 아기체육관	피셔프라이스
2	리락쿠마 4in1 스프링카	고나토이즈	다기능 아기체육관	아이스쿨
3	3in1 스프링카 5종	금보토이	발차기 아기체육관	진영토이
4	2in1 기운센포크레인붕붕카	야야토이즈	해마인형	피셔프라이스
5	꼬마자동차붕붕카	햇살토이	30주년 기념 코지 자동차	리틀타익스
6	뽀로로 시즌 3 프리미엄 다기능 붕붕카	지나월드	꿍뽀 딸랑이 7종세트	-
7	아기체육관/ NEW 치코 4in1 카	치코	뉴첫걸음마	브이텍
8	빨간모자 아기차	스텝2	4in1 카	치코
9	내쇼날 눈썰매 2인용 눈썰매	내쇼날유통	정식수입 러닝테이블	립프로그
10	뽀로로 클래식 쿠페	삼우토이즈	뮤지컬 아기 사자 걸음마	피셔프라이스
순위	**캐릭터/패션인형**		**스포츠완구**	
1	실바니안패밀리 인형 100종 특별모음전	실바니안 패밀리	포고스틱 스카이쿵쿵	SBI Enterprises
2	정품 브라우니 인형	드림토이	스마일 덤블링 40인치(중형)	발레노
3	쥬쥬/바비/미미/드레스 인형옷	-	60인치(153cm)접이식 스마일 트램폴린	발레노
4	쿵지 아기나들이	원앤원	타카라토미 정품 배틀로봇 20	잼버스코리아
5	똥이 인형/ 똥이 미니룸	탑프로모션	미니 탁구대	이레스포츠
6	30주년 한정판 프린세스 미미	미미월드	펀치샌드백	베스트웨이
7	프린세스 미미의 집	미미월드	프리미어 보드형 축구게임	-
8	리틀미미 가방집	미미월드	어린이전용/초대형 140Cm/안전망 트렘폴린	-
9	NEW 패션미미 인형	미미월드	매직자동 골프세트+미니탁구세트	진영토이
10	코코 기저귀와 맘마놀이	원앤원	국가대표 양궁세트 석궁세트	바니랜드

* 출처: G마켓, 완구신문

12월 토이저러스 캐릭터 상품 순위에서도 〈남아완구〉를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순위 변동이 있었다. 〈유아완구〉로는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가, 〈여아완구〉로는 '실바니안 3층집 스페셜세트'가 1위를 차지했다. '뽀로로' 시리즈는 지난달에 이어 〈유아완구〉 부문에 3종이 올라갈 정도로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 〈야외완구〉 부문에서는 '오로라월드'의 '로봇피쉬' 시리즈를 밀어내고 '돼지정리함'이 1위에 올랐다. 교육완구, 보드게임 부문에서는 '레고'와 '앵그리버드'의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두 제품 모두 높은 인지도와 인기를 바탕으로 크리스마스 및 연말 가족 선물로 선호되었다.

토이저러스 캐릭터 상품 TOP 10 (12월)

순위	유아완구	여아완구
1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단독)실바니안 3층집 스페셜세트
2	로보카폴리)키보드럼	엔젤이 수다쟁이 삐약이집
3	FP 키즈 터프 디지털 카메라	비키 스마트 디카
4	타요_도로놀이	미미_터치엔젤폰
5	아이코닉스 빙글빙글 타요 주차장 놀이세트	개콘 정여사 브라우니(대)
6	피셔 러닝홈(한글)	개콘 정여사 브라우니(중)
7	말하는 중앙 차고지 놀이	미미디카
8	곤)달려라 곤	2757)불 들어오는 이층집 4종 세트
9	뽀로로)댄싱 노래방	프린세스 미미의 집
10	뽀로로)멜로디 스마트폰	장난꾸러기 메롱~밀크
순위	**남아완구**	**교육완구**
1	캡틴 DX 캡틴킹	레고)9450 에픽 드래곤 배틀
2	캡틴 모바일럿 폰	레고)9449 울트라 소닉 전차
3	영실업 또봇W쉴드온	레고)3185 슈마 캠프
4	캡틴 DX 수호신	레고)9446 마스터우의 드래곤전함
5	영실업 에볼루션또봇Y	레고)3189 하트레이크 시티 마구간
6	영실업 또봇트라이탄	레고)9448 사무라이X의 역습
7	캡틴)DX 매직 캡틴 킹	IM 클래식 기차테이블세트
8	영실업 또봇W	레고)3184 올리비아의 캠핑카 레고
9	바쿠간BG 크로서스 드래곤	리틀퓨처북 - 코코몽펜
10	캡틴)DX 마하팔콘	통큰블록 전동기차놀이
순위	**야외완구**	**보드게임**
1	[STEP2] 돼지정리함	아카데미 한밤의 유령사냥 2인용
2	오로라_로봇피쉬 열대어 시리즈	텀블링 몽키(한글판)
3	오로라_로봇피쉬 샤크시리즈	앵그리버드 메가 스매쉬
4	또봇 눈썰매 2인용	앵그리버드 새들의 습격
5	다용도 접이식 세발자전거	앵그리버드 메가 플링
6	또봇 눈썰매 1인용	앵그리버드 우주전쟁
7	오로라_로봇피쉬 어항세트	부루마블 게임
8	금메달 사격 다트	앵그리버드 크리스마스 보드게임
9	2012년형 뉴 스포츠 쿠페 2	할리갈리 디럭스
10	라바 WIND UP 레드	할리갈리

* 출처: 토이저러스(www.toysrus.co.kr) / 완구신문

09 방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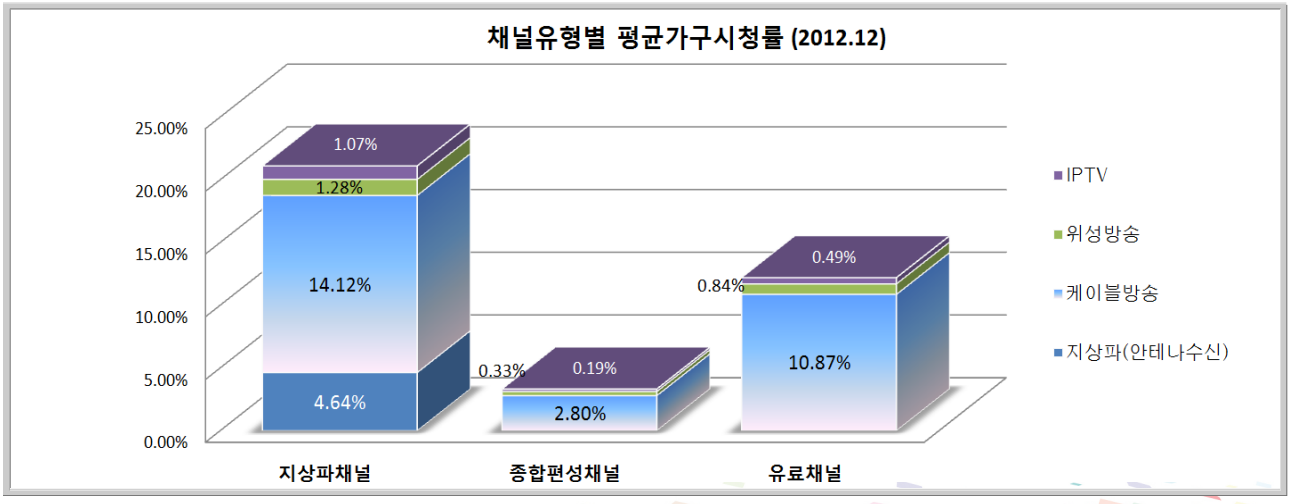
2012년 12월은 연말 특집방송과 대선 보도의 영향으로 11월 대비 4.09%p 증가한 38.09%의 높은 평균시청률을 기록했다. 가구별 평균시청시간은 하루 9시간 8분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고, 도달율은 전체 가구의 95.31%로 나타났다. 채널유형별로는 지상파채널이 21.11%(점유율 55.41%), 종합편성채널 3.33%(점유율 8.73%), 유료채널(110개) 12.21%(점유율 32.06%)를 기록했다. 11월 시청률과 비교하면 지상파채널의 시청률이 2.13%p 증가했고, 종합편성채널 시청률은 1.02%p, 유료채널(110개)의 시청률 역시 1.01%p 증가했다.

시청 플랫폼별 구분에 따르면 지상파채널의 경우 케이블방송을 통한 시청률이 14.12%로 가장 높았고, 지상파(안테나 수신)를 통한 시청비율이 4.64%, 위성방송(1.28%)과 IPTV(1.07%)가 그 뒤를 이었다. 종합편성채널 및 유료채널의 시청 플랫폼은 케이블방송을 이용한 시청률이 2.8%와 10.87%로 비교적 높았고, 위성방송과 IPTV에 의한 시청비율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널유형별 평균 가구시청률 (12월)

구분	플랫폼	12월 시청률	증감률 (11월 대비)	점유율	도달률	평균시청시간
지상파채널 (5개)	지상파(안테나수신)	4.64%	0.61%p	88.57%	16.17%	1:06:47
	케이블방송	14.12%	1.31%p	50.30%	66.74%	3:23:17
	위성방송	1.28%	0.07%p	50.72%	6.57%	0:18:26
	IPTV	1.07%	0.13%p	47.31%	6.07%	0:15:28
	합계	21.11%	2.13%p	55.41%	92.10%	5:03:57
종합편성채널 (4개)	케이블방송	2.80%	0.84%p	9.98%	41.54%	0:40:21
	위성방송	0.33%	0.11%p	13.13%	4.28%	0:04:46
	IPTV	0.19%	0.05%p	8.48%	3.52%	0:02:46
	합계	3.33%	1.02%p	8.73%	48.92%	0:47:53
유료채널* (110개)	케이블방송	10.87%	0.92%p	38.73%	64.91%	2:36:32
	위성방송	0.84%	0.03%p	33.15%	6.31%	0:12:03
	IPTV	0.49%	0.07%p	21.43%	5.87%	0:07:00
	합계	12.21%	1.01%p	32.06%	75.88%	2:55:51
전체 시청률*	총계	38.09%	4.09%p	100.00%	95.31%	9:08:32

* 지상파채널: KBS1, KBS2, MBC, SBS, EBS / 종합편성채널: JTBC, MBN, 채널A, TV조선 / 유료채널: 케이블, 위성, IPTV에서 제공되는 채널
* 시청률 수치는 각 채널별 전시간대 평균 가구시청률을 모두 합한 값임
* '유료채널(110개) 시청률'은 전체 500여 개 유료채널 중에서 AGB닐슨에서 선정한 상위 110개 채널만을 집계한 값이며, '전체 시청률'은 110개 유료채널 뿐만 아니라 모든 유료채널을 포함하는 값이기 때문에 기재된 채널유형별 시청률의 산술적 합계보다 높은 값으로 측정됨
* 출처: AGB닐슨 미디어리서치



12월 플랫폼별 시청채널 점유율에서는 지상파(안테나수신) 플랫폼의 경우 지상파채널에 대한 시청률이 88.57%, 기타 활동이 11.43%로 측정되었다. 케이블방송 수신 가정에서는 지상파채널(50.30%)을 보는 시간이 유료채널(38.73%) 및 종합편성채널(9.98%)을 보는 시간보다 높게 나타났다. 위성방송 플랫폼 역시 케이블방송 플랫폼과 비슷한 수치를 보였지만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시청비율이 13.13%로 3.15%p 높았다. IPTV 서비스 플랫폼의 경우 기타활동의 비중이 22.78%를 기록하며 타플랫폼에 비해 훨씬 높은 수치를 나타났다. 이는 IPTV의 특성상 실시간채널 시청뿐만 아니라 주문형 비디오를 이용하는 시간이 상당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연말과 대선을 맞아 볼거리가 풍성했던 이유로 기타활동(VOD, 비디오게임, DVD/블루레이 등)의 비중은 전월대비 2.27%p 감소했다.

방송서비스 플랫폼별 시청채널 점유율 (7~12월)

플랫폼	시청채널 유형	7월 점유율	8월 점유율	9월 점유율	10월 점유율	11월 점유율	12월 점유율
지상파 서비스 (안테나수신)	지상파채널 (5개)	87.72%	87.80%	88.43%	88.37%	88.17%	88.57%
	기타*	12.28%	12.20%	11.57%	11.63%	11.83%	11.43%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케이블방송 서비스	지상파채널 (5개)	51.25%	53.95%	51.34%	52.34%	50.98%	50.30%
	종합편성채널 (4개)	5.69%	5.77%	6.31%	6.49%	7.80%	9.98%
	유료채널 (110개)	41.34%	39.26%	41.28%	39.63%	39.62%	38.73%
	소계	98.28%	98.98%	98.93%	98.46%	98.40%	99.01%
	기타*	1.72%	1.02%	1.07%	1.54%	1.60%	0.99%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위성방송 서비스	지상파채널 (5개)	51.41%	56.27%	51.65%	53.17%	52.37%	50.72%
	종합편성채널 (4개)	7.12%	6.61%	8.16%	8.38%	9.38%	13.13%
	유료채널 (110개)	37.50%	33.75%	36.41%	34.73%	35.17%	33.15%
	소계	96.03%	96.63%	96.22%	96.28%	96.92%	97.00%
	기타*	3.97%	3.37%	3.78%	3.72%	3.08%	3.00%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IPTV 서비스	지상파채널 (5개)	47.32%	49.36%	47.34%	48.69%	46.94%	47.31%
	종합편성채널 (4개)	5.01%	4.97%	5.36%	5.26%	6.92%	8.48%
	유료채널 (110개)	18.70%	18.16%	20.48%	21.39%	21.09%	21.43%
	소계	71.03%	72.49%	73.18%	75.34%	74.95%	77.22%
	기타*	28.97%	27.51%	26.82%	24.66%	25.05%	22.78%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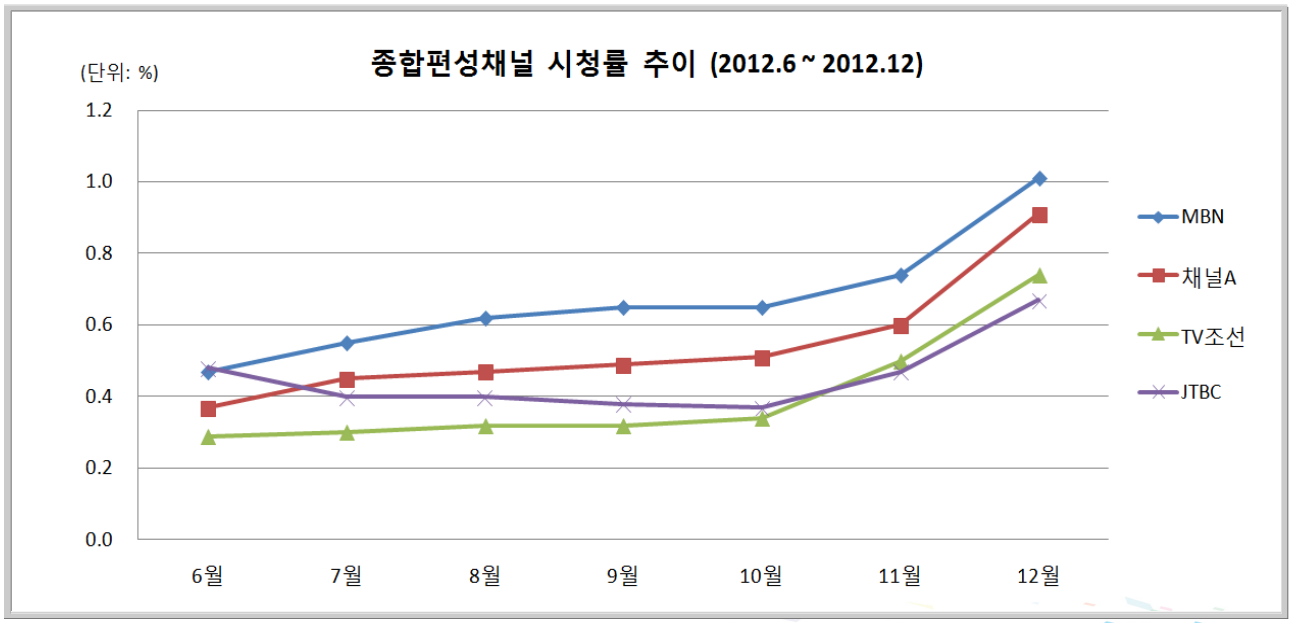
* '기타'는 전체 500개 유료채널 중 집계대상 110개 채널(AGB닐슨 선정)을 제외한 나머지 채널에 대한 시청 및 외부입력을 통한 TV 이용(DVD/블루레이, 비디오 게임, VOD) 등의 활동을 하는 시간을 집계한 값임
* 지상파채널: KBS1, KBS2, MBC, SBS, EBS / 종합편성채널: JTBC, MBN, 채널A, TV조선 / 유료채널: 케이블, 위성, IPTV에서 제공되는 채널
* 시청률 수치는 각 채널별 전시간대 평균 가구시청률을 모두 합한 값임
* 출처: AGB닐슨 미디어리서치, 한국콘텐츠진흥원 재구성

12월 채널별 시청률에서는 대부분의 채널의 시청률이 11월 대비 상승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대선을 맞아 특집 다큐와 보도프로그램을 집중 편성한 종합편성채널들의 시청률 상승이 가팔랐다. 아래의 표와 같이, MBN은 최초로 평균시청률 1%를 넘기며 MBC(3.99%)에 이은 5위를 기록했다. 채널A 역시 0.91%로 EBS를 제치고 6위를 기록하여 공영방송인 EBS의 시청률을 최초로 뛰어넘었다. 이같은 수치는 대선 관련한 보도 프로그램의 높은 시청률로 인한 것인만큼, 2013년 1월에는 12월에 비해 시청률이 하향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종합편성채널의 시청률이 출범초기에 비해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채널별 평균 가구시청률 TOP 30 (6~12월)

순위	채널	시청률 (%)							순위	채널	시청률 (%)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KBS1	5.10	5.54	6.39	5.43	5.58	5.80	6.45	16	OCN	0.33	0.32	0.32	0.33	0.31	0.30	0.39
2	KBS2	4.35	4.69	5.43	4.60	4.61	4.53	5.12	17	Dramax	0.25	0.25	0.24	0.24	0.26	0.28	0.33
3	SBS	4.11	4.64	4.77	4.04	4.14	4.29	4.53	18	채널CGV	0.29	0.29	0.30	0.31	0.29	0.29	0.33
4	MBC	3.26	3.45	4.02	3.65	3.67	3.46	3.99	19	코미디TV	0.26	0.31	0.29	0.25	0.25	0.28	0.30
5	MBN	0.47	0.55	0.62	0.65	0.65	0.74	1.01	20	Tooniverse	0.24	0.29	0.32	0.23	0.24	0.25	0.27
6	채널A	0.37	0.45	0.47	0.49	0.51	0.60	0.91	21	SUPER ACTION	0.24	0.23	0.24	0.23	0.21	0.22	0.26
7	EBS	0.68	0.71	0.67	0.68	0.70	0.75	0.82	22	E채널	0.22	0.23	0.22	0.21	0.20	0.21	0.23
8	TV조선	0.29	0.30	0.32	0.32	0.34	0.50	0.74	23	KBS JOY	0.20	0.24	0.23	0.21	0.22	0.23	0.23
9	YTN	0.56	0.65	0.70	0.68	0.59	0.68	0.73	24	MBC every1	0.20	0.25	0.28	0.22	0.21	0.20	0.23
10	JTBC	0.48	0.40	0.40	0.38	0.37	0.47	0.67	25	SCREEN	0.21	0.21	0.21	0.20	0.18	0.20	0.21
11	MBC드라마넷	0.46	0.51	0.53	0.60	0.62	0.60	0.62	26	DRAMAcube	0.12	0.12	0.15	0.15	0.16	0.16	0.20
12	KBS드라마	0.48	0.47	0.48	0.47	0.52	0.48	0.49	27	MBC SPORTS+	0.36	0.32	0.25	0.27	0.20	0.17	0.19
13	newsY	0.27	0.30	0.34	0.35	0.35	0.40	0.47	28	OBS	0.14	0.14	0.15	0.14	0.15	0.15	0.19
14	tvN	0.45	0.47	0.53	0.43	0.37	0.38	0.44	29	SBS ESPN	0.32	0.29	0.24	0.27	0.18	0.17	0.19
15	SBS플러스	0.44	0.43	0.38	0.35	0.41	0.48	0.43	30	SBSE!	0.17	0.17	0.18	0.14	0.16	0.16	0.18

* 출처: AGB닐슨 미디어리서치, 13대 전국, 모든 플랫폼 기준



전체 프로그램 가구시청률에서는 KBS의 강세가 돋보였다. 전체 시청률 상위 20개 중 13개가 KBS 방영 프로그램이었고, 해당장르 역시 드라마 · 시사/교양 · 예능 · 보도를 망라하며 선전하는 모습이었다. 9월 23.52%, 10월 29.95%, 11월 29.85%를 기록하며 1위에 올랐던 KBS2 주말연속극 '내 딸 서영이'는 12월에는 시청률 30%를 돌파하며 독주를 이어갔다. KBS1 일일연속극 '힘내요 미스터김'은 전작('별도 달도 따줄게')의 인기를 이어가며 24.9%의 시청률로 2위에 올랐다. MBC와 SBS 드라마는 '메이퀸(22.75%)'과 '마의(17.76%)', '그래도 당신(16.72%)'이 3, 6, 8위에 오르며 선방했고, KBS2 '개그콘서트'는 예능 중 가장 높은 21.03%를 기록했다.

그밖에 SBS와 KBS의 '연예대상'이 비교적 높은 시청률로 순위권에 들었고, 대선 개표방송 및 뉴스, 예능프로그램들이 순위권에 올랐지만, MBC는 드라마를 제외하고는 '무한도전'만이 20위권에 들며 부진을 보였다. 인기 프로그램을 장르별로 살펴보면, 20위권 내에서 〈예능〉이 7편(35%), 〈드라마〉와 〈보도〉가 6편(30%)을 기록했고, 〈시사/교양〉은 1편(5%)에 그쳤다.

전체 프로그램 가구시청률 TOP 20 (12월)

순위	채널명	프로그램명	장르	방영횟수	시청률 (%)
1	KBS2	주말연속극 (내 딸 서영이)	드라마	10	31.23
2	KBS1	일일연속극 (힘내요 미스터김)	드라마	20	24.90
3	MBC	주말특별기획드라마 (메이퀸)	드라마	8	22.75
4	KBS2	개그콘서트	예능	5	21.03
5	KBS1	KBS 9시뉴스	보도	31	19.96
6	MBC	창사특별기획 (마의)	드라마	8	17.76
7	KBS1	선택 대한민국 대통령선거 개표방송 2부	보도	1	17.43
8	SBS	일일드라마 (그래도 당신)	드라마	1	16.72
9	SBS	SBS 연예대상 2부	예능	1	16.32
10	KBS1	러브 인 아시아	시사/교양	3	16.03
11	KBS1	선택 대한민국 대통령선거 개표방송 3부	보도	1	15.88
12	KBS1	KBS뉴스광장 3부	보도	1	15.58
13	KBS2	해피선데이	예능	5	15.51
14	SBS	일요일이 좋다	예능	5	15.41
15	MBC	무한도전	예능	5	15.24
16	SBS	정글의 법칙 IN 아마존	예능	1	15.06
17	KBS2	TV소설 (사랑아 사랑아)	드라마	21	14.85
18	KBS1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	보도	4	14.83
19	KBS1	KBS 뉴스 7	보도	14	14.56
20	KBS2	KBS 연예대상	예능	2	14.40

* 출처: AGB닐슨 미디어리서치, 13대 전국, 모든 플랫폼 기준

전체 프로그램 시청률 TOP 20 장르별 현황

장르	2012. 5.	2012. 6.	2012. 7.	2012. 8.	2012. 9.	2012. 10.	2012. 11.	2012. 12.	12월 점유율
드라마	12	10	9	9	11	10	10	6	30%
시사/교양	3	2	3	4	4	4	4	1	5%
보도	2	1	2	1	1	2	1	6	30%
예능	3	7	4	5	4	4	5	7	35%
스포츠	-	-	1	-	-	-	-	-	-
음악	-	-	1	1	-	-	-	-	-

* 출처: AGB닐슨 미디어리서치, 한국콘텐츠진흥원 재구성

12월 종합편성채널/유료채널 프로그램 순위에서는 11월에 이어 대선 이슈로 인한 특집성 프로그램들이 대거 순위권에 올랐다. TV조선의 경우 '뉴스쇼 판' 등 6개가 상위권에 오르며 유료채널 뉴스 프로그램 중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고, MBN에서 방영한 '대통령 당선자 특집다큐 - 내가 걸어온 길 박근혜'는 3위에 오르며 당선인에 대한 높은 관심을 증명했다.

정규 프로그램 중에서는 드라마 중 유일하게 순위권에 오른 김수현 작가의 JTBC '무자식 상팔자'가 4.4%의 시청률로 1위에 올랐다. 높은 제작비 부담으로 인해 종합편성채널에서 드라마가 거의 사라진 상황에서 '무자식 상팔자'는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이고 있다. 한편 MBN은 〈보도〉 프로그램이 아닌 〈예능〉, 〈시사/교양〉에서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고수의 비법 황금알', '속풀이쇼 동치미', '천기누설' 등이 꾸준한 시청률을 보이고 있고, 이외에도 차별화된 제작역량을 바탕으로 다수의 프로그램들이 1% 이상의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다. 채널A는 '이영돈 PD의 먹거리 X파일', '박종진의 쾌도난마', '웰컴 투 시월드' 등의 프로그램이 시청자를 확보하고 있고, JTBC는 '무자식 상팔자', '인생병법 신의 한수' 이상 2개의 프로그램만이 20위권내에 올랐다.

시청률 상위 20개 프로그램의 장르별 구분에서는 〈보도〉프로그램이 9편을 기록했고, 〈시사/교양〉이 6편, 〈예능〉 프로그램이 4편으로 나타났다. 종합편성채널의 시청점유율 상승에 따라 일반 유료방송채널(케이블채널)의 프로그램들은 모두 순위권에서 밀려났다.

종합편성채널/유료채널 프로그램 가구시청률 TOP 20 (12월)

순위	채널명	프로그램명	장르	방영횟수	시청률 (%)
1	JTBC	JTBC특별기획드라마 (무자식 상팔자)	드라마	9	4.40
2	TV조선	대선특집 TV조선 뉴스쇼 판	보도	1	2.52
3	MBN	대통령 당선자 특집다큐 (내가 걸어온 길 박근혜)	시사/교양	1	2.44
4	채널A	이영돈PD의 먹거리 X파일	시사/교양	4	2.41
5	MBN	고수의 비법 황금알	예능	5	2.34
6	TV조선	TV조선 뉴스쇼 판	보도	2	2.21
7	MBN	속풀이쇼 동치미	예능	5	2.21
8	MBN	고 황수관 박사 추모특집 - 당신의 환한 미소를 기억합니다	시사/교양	1	2.13
9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	시사/교양	19	2.11
10	TV조선	특집 TV조선 뉴스쇼 판	보도	1	2.06
11	채널A	뉴스현장 2부	보도	1	2.03
12	MBN	천기누설	예능	3	1.97
13	채널A	뉴스현장 1부	보도	1	1.96
14	TV조선	특집 TV조선 뉴스쇼 판 1부	보도	15	1.95
15	채널A	대선 최종진단	보도	1	1.94
16	JTBC	인생병법 신의 한수	예능	3	1.92
17	TV조선	대선특집 TV조선 뉴스쇼 판 1부	보도	2	1.91
18	TV조선	대선특집 TV조선 뉴스쇼 판 2부	보도	2	1.88
19	MBN	님과 남사이	시사/교양	1	1.87
20	MBN	나는 자연인이다	시사/교양	3	1.79

* 출처: AGB닐슨 미디어리서치, 13대 전국, 유료방송(케이블·IPTV·위성) 가입가구 기준

종합편성채널/유료채널 프로그램 TOP 20 장르별 현황

장르	2012. 5.	2012. 6.	2012. 7.	2012. 8.	2012. 9.	2012. 10.	2012. 11.	2012. 12.	12월 점유율
드라마	8	4	2	1	-	1	1	1	5%
시사/교양	3	3	3	9	6	6	3	6	30%
보도	4	3	5	4	6	0	10	9	45%
예능	2	4	4	6	7	11	6	4	20%
스포츠	3	6	4	-	-	2	-	-	0%
영화	-	-	2	-	1	-	-	-	0%

* 출처: AGB닐슨 미디어리서치, 한국콘텐츠진흥원 재구성

12월 〈드라마〉 순위에서는 '내 딸 서영이', '힘내요 미스터김', '메이퀸'이 20% 이상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보도〉 부문에서는 KBS가 '9시 뉴스', '선택 대한민국 대통령선거 개표방송' 등으로 상위 5개 순위를 모두 점유하며 MBC와 SBS와의 경쟁에서 압승했고, 〈예능〉 부문에서는 KBS2의 '개그콘서트'가 부동의 1위를 유지했다. 〈시사/교양〉 부문에서는 KBS1의 '러브 인 아시아'가 16.03%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고, '6시 내고향',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가 그 뒤를 이었다.

장르별 프로그램 시청률 (12월)

1. 드라마

순위	채널명	프로그램명	방영횟수	시청률 (%)
1	KBS2	주말연속극 (내 딸 서영이)	10	31.23
2	KBS1	일일연속극 (힘내요 미스터김)	20	24.90
3	MBC	주말특별기획드라마 (메이퀸)	8	22.75
4	MBC	창사특별기획 (마의)	8	17.76
5	SBS	일일드라마 (그래도 당신)	1	16.72

2. 보도

순위	채널명	프로그램명	방영횟수	시청률 (%)
1	KBS1	KBS 9시뉴스	31	19.96
2	KBS1	선택 대한민국 대통령선거 개표방송 2부	1	17.43
3	KBS1	선택 대한민국 대통령선거 개표방송 3부	1	15.88
4	KBS1	KBS 뉴스광장 3부	1	15.58
5	KBS1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	4	14.83

3. 예능

순위	채널명	프로그램명	방영횟수	시청률 (%)
1	KBS2	개그콘서트	5	21.03
2	SBS	SBS 연예대상 2부	1	16.32
3	KBS2	해피선데이	5	15.51
4	SBS	일요일이 좋다	5	15.41
5	MBC	무한도전	5	15.24

4. 시사/교양

순위	채널명	프로그램명	방영횟수	시청률 (%)
1	KBS1	러브 인 아시아	3	16.03
2	KBS1	6시 내고향	20	14.17
3	SBS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3	14.11
4	KBS1	인간극장	20	11.73
5	SBS	궁금한 이야기 Y	4	11.47

* 출처: AGB닐슨 미디어리서치

성별 시청률 순위에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 '내 딸 서영이', '개그콘서트', '메이퀸', '힘내요 미스터김'의 순서로 시청률이 높았다. 하지만 시청률 수치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2~6%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시청률 순위에서는 〈13~18세〉에서 '개그콘서트', '무한도전', '일요일이 좋다'과 같은 예능 프로그램이 11% 대의 높은 시청률을 보였고, 〈19세 이상〉에서는 '내 딸 서영이' 등 다양한 드라마와 '개그콘서트'가 강세를 보였다. 〈60세 이상〉 연령대에서는 '힘내요 미스터김', '내 딸 서영이'와 더불어 '9시 뉴스', '대통령선거 개표 방송' 등의 보도 프로그램과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과 같은 교양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었다.

성별 / 연령별 프로그램 시청률 (12월)

1. 남성

순위	채널명	프로그램명	방영횟수	시청률 (%)
1	KBS2	주말연속극 (내 딸 서영이)	10	11.19
2	KBS2	개그콘서트	5	10.85
3	MBC	주말 특별기획드라마 (메이퀸)	8	7.84
4	KBS1	일일연속극 (힘내요 미스터김)	20	7.50
5	SBS	일요일이 좋다	5	7.49

2. 여성

순위	채널명	프로그램명	방영횟수	시청률 (%)
1	KBS2	주말연속극 (내 딸 서영이)	10	17.16
2	KBS2	개그콘서트	5	12.38
3	MBC	주말 특별기획드라마 (메이퀸)	8	12.01
4	KBS1	일일연속극 (힘내요 미스터김)	20	11.32
5	SBS	SBS 연예대상 2부	1	9.61

3. 13 - 18세

순위	채널명	프로그램명	방영횟수	시청률 (%)
1	KBS2	개그콘서트	5	11.41
2	MBC	무한도전	5	11.31
3	SBS	일요일이 좋다	5	11.02
4	SBS	가요대전 THE COLOR OF KPOP 2부	1	9.43
5	SBS	가요대전 THE COLOR OF KPOP 1부	1	7.98

4. 개인 19+

순위	채널명	프로그램명	방영횟수	시청률 (%)
1	KBS2	주말연속극 (내 딸 서영이)	10	15.72
2	KBS2	개그콘서트	5	11.31
3	MBC	주말특별기획드라마 (메이퀸)	8	11.24
4	KBS1	일일연속극 (힘내요 미스터김)	20	11.02
5	MBC	창사특별기획 (마의)	8	8.94

5. 개인 60+

순위	채널명	프로그램명	방영횟수	시청률 (%)
1	KBS1	일일연속극 (힘내요 미스터김)	20	28.99
2	KBS2	주말연속극 (내 딸 서영이)	10	25.51
3	KBS1	KBS 9시 뉴스	31	20.82
4	KBS1	선택 대한민국 대통령선거 개표방송 2부	1	19.44
5	KBS1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18	19.06

* 출처: AGB닐슨 미디어리서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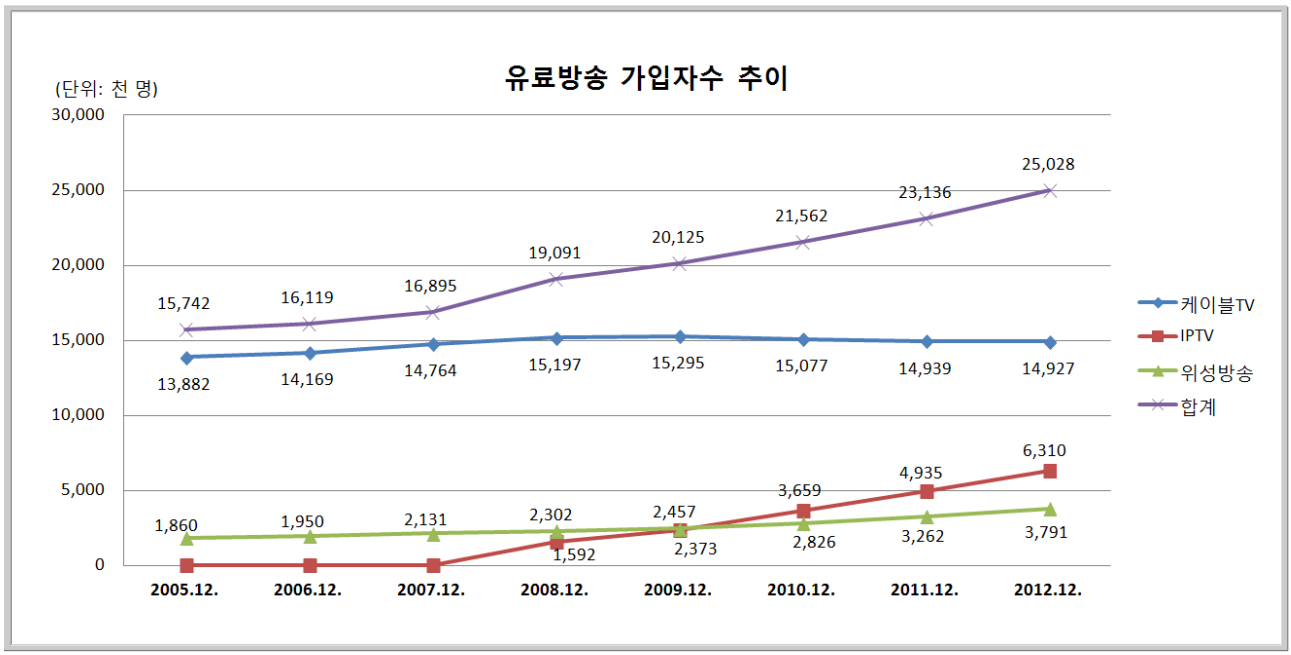
2012년 12월 기준 유료방송 가입자는 2,503만명 가량으로 추정된다. IPTV와 위성방송으로의 꾸준한 가입자 유입으로 인해 유료방송 가입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가입자수는 7년전의 1,574만명에 비해 1,000만명 가까이 증가한 수치이다. 유료방송 가입자의 증가에 따라 채널의 종류가 다변화되고 있으며, 매력적인 콘텐츠를 통한 시청자 확보 경쟁 또한 치열해지고 있다. 더불어 홈쇼핑, 주문형비디오 등의 부가서비스를 통한 수익창출 노력 및 'pooq', '티빙'과 같은 모바일기반 서비스로의 확장을 위한 경쟁 역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유료방송 가입자 현황

(단위: 천 명)

구분	2005. 12.	2006. 12.	2007. 12.	2008. 12.	2009. 12.	2010. 12.	2011. 12.	2012. 12.
케이블TV	13,882	14,169	14,764	15,197	15,295	15,077	14,939	*14,927
IPTV	-	-	-	1,592	2,373	3,659	4,935	6,310
위성방송	1,860	1,950	2,131	2,302	2,457	2,826	3,262	3,791
합계	15,742	16,119	16,895	19,091	20,125	21,562	23,136	25,028

* 케이블TV는 아날로그·디지털 합산, 11월 기준
* 출처: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kt skylife 공시자료



케이블TV는 2012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1,491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다. 9월과 비교하여 7천명 증가한 수치이지만 2009년 12월의 1,530만명에 비해서는 39만명 줄어든 것으로, 이는 IPTV와 스카이라이프의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케이블가입자가 잠식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2012년 10월 현재 디지털 케이블방송 가입자는 503만명으로, 600만명을 돌파한 IPTV에 비해 오히려 적은 실정이다. 케이블TV 업계는 디지털 기반으로 시장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KT, SKT 등 자본 및 기술, 마케팅 여력이 풍부한 통신사업자들의 IPTV · 위성방송 서비스에 가입자를 빼앗기고 있다. 방송통신융합과 스마트TV로의 진화라는 추세에 발맞추기 위해 케이블TV 사업자들 역시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과 스마트TV 서비스 개발을 서두르며 통신사업자들과 경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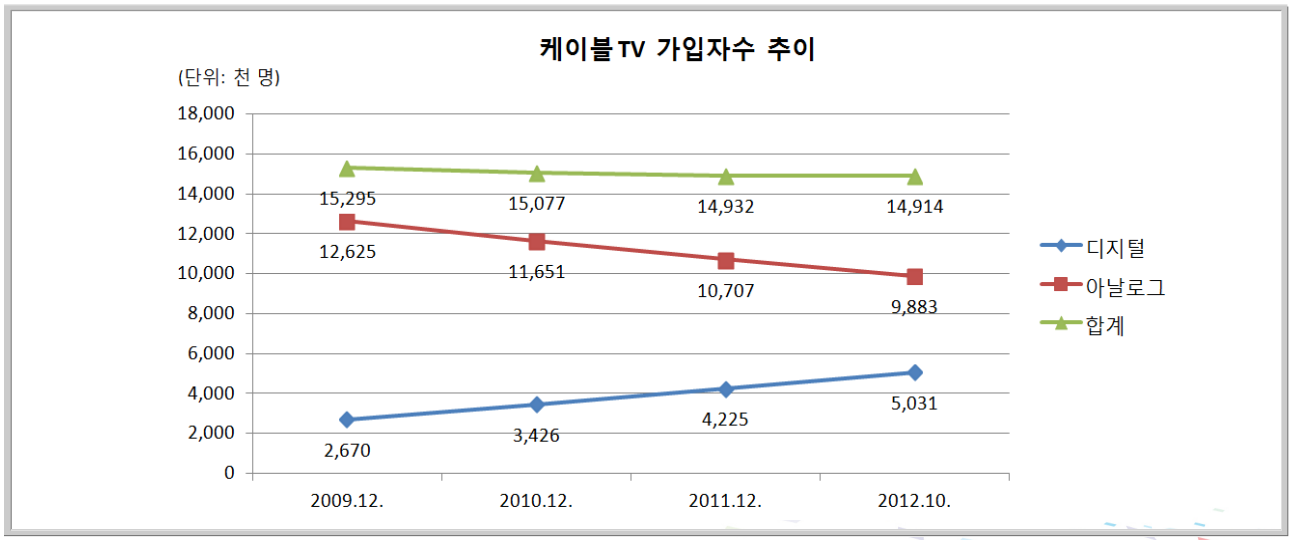
케이블TV 가입자 현황

1. 케이블TV 지역별 가입자 (대수 기준)

(단위: 천 명)

지역	디지털 방송				아날로그 방송				합계			
	2009.12.	2010.12.	2011.12.	2012. 10.	2009.12.	2010.12.	2011.12.	2012. 10.	2009.12.	2010.12.	2011.12.	2012. 10.
서울	1,178	1,401	1,614	1,758	1,973	1,667	1,384	1,222	3,151	3,069	2,998	2,980
부산	241	304	362	448	1,011	931	849	767	1,252	1,235	1,212	1,215
대구	43	62	88	137	813	783	766	719	856	844	854	856
인천	190	239	285	329	569	491	420	364	759	730	706	693
광주	6	15	36	46	526	528	507	500	531	543	544	545
대전	16	23	21	30	466	461	499	497	481	483	521	527
울산	57	88	117	126	362	327	304	295	419	415	421	421
경기	486	657	845	1,028	2,610	2,320	2,057	1,837	3,095	2,977	2,903	2,865
강원	15	32	64	101	494	466	418	366	509	498	483	468
충북	54	73	90	113	334	338	321	298	388	412	411	411
충남	27	46	71	106	531	512	487	455	558	558	559	562
전북	19	27	40	67	451	435	423	401	470	462	463	468
전남	9	15	37	66	516	510	489	471	525	525	527	537
경북	48	96	128	190	877	831	780	726	924	927	909	916
경남	240	294	356	419	950	917	870	839	1,190	1,211	1,227	1,259
제주	43	53	62	67	141	134	125	124	184	187	188	191
합계	2,670	3,426	4,225	5,031	12,625	11,651	10,707	9,883	15,295	15,077	14,932	14,914
비율	17.5%	22.7%	28.3%	33.7%	82.5%	77.3%	71.7%	66.3%	100.0%	100.0%	100.0%	100.0%

* 출처: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 10월 31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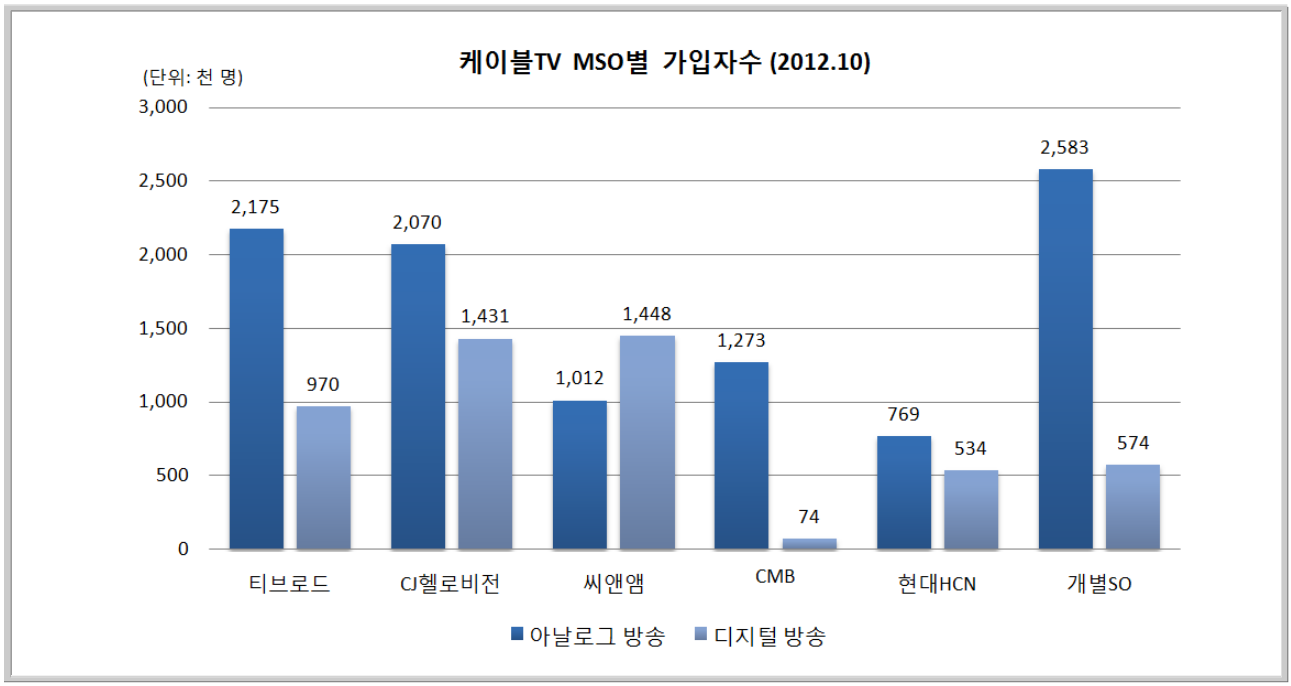
10월 말 케이블TV MSO별 가입자 기준으로는 'CJ헬로비전'이 350만명(9월 대비 1만명 증가)으로 가장 많은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하지만 디지털방송 가입자 수에서는 '씨앤앰(145만)'이, 아날로그방송 가입자 수는 '티브로드'(218만, 9월 대비 2만명 감소)가 가장 많았다. '씨앤앰'은 디지털방송 가입자 비중이 높은 유일한 사업자였으며, 개별SO들은 아날로그 방송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2012년 12월을 끝으로 아날로그 전파 송신이 끝났지만, 현재 시점에서 아날로그 방송 수신사들이 988만명에 달하는 실정이기에, 케이블TV 사업자들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디지털 전환과정에서 타서비스(IPTV, 위성방송)로의 이탈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케이블TV MSO별 가입자 (대수 기준)

(단위: 천 명)

구분	SO수	디지털 방송				아날로그 방송				합계			
		2009.12.	2010.12.	2011.12.	2012. 10.	2009.12.	2010.12.	2011.12.	2012. 10.	2009.12.	2010.12.	2011.12.	2012. 10.
티브로드	22개사	464	590	757	970	2,947	2,644	2,427	2,175	3,411	3,234	3,185	3,146
CJ헬로비전	19개사	785	995	1,197	1,431	1,756	2,102	2,249	2,070	2,540	3,097	3,446	3,501
씨앤앰	18개사	741	953	1,394	1,448	1,421	1,316	1,317	1,012	2,161	2,269	2,712	2,460
CMB	9개사	29	43	51	74	1,256	1,247	1,293	1,273	1,285	1,290	1,344	1,347
현대HCN	8개사	296	386	448	534	1,055	952	869	769	1,351	1,338	1,318	1,303
소계	76개사	2,508	3,172	3,850	4,457	9,255	8,504	8,157	7,299	11,763	11,676	12,007	11,757
개별SO	18개사	162	253	375	574	3,370	3,147	2,549	2,583	3,532	3,400	2,924	3,157
합계	94개사	2,670	3,426	4,225	5,031	12,625	11,651	10,707	9,883	15,295	15,077	14,932	14,914

* 출처: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 10월 31일 기준



12월 IPTV 가입자는 11월 대비 16만7000명 증가한 631만명으로 나타났다. 통신사별 가입자는 KT 'olleh tv'가 385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SKT 'BTV'가 140만명, 'U+TV'가 106만명을 기록하고 있다. 1위 사업자인 KT와 2, 3위 사업자인 LG U+, SKT의 가입자수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KT의 'olleh tv'가 9만명의 가입자 증가세를 보인 반면, 'BTV'와 'u+ tv'는 각각 5만명, 3만명 증가에 그쳤다.

스카이라이프 가입자수는 379만명으로 11월에 비해 5만명 증가했다. 스카이라이프 가입자는 OTS상품(올레TV스카이라이프)을 중심으로 견조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스카이라이프가 KT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KT는 도합 800만명에 가까운 가입자를 확보하며 유료방송 사업시장에서 독주하고 있다.

한편 IPTV 서비스의 스마트TV 결합 추세는 가속화되는 모습이다. 작년 10월 16일에 LG U+가 구글TV 플랫폼을 탑재한 'u+tv G'를 출시한 이후 3개월만에 10만 명의 가입자를 돌파한 데 이어, KT가 2013년 1월 9일 olleh tv 스마트팩을 출시했다. 이 서비스는 안드로이드 4.0을 운영체제로 도입한 것으로 월 1000원의 추가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SKT 역시 연내로 '클라우드 스트리밍 서비스'를 적용한 IPTV를 출시할 예정이다. 삼성 · 엘지가 출시한 스마트TV의 판매량이 100만대를 넘은 가운데,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스마트TV 플랫폼 시장에 뛰어듦으로써 'T커머스'라 불리는 TV기반 유료콘텐츠 소비의 증가추세는 가속화될 전망이다.

IPTV / 스카이라이프 가입자 현황

1. IPTV 가입자

(단위 : 천 명)

구분	2009. 12.	2010. 12.	2011. 12.	2012. 1.	2012. 2.	2012. 3.	2012. 4.	2012. 5.	2012. 6.	2012. 7.	2012. 8.	2012. 9.	2012. 10.	2012. 11.	2012. 12.
olleh tv (KT)	1,009	1,727	2,810	2,885	2,976	3,067	3,162	3,245	3,338	3,419	3,496	3,577	3,663	3,758	3,846
BTV (SKT)	402	735	883	912	947	987	1,031	1,076	1,121	1,167	1,209	1,253	1,299	1,350	1,403
u+tv (LG U+)	330	624	877	886	896	904	915	931	945	958	969	987	1,008	1,035	1,061
합계	1,741	3,086	4,570	4,683	4,819	4,958	5,108	5,252	5,404	5,544	5,674	5,817	5,970	6,143	6,3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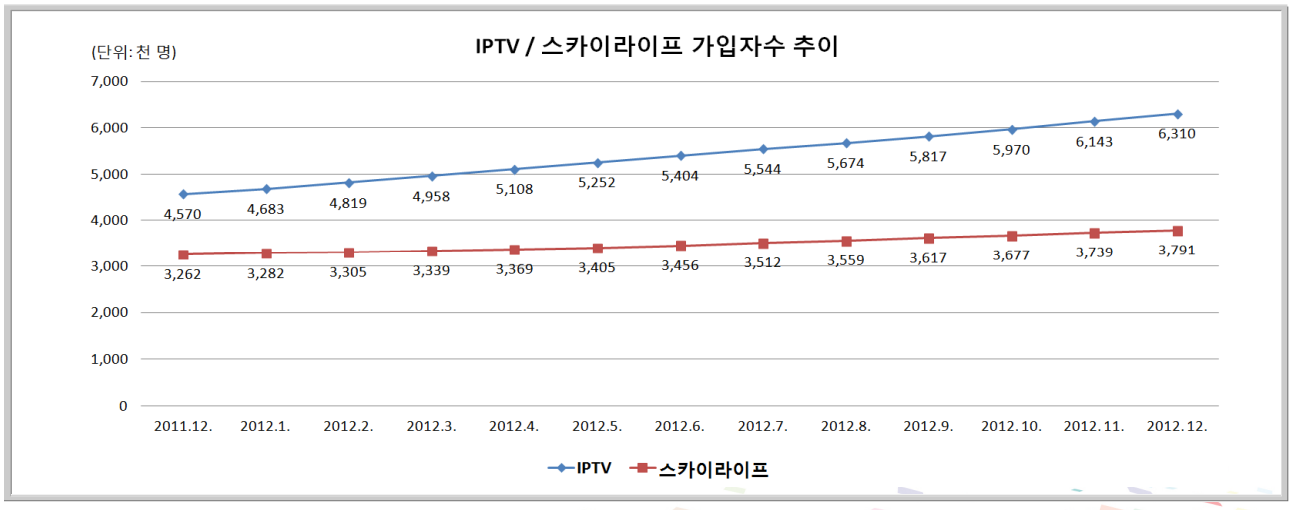
* 실시간 채널 기준, 백 단위에서 반올림
* 출처: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2. 스카이라이프 가입자

(단위 : 천 명)

구분	2009. 12.	2010. 12.	2011. 12.	2012. 1.	2012. 2.	2012. 3.	2012. 4.	2012. 5.	2012. 6.	2012. 7.	2012. 8.	2012. 9.	2012. 10.	2012. 11.	2012. 12.
SkyLife 단품	2,371	2,183	2,058	2,049	2,039	2,034	2,031	2,032	2,032	2,029	2,024	2,023	2,021	2,021	2,018
OTS*	87	643	1,204	1,233	1,266	1,305	1,338	1,374	1,425	1,483	1,536	1,594	1,656	1,718	1,773
합계	2,457	2,826	3,262	3,282	3,305	3,339	3,369	3,405	3,456	3,512	3,559	3,617	3,677	3,739	3,791

* OTS: 올레TV스카이라이프 상품, 백 단위에서 반올림
* 출처: kt skylife (www.ktskylife.co.kr)



10 광고

12월 인터넷 노출형 광고는 상위 30개 업체의 매출액이 660억원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10월의 601억원, 11월의 649억에 비해 증가한 것이다. 이 같은 증가추세는 대선으로 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39억에 이르는 노출형광고를 집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매체별 집계에 따르면 노출형 광고시장의 3대 사업자인 '네이버', '다음', '네이트'는 각각 34.7%, 30.4%, 15.0%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네이버는 전월 32.6%에 비해 점유율이 2.1%p 상승했는데 이는 2.7%의 점유율을 지니던 야후코리아의 점유율을 상당부분 가져온 것이다. 11월 4위에 올랐던 야후코리아는 연말에 사업을 철수하며 12월 순위에서는 순위권에 들지 못했다. 5위부터 6위까지는 언론사 사이트가 순위권을 점유했고, 7위에 판도라, 8위에 맥스무비가 오르며 전월대비 순위가 상승했다.

인터넷 노출형 광고 현황

1. 매체별 인터넷 노출형 광고 TOP 30 (12월)

순위	매체	광고수	캠페인수	브랜드수	점유율	광고비 (천원)
1	naver.com	1,386	801	376	34.7%	24,343,442
2	daum.net	1,237	688	341	30.4%	21,331,174
3	nate.com	830	376	204	15.0%	10,543,760
4	joinsmsn.com	505	231	124	2.0%	1,418,230
5	chosun.com	389	167	112	1.1%	769,703
6	donga.com	436	253	194	0.9%	631,050
7	pandora.tv	317	219	159	0.9%	605,822
8	maxmovie.com	371	99	60	0.7%	492,138
9	sportsseoul.com	475	298	204	0.7%	464,856
10	facebook.com	487	356	297	0.6%	394,587
11	yonhapnews.co.kr	254	217	172	0.6%	387,288
12	ohmynews.com	322	191	149	0.5%	339,399
13	etnews.com	160	79	66	0.5%	317,329
14	ytn.co.kr	437	256	199	0.4%	310,676
15	mk.co.kr	288	102	62	0.4%	310,545
16	zdnet.co.kr	174	90	56	0.4%	310,213
17	inven.co.kr	339	88	53	0.4%	301,532
18	hani.co.kr	442	294	230	0.4%	294,481
19	khan.co.kr	435	229	175	0.4%	286,920
20	dreamwiz.com	261	145	111	0.3%	224,231
21	pressian.com	292	162	129	0.3%	220,260
22	hankyung.com	231	121	91	0.3%	214,570
23	danawa.com	146	81	50	0.3%	213,581
24	hankooki.com	112	55	38	0.3%	209,279
25	gamemeca.com	220	67	38	0.3%	196,274
26	kukinews.com	288	159	138	0.3%	192,876
27	kbs.co.kr	93	44	37	0.3%	185,980
28	ezday.co.kr	242	67	55	0.3%	180,612
29	moneta	97	52	38	0.3%	179,611
30	diodeo.com	218	108	87	0.2%	171,374
합계		11,484	6,095	4,045	94.2%	66,041,793

* 해당 수치는 인터넷매체의 고정 광고지면에 게재된 노출형광고를 장치를 통해 수집, 분류 및 통계처리하여 광고비 산출모형을 통해 계산된 값으로,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출처: 리서치애드(www.researchad.com)

12월 광고주별 인터넷 노출형 광고에서는 12월 19일에 있었던 대선의 영향이 확연히 드러났다. 새누리당(1위), 민주통합당(3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8위) 등 선거관련 정당 및 위원회가 50억여원의 광고를 집행하면서 대거 상위권에 올랐다. SK플래닛, 삼성전자, 넥슨 등의 기업은 11월 대비 광고집행액이 다소 감소했다. SK플래닛은 22억에서 19억으로, 삼성전자는 25억에서 17억으로, 넥슨은 18억에서 15억원으로 줄어들었지만 이는 대선으로 인한 일시적인 집행감소로 보인다.

상위 30대 광고주의 인터넷 노출형 광고 점유율은 전체의 41.1%(288억원)으로 나타났다. 집행금액은 10월(265억원), 11월(275억원) 대비 증가하고 있고, 전체 노출형 광고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0.1%였던 11월에 비해 1%p 상승했다.

2. 광고주별 인터넷 노출형 광고 TOP 30 (12월)

순위	광고주	광고수	캠페인수	점유율	광고비 (천원)
1	새누리당	241	19	2.9%	2,007,082
2	SK플래닛	155	35	2.8%	1,942,892
3	민주통합당	521	20	2.6%	1,854,852
4	삼성전자	234	41	2.4%	1,686,895
5	넥슨	417	36	2.2%	1,523,143
6	이베이코리아	216	119	2.0%	1,376,061
7	에이블씨엔씨	31	2	1.7%	1,171,485
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86	11	1.7%	1,158,015
9	서울디지털대학교	95	8	1.6%	1,102,876
10	CJEnM게임즈	109	24	1.5%	1,078,525
11	현대자동차	78	7	1.5%	1,059,777
12	현대캐피탈	62	12	1.3%	946,543
13	밝은성모안과	52	4	1.3%	926,669
14	CJEnM픽쳐스	124	41	1.3%	897,977
15	호텔신라	13	3	1.1%	798,850
16	고려사이버대학교	54	1	1.1%	760,947
17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45	6	1.1%	742,094
18	엑스엘게임즈	108	7	1.0%	707,729
19	비씨카드	139	11	1.0%	695,452
20	로엔엔터테인먼트	69	5	1.0%	685,934
21	서울사이버대학교	65	2	0.9%	647,365
22	삼성화재	19	3	0.9%	642,141
23	경희사이버대학교	67	3	0.9%	638,089
24	나무인터넷	53	39	0.9%	633,949
25	롯데쇼핑롯데엔터테인먼트	83	24	0.8%	543,196
26	소니픽쳐스릴리징월트디즈니스튜디오스코리아	37	18	0.8%	539,910
27	엔터메이트	29	18	0.7%	523,282
28	이수호	82	4	0.7%	499,441
29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36	1	0.7%	495,643
30	UPI코리아	26	7	0.7%	474,623
합계		3,346	531	41.1%	28,761,437

* 해당 수치는 인터넷매체의 고정 광고지면에 게재된 노출형광고를 장치를 통해 수집, 분류 및 통계처리하여 광고비 산출모형을 통해 계산된 값으로,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출처: 리서치애드(www.researchad.com)

12월 브랜드별 인터넷 노출형 광고에서는 역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각 1, 2, 4위에 올랐고, 서울디지털대학교, 고려사이버대학교, 경희사이버대학교, 한국사이버대학교,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등 사이버대학 관련 광고가 5개나 순위권에 오르는 한편, 모두의 마블, 아키에이지 등 신작게임과 멜론, 스마트월렛과 같은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은 광고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먹왕 랄프'와 '레미제라블' 등 영화 광고도 4억원 이상 집행되었고, 현대캐피탈다이렉트론,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비씨카드 등 금융업종의 광고와 강남밝은성모안과, SKY하늘안과 등 의료업종 광고도 순위권에 들었다. 상위 30대 브랜드의 인터넷 노출형 광고 점유율은 전체의 34.2%(239억원)으로 나타났다.

3. 브랜드별 인터넷 노출형 광고 TOP 30 (12월)

순위	브랜드	광고수	캠페인수	점유율	광고비 (천원)
1	새누리당	241	19	2.9%	2,007,082
2	민주통합당	521	20	2.6%	1,854,852
3	미샤	28	1	1.7%	1,170,873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86	11	1.7%	1,158,015
5	서울디지털대학교	95	8	1.6%	1,102,876
6	삼성애니콜	71	14	1.5%	1,032,575
7	G마켓	99	67	1.4%	953,902
8	현대캐피탈다이렉트론	48	9	1.3%	926,773
9	강남밝은성모안과	52	4	1.3%	926,669
10	현대자동차	68	6	1.3%	916,934
11	신라면세점	13	3	1.1%	798,850
12	모두의마블	19	10	1.1%	768,168
13	고려사이버대학교	54	1	1.1%	760,947
14	아키에이지	108	7	1.0%	707,729
15	Melon	69	5	1.0%	685,934
16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16	4	1.0%	670,778
17	삼성애니카	19	3	0.9%	642,141
18	경희사이버대학교	67	3	0.9%	638,089
19	위메이크프라이스	53	39	0.9%	633,949
20	비씨카드	106	6	0.9%	632,580
21	서울사이버대학교	43	1	0.9%	630,128
22	11번가	71	23	0.8%	557,564
23	이수호	82	4	0.7%	499,441
24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36	1	0.7%	495,643
25	주먹왕랄프	24	14	0.7%	492,407
26	레미제라블	22	6	0.7%	474,178
27	SKY하늘안과	5	2	0.7%	456,939
28	스마트월렛	17	1	0.6%	448,382
29	K7	45	3	0.6%	435,315
30	쿠팡	69	24	0.6%	424,135
합계		2,247	319	34.2%	23,903,848

* 해당 수치는 인터넷매체의 고정 광고지면에 게재된 노출형광고를 장치를 통해 수집, 분류 및 통계처리하여 광고비 산출모형을 통해 계산된 값으로,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출처: 리서치애드(www.researchad.com)

12월 검색광고시장 광고주 수는 145,000개를 기록했다. 146,000개를 기록했던 11월 대비 0.7%(1,000개)가 감소했다. 매체별 점유율에서는 '네이버'가 전월대비 2.6%p 증가한 42.0%를 기록하며 점유율 상승추세를 이어갔다. '오버추어-네이버 공동집행'은 -0.3%p 하락한 11.3%를 기록했고, '네이트'는 -1.3%p 하락한 10.0%로 나타나며 향후 한자리수로의 점유율 하락이 예상된다.

시장 전체적인 구도는 네이버의 독주가 굳어지는 가운데, 한국시장에서 철수하는 오버추어의 검색광고 물량을 다음 등의 포털에서 어느 정도 가져갈지의 여부가 주목된다. 특히 '다음'은 자체 검색광고 서비스를 런칭하며 기존 오버추어 광고주들을 상대로 영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서는 오버추어의 철수와 더불어 네이버의 점유율이 상승하는 반면, 다른 사업자들은 큰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검색광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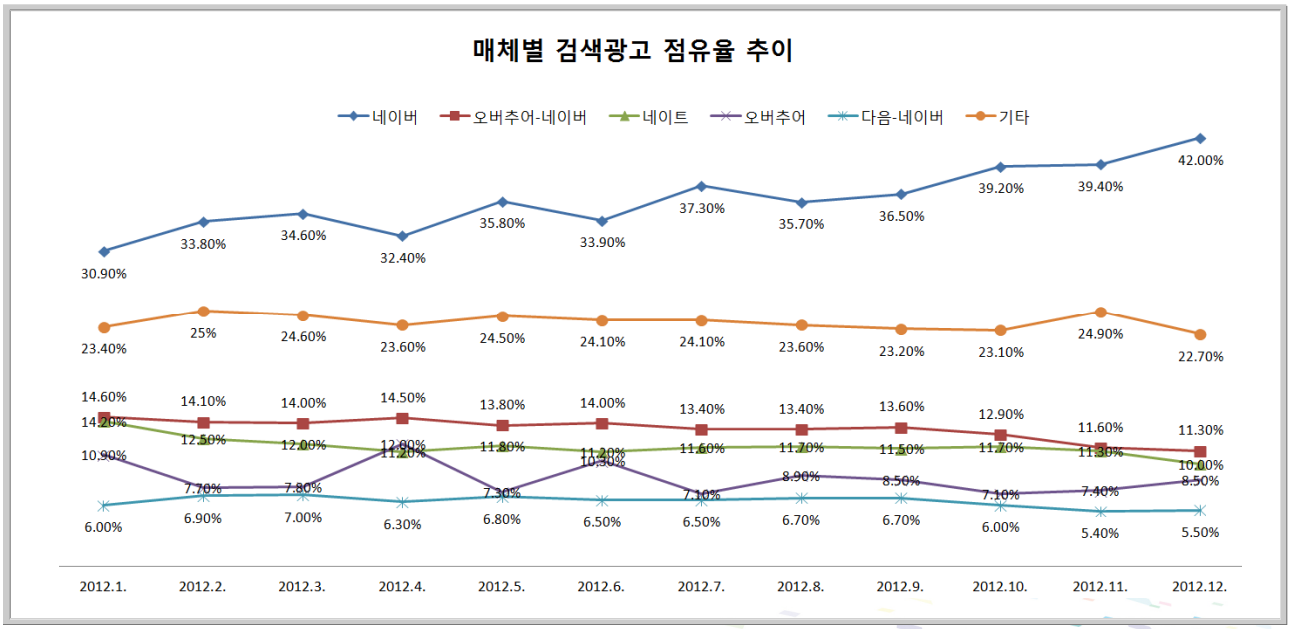
1. 전체 광고주 수 (2012. 1. ~ 2012. 12.)

구분	2012. 1.	2012. 2.	2012. 3.	2012. 4.	2012. 5.	2012. 6.	2012. 7.	2012. 8.	2012. 9.	2012. 10.	2012. 11.	2012. 12.	증감율
광고주 수	151,500	137,600	140,100	148,000	142,500	148,000	144,000	145,000	147,000	144,000	146,000	145,000	-0.7%

2. 매체별 점유율 (2012. 1. ~ 2012. 12.)

구분	2012. 1.	2012. 2.	2012. 3.	2012. 4.	2012. 5.	2012. 6.	2012. 7.	2012. 8.	2012. 9.	2012. 10.	2012. 11.	2012. 12.	증감율
네이버	30.9%	33.8%	34.6%	32.4%	35.8%	33.9%	37.3%	35.7%	36.5%	39.2%	39.4%	42.0%	2.6%p
오버추어-네이버	14.6%	14.1%	14.0%	14.5%	13.8%	14.0%	13.4%	13.4%	13.6%	12.9%	11.6%	11.3%	-0.3%p
네이트	14.2%	12.5%	12.0%	11.2%	11.8%	11.2%	11.6%	11.7%	11.5%	11.7%	11.3%	10.0%	-1.3%p
오버추어	10.9%	7.7%	7.8%	12.0%	7.3%	10.3%	7.1%	8.9%	8.5%	7.1%	7.4%	8.5%	1.1%p
다음-네이버	6.0%	6.9%	7.0%	6.3%	6.8%	6.5%	6.5%	6.7%	6.7%	6.0%	5.4%	5.5%	0.1%p
기타	23.4%	25%	24.6%	23.6%	24.5%	24.1%	24.1%	23.6%	23.2%	23.1%	24.9%	22.7%	-2.2%p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 오버추어 광고 : 검색 포털에서 키워드 기입 시 "스폰서링크" 이름으로 노출되는 CPC 광고 상품
* 출처: 닐슨 서치안 (www.searchian.com)



11 지식정보

주요 방송통신서비스 가입자는 2012년 11월 말 기준으로 시내전화 1,830만명, 이동전화 5,346만명, IPTV 631만명, 휴대인터넷(와이브로) 101만명을 기록하고 있다. 시내전화 가입자는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이동전화 · IPTV · 초고속인터넷 · 와이브로 가입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수는 시내전화 가입자수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되며, 고속 휴대인터넷 서비스인 와이브로는 가입자 100만명을 달성했지만, 2011년 10월 출범 이후 13개월만에 1,400만명(11월 기준)을 확보한 LTE 서비스와 비교하면 초라한 수준이다. 이동전화 가입자수는 5,346만명으로 국가인구수(5,093만명, 2012년 11월)를 추월하며 증가세가 다소 둔화하고 있지만, 개인이 복수의 기기를 지니는 경우(태블릿 등)가 늘어남에 따라 월 10만명 정도의 가입자 증가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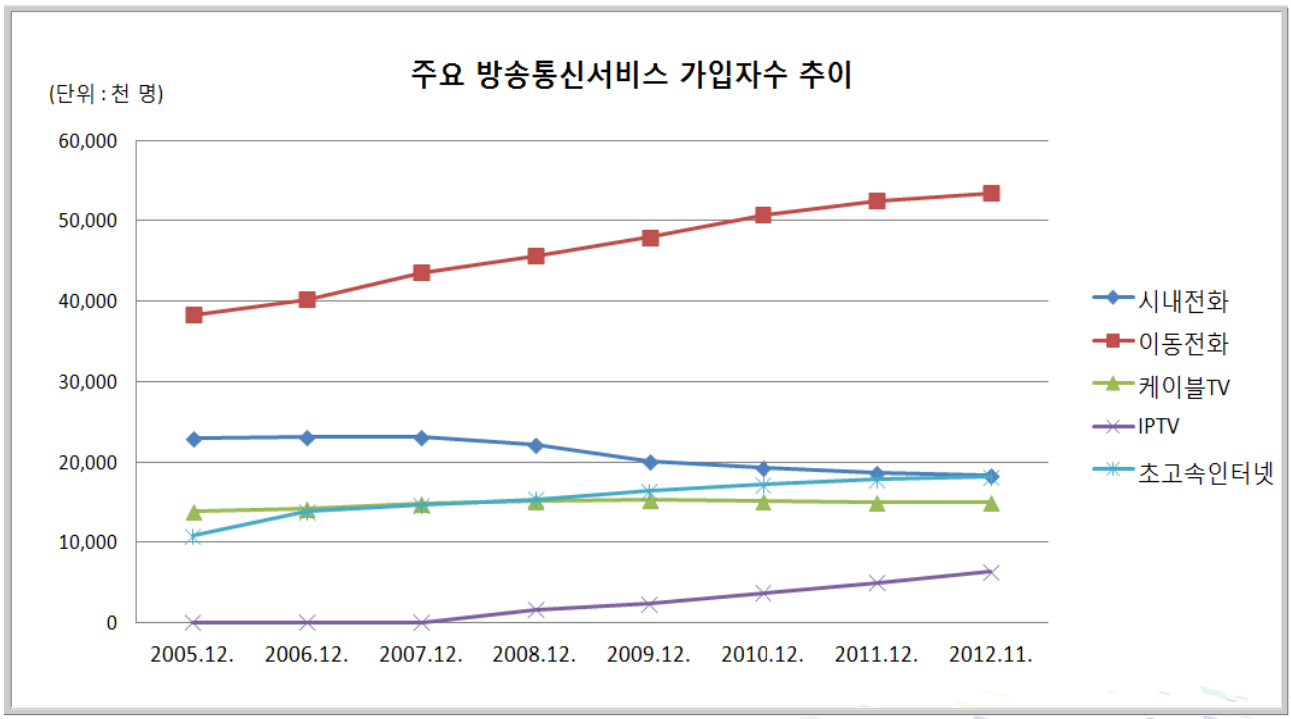
방송통신서비스 가입자 현황

1. 주요 방송통신서비스 가입자 (2005 ~ 2012. 11.)

(단위 : 천 명)

구분	2005. 12.	2006. 12.	2007. 12.	2008. 12.	2009. 12.	2010. 12.	2011. 12.	2012. 11.
시내전화	22,920	23,119	23,130	22,131	20,089	19,273	18,632	18,298
이동전화	38,342	40,197	43,497	45,606	47,944	50,767	52,506	53,455
케이블TV	13,882	14,169	14,764	15,197	15,295	15,077	14,939	14,927
IPTV	-	-	-	1,592	2,373	3,659	4,935	6,310
초고속인터넷	10,779	13,867	14,592	15,333	16,364	17,224	17,859	*18,138
휴대인터넷 (WIBRO)	-	0.9	39	167	316	466	799	1,012

* 초고속인터넷은 9월 기준 가입자로 대체
*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자료 재구성, 천 단위 이하는 절삭



이동전화 가입자(와이브로 포함)는 11월 말 기준 10월 대비 109,000명 늘어난 5,436만명을 기록했다. 이중 LTE 가입자는 1,407만명을 기록하며 10월(1,270만명) 대비 137만명이 늘어났다. 10월에 98만명 증가에 그치며 잠시 주춤했던 것과 비교하면 LTE 서비스 가입자의 증가추세가 다시 가속화되는 모습이다. 각 통신사의 서비스별 이용자 구성면에서도 LTE서비스는 빠른 속도로 3G서비스를 대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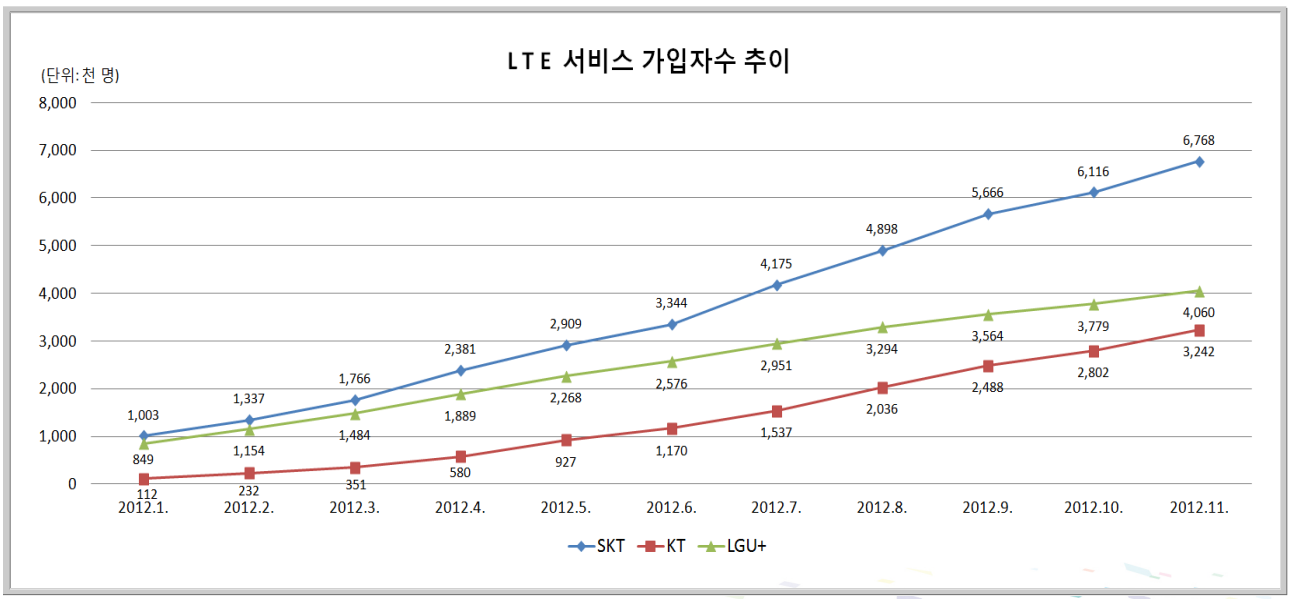
공식 통계는 아니지만 통신업계에 따르면 LTE 가입자는 2012년 12월말 기준 1,589만명에 달했다(SKT 760만명, LG유플러스 439만명, KT 390만명). 이는 2012년 한 해 동안 매월 평균 122만5천명, 하루 평균 4만명이 가입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12년 전세계 LTE 가입자수가 5,720만여명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한국의 가입자는 전체의 28%에 달한다. 업계에서는 2013년 말에는 국내 LTE 가입자가 2,5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 이동전화 가입자 (기술방식별)

(단위 : 천 명)

구분		2012. 1.	2012. 2.	2012. 3.	2012. 4.	2012. 5.	2012. 6.	2012. 7.	2012. 8.	2012. 9.	2012. 10.	11월 가입현황		2012. 11.
												변동	증감율	
SKT	CDMA	6,646	6,443	6,288	6,122	5,961	5,805	5,613	5,446	5,323	5,206	-106	-2.0%	5,100
	WCDMA	18,923	18,767	18,501	18,083	17,741	17,511	16,891	16,372	15,789	15,503	-497	-3.2%	15,006
	LTE	1,003	1,337	1,766	2,381	2,909	3,344	4,175	4,898	5,666	6,116	652	10.7%	6,768
	WiBro	56	61	64	62	60	58	59	61	60	67	6	9.1%	73
KT	CDMA	44	30	23	21	20	19	-	-	-	-	-	-	-
	WCDMA	16,464	16,378	16,225	15,922	15,536	15,299	14,910	14,450	13,992	13,669	-448	-3.3%	13,221
	LTE	112	232	351	580	927	1,170	1,537	2,036	2,488	2,802	440	15.7%	3,242
	WiBro	786	806	836	847	878	902	904	931	936	938	0	0.0%	939
LGU+	CDMA	8,577	8,326	8,070	7,788	7,507	7,276	6,997	6,702	6,457	6,276	-218	-3.5%	6,058
	LTE	849	1,154	1,484	1,889	2,268	2,576	2,951	3,294	3,564	3,779	280	7.4%	4,060
합계		53,461	53,534	53,609	53,697	53,807	53,958	54,038	54,188	54,275	54,357	109	0.2%	54,466

※ DBDM 단말기 가입자는 상위 기술방식으로 분류, WCDMA 진화형인 HSDPA, HSUPA, HSPA+는 WCDMA 가입자 수에 포함
* 백 단위에서 반올림
*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자료 재구성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는 9월 말 기준으로 8월보다 2만9천명이 늘어난 1,814만명을 기록했다. 무선인터넷 이용의 증가세에 비해 유선 인터넷 회선의 설치는 정체된 추세이다. 스마트폰은 10월 대비 63만명(2.0%)의 증가세를 보이며 3,204만명을 기록했다. 태블릿PC는 5,054명이 신규 가입하는데 그치며 0.7%의 성장률을 보였다. 아이패드 미니 LTE 버전이 11월 30일에 발매되고, 아이패드가 리뉴얼되었으며(LTE버전 11월 26일), 갤럭시노트 10.1 LTE 버전이 11월 19일 출시되었기 때문에 12월에는 통신사 가입 태블릿 판매량이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3.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단위 : 천 명)

구분	2009. 12.	2010. 12.	2011. 12.	2012. 1.	2012. 2.	2012. 3.	2012. 4.	2012. 5.	2012. 6.	2012. 7.	2012. 8.	2012. 9.
KT	6,952	7,423	7,822	7,845	7,881	7,921	7,935	7,944	7,966	7,980	8,001	8,009
SK브로드밴드	3,846	3,599	3,293	3,259	3,237	3,216	3,196	3,181	3,169	3,149	3,126	3,114
SKT(재판매)	-	402	898	941	982	1,024	1,062	1,099	1,133	1,170	1,203	1,234
LG U+	2,521	2,773	2,809	2,794	2,783	2,765	2,755	2,755	2,755	2,747	2,733	2,736
종합 유선	2,810	2,826	2,857	2,857	2,857	2,857	2,857	2,857	2,857	2,857	2,919	2,925
기타	216	198	177	177	177	177	177	128	128	128	125	120
합계	16,348	17,224	17,859	17,876	17,919	17,963	17,985	17,967	18,010	18,033	18,109	18,1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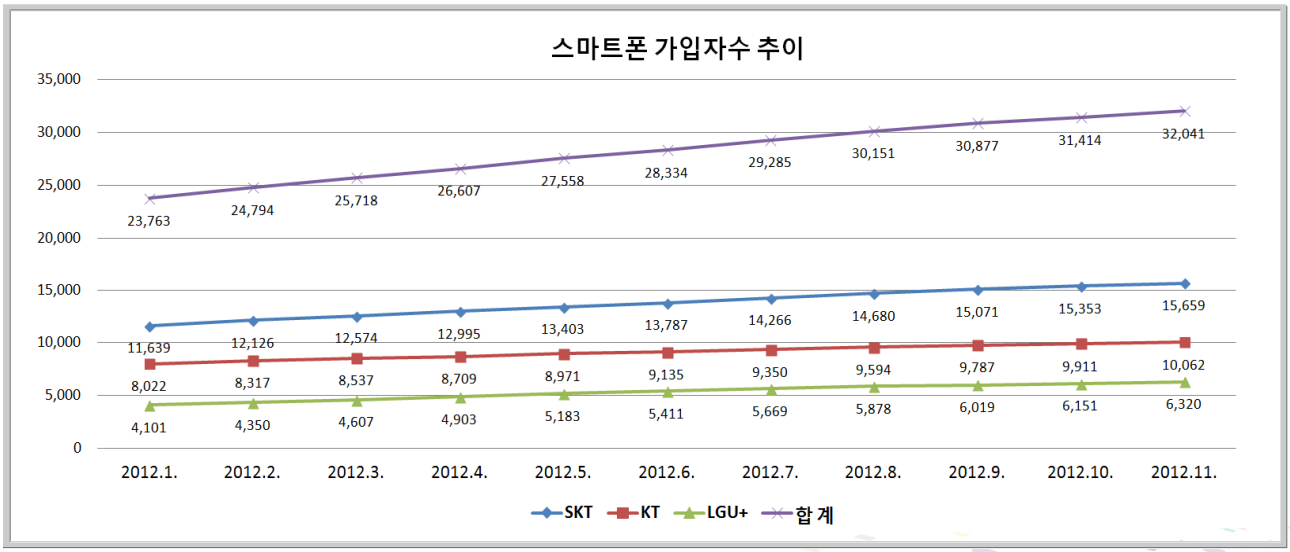
* 10월, 11월 자료 미수합으로 전월과 동일한 표임. 천 단위 이하는 절삭
*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자료 재구성

4. 스마트폰 / 태블릿PC 가입자 현황

(단위 : 천 명)

구분		2012. 1.	2012. 2.	2012. 3.	2012. 4.	2012. 5.	2012. 6.	2012. 7.	2012. 8.	2012. 9.	2012. 10.	11월 가입현황		2012. 11.
												변동(명)	증감율	
스마트폰	SKT	11,639	12,126	12,574	12,995	13,403	13,787	14,266	14,680	15,071	15,353	305,672	2.0%	15,659
	KT	8,022	8,317	8,537	8,709	8,971	9,135	9,350	9,594	9,787	9,911	151,586	1.5%	10,062
	LGU+	4,101	4,350	4,607	4,903	5,183	5,411	5,669	5,878	6,019	6,151	169,364	2.8%	6,320
	합 계	23,763	24,794	25,718	26,607	27,558	28,334	29,285	30,151	30,877	31,414	626,622	2.0%	32,041
태블릿PC	SKT	229	240	248	257	274	285	289	292	292	293	-1,113	-0.4%	291
	KT	311	315	318	325	339	348	356	388	396	406	5,927	1.5%	412
	LGU+	10	14	13	13	14	15	16	17	16	17	240	1.4%	17
	합 계	550	570	579	597	628	649	662	697	705	716	5,054	0.7%	721

* 백 단위에서 반올림 / 태블릿PC는 통신사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한 집계 수치임
*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자료 재구성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스마트폰 및 태블릿용) 매출 순위에서는 일반 앱보다는 모바일게임의 절대적인 강세가 이어졌다. 카카오톡 플랫폼의 게임의 선전은 이전과 같이 지속되었는데, '아이러브커피', '애니팡', '드래곤플라이트', '컴투스 홈런왕', '모두의 게임'과 같은 카카오톡 등록 게임들이 지난달에 이어 〈앱스토어〉와 〈플레이스토어〉의 매출 상위권을 점유했다. 하지만 애플의 〈앱스토어〉에서는 비교적 카카오톡의 영향력이 적은 편이었다. 특히 1위를 차지한 '밀리언아서'는 '원탁의 기사'의 아서왕 이야기를 토대로 제작된 일본 스퀘어에닉스의 모바일게임으로, 카드배틀 게임으로는 이례적인 매출을 기록했다. 1월에는 〈플레이스토어〉에서도 인기를 모으며 '다함께 차차차'에 이은 2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피쉬아일랜드'와 '타이니 팜'과 같은 게임들도 카카오톡에 등록되지 않은 게임이지만 순위권에 꾸준히 올라있다.

앱마켓에 직접 등록하거나 자체 유통플랫폼을 활용할 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매출대비 수익성이 향상될 수 있으며, 최근 카카오톡에 등록된 게임들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며 예전과 같은 이용자 유치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유저의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게임성이 중요해지고 있다. 더불어 수익성 향상을 위해 '컴투스 허브' 등과 같은 자체 플랫폼을 확장하기 위한 노력 또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TOP 10 (12월)

순위	앱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 (아이패드)		
	유료	무료	매출	유료	무료	매출
1	FIFA 13 by EA SPORTS	MyScript Calculator	밀리언아서	FIFA 13 by EA SPORTS	Sonic Jump™	밀리언아서
2	Need for Speed™ Most Wanted	Special Enquiry Detail: The Hand that Feeds	아이러브커피 for Kakao	AVPlayerHD	Special Enquiry Detail: The Hand that Feeds HD	피쉬아일랜드
3	AVPlayer	Sonic Jump™	애니팡 for Kakao	Need for Speed™ Most Wanted	무한도전 달력	Tiny Farm®
4	Order & Chaos Online	무료 토정비결2013 계사년	Dragon Flight for Kakao	Machinarium	KoreaTV	Clash of clans
5	Ringtones Plus+ Premium	무한도전 달력	컴투스 홈런왕 for Kakao	SimCity Deluxe for iPad	YouTube	Order & Chaos Online
6	Wild Blood	컴투스 홈런왕 for Kakao	피쉬아일랜드	Order & Chaos Online	MyScript Calculator	Rule the Sky for iPad
7	Infinity Blade II	MyScript Memo	Tiny Farm®	Plants vs. Zombies HD	DirectPlayerHD	퐁! 인기동요•동화
8	Angry Birds Star Wars	네이버 N드라이브	카드의 신 삼국지	GarageBand	Train Drive ATS Light	휴먼팩토리
9	Bastion	나의 정신 상태 진단서	넥슨 프로야구마스터 2013	MONOPOLY HERE & NOW	Swordigo	FIFA 13 by EA SPORTS
10	Pudding Monsters	Swordigo	벅스 뮤직	The Room	Dragon Flight for Kakao	한게임골든글러브

순위	플레이스토어 (안드로이드)			티스토어 (안드로이드)	
	유료	무료	매출	유료	무료
1	Need for Speed™ Most Wanted	터치파이터 for Kakao	Dragon Flight for Kakao	[VOD] 용의자X	joyn.T
2	Wild Blood	KakaoTalk Free Calls & Text	모두의 게임 for Kakao	[VOD] 돈 크라이 마미	아스팔트7 : 히트
3	Asphalt7:Heat	탭소닉 링스타 for Kakao	Anipang for Kakao	[ebook] 강철의 열제-이계정벌기	모바일Tworld
4	Minecraft - Pocket Edition	KakaoStory	컴투스 홈런왕 for Kakao	[게임] 모던 컴뱃 4 : 제로 아워	T map
5	N.O.V.A. 3	네이버	아이러브커피 for Kakao	[게임] 천사와 악마2	스마트월렛
6	Poweramp Full Version Unlocker	모두의 게임 for Kakao	피쉬아일랜드	[ebook] 너를 탐하다	T 보이는 음성안내
7	Gangstar Rio: City of Saints	FIFA 온라인 3 전용 APP	밀리언아서	[ebook] 내 손안에 있소이다	런닝고
8	Contre Jour	Super Penguins	Tiny Farm®	[ebook] 십일야	무한도전 달력
9	Paladog	Kick the Boss 2	바이킹아일랜드 for Kakao	[ebbok] 그여자의남자	레벨업
10	Order & Chaos Online	컴투스 홈런왕 for Kakao	말랑말랑 목장 for Kakao	[VOD] 음치클리닉	스마트청구서

* 출처: 앱애니, 티스토어 (국내 순위 / 유료·무료는 다운로드 수, 매출은 금액 기준 / 2012. 12. 31. 기준)

201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애플 앱스토어에는 약 76만개의 애플리케이션이 등록되어 있다. 이는 전월 대비 35,150개의 앱이 늘어난 것이다. 다운로드 가능한 앱 중에서 54.71%의 앱이 무료이고, 유료앱 중에서는 '1달러 미만'으로 판매하는 앱의 비중(22.86%)이 가장 높다. 특히 신규 런칭되는 앱 중에서는 무료앱의 비중이 더욱 높아지는 추세이다. 이같은 경향은 저렴한 값을 기반으로 대량판매 또는 광고, 인앱결재 등을 통해 수익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애플리케이션의 전체 평균 가격은 11월 대비 0.04달러 하락한 1.50달러를 기록했고, 일반 앱의 가격이 1.60달러인 반면, 게임 앱 가격은 평균 0.89달러를 기록하며 큰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앱스토어의 전체 매출 구성에서 게임의 비중은 상당히 높은 편인데, 이는 게임 내에서의 결제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12월에는 게임과 비게임을 합쳐 28,557개의 어플리케이션이 제출되었다. 하루 평균 767개의 비게임 애플리케이션과 155개의 게임이 앱스토어에 제출되었다. 등록된 앱을 카테고리별로 분류하면 게임(16.77%), 교육(10.56%), 엔터테인먼트(9.34%), 라이프스타일(8.40%) 등의 비중을 기록했다.

애플 앱스토어 현황 (2012. 12. 31.)

1. APP. 등록 현황

구분	개수	변동 (11.30.대비)
총 활성 앱 (현재 다운로드 가능)	764,212	35,150
총 비활성 앱 (더이상 다운로드 불가능)	268,145	3,320
미국 앱스토어 누적 앱	1,032,357	38,470
미국 앱스토어 활동 제작자수	203,387	9,464

2. APP. 가격 분포

구분	개수	비율	변동 (11.30.대비)
무료	418,104	54.71%	26,222
$1 미만	174,680	22.86%	4,964
$1 ~ $1.99	69,460	9.09%	1,911
$2 ~ $2.99	33,369	4.37%	916
$3 이상	67,461	8.97%	0

3. APP. 평균 가격

구분	가격	변동 (11.30.대비)
평균 앱 가격	$1.60	-$0.05
평균 게임 가격	$0.89	-$0.02
전체 평균 가격	$1.50	-$0.04

4. APP. 월별 제출 현황 (12월)

구분	개수	1일 평균 제출개수	변동 (11월 대비)
비게임	23,763	767	2,856
게임	4,794	155	1,597
전체	28,557	921	4,453

5. 카테고리별 등록 APP. 현황

구분	개수	비율	구분	개수	비율
게임	128,194	16.77%	생산성	21,527	2.82%
교육	80,669	10.56%	뉴스	20,892	2.73%
엔터테인먼트	71,369	9.34%	건강 & 운동	19,985	2.62%
라이프스타일	64,169	8.40%	사진	19,124	2.50%
도서	55,014	7.20%	금융	17,575	2.30%
유틸리티	46,779	6.12%	의료	16,108	2.11%
비즈니스	46,458	6.08%	소셜 네트워킹	15,372	2.01%
여행	39,355	5.15%	네비게이션	11,621	1.52%
음악	29,173	3.82%	날씨	7,717	1.01%
레퍼런스	24,585	3.22%	기타	6,315	0.83%
스포츠	22,211	2.91%	합계	764,212	100.00%

* 출처: 148Apps.biz (http://148apps.biz), 2012. 12. 31. 기준

12월 팟캐스트 순위에서는 '나는 꼼수다'가 1위에 올랐다. 딴지일보에서 제작한 근현대사 관련 팟캐스트 '그것은 알기싫다'는 2위를 기록했다. '나는 꼼수다'와 비슷한 솔직한 토크로 10월 12일 첫 방송 이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주진우의 현대사'가 3위에, '나는 꼽사리다'는 12위에 오르며 딴지일보 제작 프로그램들의 인기가 이어졌고, 11월에 시작된 '유시민 노회찬 저공비행'과 시사평론가 김종배씨의 '이슈 털어주는 남자', '손석희의 시선집중', '뉴스타파', '김어준의 뉴욕타임즈' 등의 뉴스 및 정치 논평 프로그램들 역시 대선을 계기로 높은 청취율을 보였다.

유머 프로그램으로는 SBS '두시탈출 컬투쇼'가 4위에, '컬투쇼 레전드 사연 BEST100'이 5위에 올랐고, '이박사와 이작가의 이이제이'(10위), '타박타박 세계사'(13위), '고전읽기'(15위) 등의 사회 및 문화 프로그램들도 청취자들의 다양한 관심사를 충족시키며 전월에 이어 순위권에 들었다. '이근철의 굿모닝 팝스'(11위), 'CNN Student News'(14위)와 같은 인기 어학 프로그램과 '아트 앤 스터디'(19위)와 같은 인문 철학 강좌도 청취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팟캐스트 종합 TOP 15 (12월)

순위	변동	제목	에피소드	카테고리	방송등록일	최종 업데이트
1	△1	나는 꼼수다	71	뉴스 및 정치	2011.04.28.	2012.12.18.
2	▽1	그것은 알기싫다	15	-	2012.10.12.	2012.12.29.
3	△1	주진우의 현대사	15	뉴스 및 정치	2012.06.19.	2012.12.17.
4	▽1	두시탈출 컬투쇼	200	음악	2012.09.21.	2012.12.31.
5	-	컬투쇼 레전드 사연 BEST100	100	음악	2012.05.10.	2012.07.27.
6	△30	뉴스타파	51	뉴스 및 정치	2012.03.21.	2012.12.17.
7	△7	손석희의 시선집중	766	뉴스 및 정치	2010.07.16.	2012.12.31.
8	△1	유시민 노회찬 저공비행	18	뉴스 및 정치	2012.11.06.	2012.12.18.
9	△4	이슈 털어주는 남자	254	뉴스 및 정치	2011.12.27.	2012.12.31.
10	▽4	이박사와 이작가의 이이제이	24	사회 및 문화	2012.07.21.	2012.12.18.
11	△2	(공식)이근철의 굿모닝 팝스	20	교육	2012.11.11.	2012.12.30.
12	▽5	나는 꼽사리다	57	비즈니스	2011.11.19.	2012.12.12.
13	△6	타박타박 세계사	85	사회 및 문화	2011.05.22.	2012.12.30.
14	▽3	CNN Student News (video)	6	교육	2012.11.19.	2012.12.21.
15	New	고전읽기	80	방송	2012.08.27.	2012.12.14.
16	▽6	김어준의 뉴욕 타임스(Audio)	252	뉴스 및 정치	2009.06.22.	2012.12.14.
17	▽2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토크	13	뉴스 및 정치	2012.11.08.	2012.12.15.
18	▽1	이상호 go발뉴스	160	뉴스 및 정치	2012.05.27.	2012.12.27.
19	△43	아트 앤 스터디 팟캐스트	44	교육	2011.05.02.	2011.11.17.
20	▽4	FM 음악도시 성시경입니다	1,006	방송	2011.06.01.	2012.12.31.

* 출처: 팟빵 (www.podbbang.com), 12월 31일 기준

콘텐츠 통계 브리핑

KOCCA 통계브리핑
제13-01호(국내편)

한국콘텐츠진흥원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Statistics Briefing

2011년 기준 국내 콘텐츠산업 시장집중도 분석

박 성 원 (KOCCA 통계정보팀 선임연구원)

2011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2009년 광업·제조업 분야의 매출액 기준 최상위 사업체 3개의 시장집중도는 45.0%, 2009년 서비스업 분야의 매출액 기준 최상위 사업체 3개의 시장집중도는 17.5%로 나타나, 광업·제조업 분야의 시장집중도가 서비스업의 시장집중도보다 훨씬 더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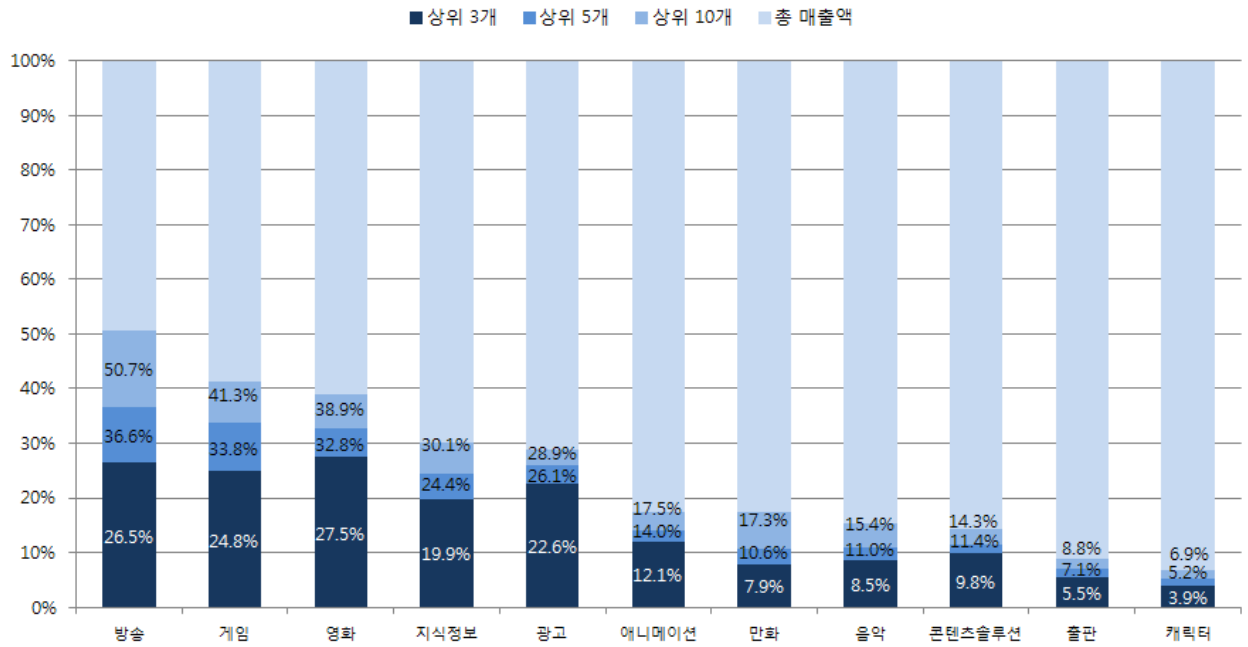
국내 콘텐츠산업의 시장집중도 분석은 CJ CGV, 넥슨, NHN과 같은 대형 기업이 등장에 따라 2012년에 처음 시도되었는데 2012년 분석에서는 2010년도 기준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되었다. 본 지에서는 2011년도 기준 콘텐츠산업 시장집중도를 11개(방송, 광고, 영화, 출판,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음악, 게임,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콘텐츠산업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2010년도 기준 시장집중도 분석 결과와 2011년도 기준 시장집중도 분석 결과를 비교하여 보여준다. 콘텐츠산업 시장집중도 분석을 위하여 사용된 지표는 CR(Concentration Ratio)이며, 구체적으로는 콘텐츠 산업 분야별 매출액 상위 3개, 5개, 그리고 10개 사업체의 시장집중도(CR_3, CR_5, CR_{10})를 분석하였다.

[그림 1]에 따르면, 국내 콘텐츠 산업 중 상위 3개사의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산업은 영화산업(27.5%)으로 나타났고, 두 번째로 상위 3개사의 매출액 비중이 큰 산업은 방송산업(26.5%), 그리고 세 번째는 게임산업(24.8%)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광고산업 22.6%, 지식정보산업 19.9%, 애니메이션 산업 12.1%, 콘텐츠솔루션산업 9.8%, 음악산업 8.5%, 만화산업 7.9%, 출판산업 5.5%, 캐릭터산업 3.9% 순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국내 콘텐츠 산업에서 1개 사업체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산업이 존재하지 않으며, 3개 사업체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인 산업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콘텐츠산업을 11개로 분류하여 분석했을 때, 독점 또는 과점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콘텐츠 산업에서 독점 또는 과점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고 할지라도, 소수의 매출액 상위 기업들이 특정 산업의 매출을 독식하여 경쟁이 유효하게 작동되는 것을 막을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상위 5개사 매출이 특정 산업 전체의 매출액 중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CR_5와 상위 10개사 매출이 특정 산업 전체의 매출액 중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CR_{10}을 살펴보았다.

[그림 1]에 따르면 상위 5개사 매출액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은 방송 산업(36.6%)으로 나타났으며, 두 번째로 상위 5개사 매출액 비중이 높은 산업은 게임 산업(33.8%) 그 다음은 영화산업(32.8%), 광고산업(26.1%), 지식정보산업(24.4%)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상위 10개사 매출액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을 살펴본 결과에서도 CR_5 에서와 동일하게 상위 기업의 매출액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은 방송산업(50.7%), 게임산업(41.3%), 영화산업(38.9%)으로 순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지식정보산업 30.1%, 광고산업 28.9%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1] 2011년 콘텐츠산업 시장집중도



<표 1> 2011년 콘텐츠산업 시장집중도 순위

구분	산업 (비중)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11위
CR_3	영화 (27.5%)	방송 (26.5%)	게임 (24.8%)	광고 (22.6%)	지식정보 (19.9%)	애니메이션 (12.1%)	콘텐츠솔루션 (9.8%)	음악 (8.5%)	만화 (7.9%)	출판 (5.5%)	캐릭터 (3.9%)
CR_5	방송 (36.6%)	게임 (33.8%)	영화 (32.8%)	광고 (26.1%)	지식정보 (24.4%)	애니메이션 (14.0%)	콘텐츠솔루션 (11.4%)	음악 (11.0%)	만화 (10.6%)	출판 (7.1%)	캐릭터 (5.2%)
CR_{10}	방송 (50.7%)	게임 (41.3%)	영화 (38.9%)	지식정보 (30.1%)	광고 (28.9%)	애니메이션 (17.5%)	만화 (17.3%)	음악 (15.4%)	콘텐츠솔루션 (14.3%)	출판 (8.8%)	캐릭터 (6.9%)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3), "2012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재구성

2010년과 2011년 콘텐츠산업 시장집중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2010년 콘텐츠산업 시장집중도 CR3는 13.3%였으나 2011년에는 15.4%로 2.1% 증가하였고, CR5는 2010년 17.4%에서 2011년 19.4%로 2.0% 증가하였으며, CR10은 2010년 21.8%에서 2011년 24.6%로 2.7%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는 2010년 보다 2011년에 CR3가 증가한 산업은 9개(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였으며, 감소한 산업은 2개(애니메이션, 방송)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증가한 산업은 음악산업으로 5.3% 증가하였으며, 다음은 게임산업 5.2% 증가, 콘텐츠솔루션산업 4.4% 증가 순으로 나타났다. CR5가 2010년 보다 2011년에 증가한 산업은 8개(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로 나타났으며, 감소한 산업은 3개(애니메이션, 방송, 광고)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증가한 산업은 CR3에서와 마찬가지로 음악산업으로 나타났으며 6.4% 증가하였다. 다음은 게임산업 5.5% 증가, 만화산업 4.2% 증가 순으로 나타났다. CR10이 2010년 보다 2011년에 증가한 산업은 8개(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방송, 캐릭터, 지식정보)로 나타났으며, 감소한 산업은 3개(애니메이션, 광고, 콘텐츠솔루션)로 나타났다.

즉, 콘텐츠산업 시장집중도 상위 5개 산업은 2010년과 2011년의 CR3, CR5, CR10 모두에서 동일하게 방송, 게임, 영화, 광고, 지식정보 산업으로 나타나, 5개 산업의 시장집중도가 다른 6개 산업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산업의 평균 CR3(2009년도 기준 17.5%)보다 높은 산업 또한 방송, 게임, 영화, 광고, 지식정보 산업 5개 산업으로 나타났다.

<표 2> 2010년 및 2011년 콘텐츠산업 시장집중도 비교

(단위: %)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CR3 (2011년)	5.5%	7.9%	8.5%	24.8%	27.5%	12.1%	26.5%	22.6%	3.9%	19.9%	9.8%
CR3 (2010년)	4.3%	4.1%	3.3%	19.6%	25.8%	13.4%	28.1%	20.5%	2.7%	19.7%	5.4%
CR3 ('10년~'11년 차이)	1.2%	3.8%	5.3%	5.2%	1.7%	-1.3%	-1.6%	2.1%	1.2%	0.2%	4.4%
CR5 (2011년)	7.1%	10.6%	11.0%	33.8%	32.8%	14.0%	36.6%	26.1%	5.2%	24.4%	11.4%
CR5 (2010년)	5.3%	6.4%	4.6%	28.3%	29.2%	16.5%	37.9%	28.0%	3.7%	22.2%	9.0%
CR5 ('10년~'11년 차이)	1.8%	4.2%	6.4%	5.5%	3.6%	-2.5%	-1.3%	-1.9%	1.5%	2.3%	2.4%
CR10 (2011년)	8.8%	17.3%	15.4%	41.3%	38.9%	17.5%	50.7%	28.9%	6.9%	30.1%	14.3%
CR10 (2010년)	6.4%	9.1%	5.8%	34.9%	34.3%	21.9%	49.4%	31.1%	5.1%	25.2%	16.7%
CR10 ('10년~'11년 차이)	2.4%	8.2%	9.6%	6.3%	4.5%	-4.3%	1.3%	-2.2%	1.7%	4.9%	-2.4%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3), "2012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재구성

그러나 시장집중도 분석은 생멸 사업체 수가 많은 콘텐츠산업과 같은 산업에서는 제약점이 많다. 그러므로 상위 사업체의 구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3〉은 콘텐츠산업의 매출액 기준 상위 사업체를 1) 2010년과 비교했을 때, 상위 3개 사업체가 동일하며 순위도 동일한 경우 2) 2010년과 비교했을 때, 상위 3개 사업체가 동일하나 순위가 변동된 경우 3) 2010년과 비교했을 때, 상위 3개 사업체와 순위가 모두 변동된 경우로 나눈 후, 이를 다시 산업별로 분류하여 보여준다.

분석 결과 영화산업, 방송산업, 광고산업 총 3개 산업은 상위 3개 사업체와 순위가 모두 동일하여 특정 산업 내에서 비교적 견고하게 자리 잡은 사업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산업은 상위 3개 사업체는 동일하게 유지되었으나 순위에 변동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상위 사업체들 간 매출액 규모에 큰 차이 없이 경쟁하는 구도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나머지 7개(출판, 만화, 음악, 게임,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산업에서는 매출액 상위 3개 사업체에 변동이 있었으며, 순위 또한 변경이 있었다. 이 결과는 해당 산업 내에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고 산업을 좌우할 수 있는 사업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향후에 산업을 선점할 사업체가 어떤 사업체인지 가늠할 수 없다는 것을 유추하게 해준다.

<표 3> 2011년 콘텐츠산업 상위 3개 사업체 구성 및 순위 변동 여부

구분	산업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상위 3개 사업체 동일, 순위 동일					○		○	○			
상위 3개 사업체 동일, 순위 변동						○					
상위 3개 사업체 변동, 순위 변동	○	○	○	○					○	○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3), “2012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재구성

2011년 기준 콘텐츠 산업의 시장집중도 분석 및 2010년 기준 콘텐츠산업 시장집중도 분석과의 비교 결과, 소수의 사업체가 특정 산업을 독식하는 구조가 아니며, 사업체의 시장의 진입 및 퇴출이 자유로운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독점 및 과점현상이 나타나지 않아, 거래거절(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끼워팔기, 경쟁사업자 배제 등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적으며, 자유롭고 건전한 경쟁을 통하여 창의적인 상품 개발이 보다 더 용이한 환경인 것으로 나타났다.

KOCCA 통계브리핑
제13-01호(해외편)

한국콘텐츠진흥원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Statistics
Brief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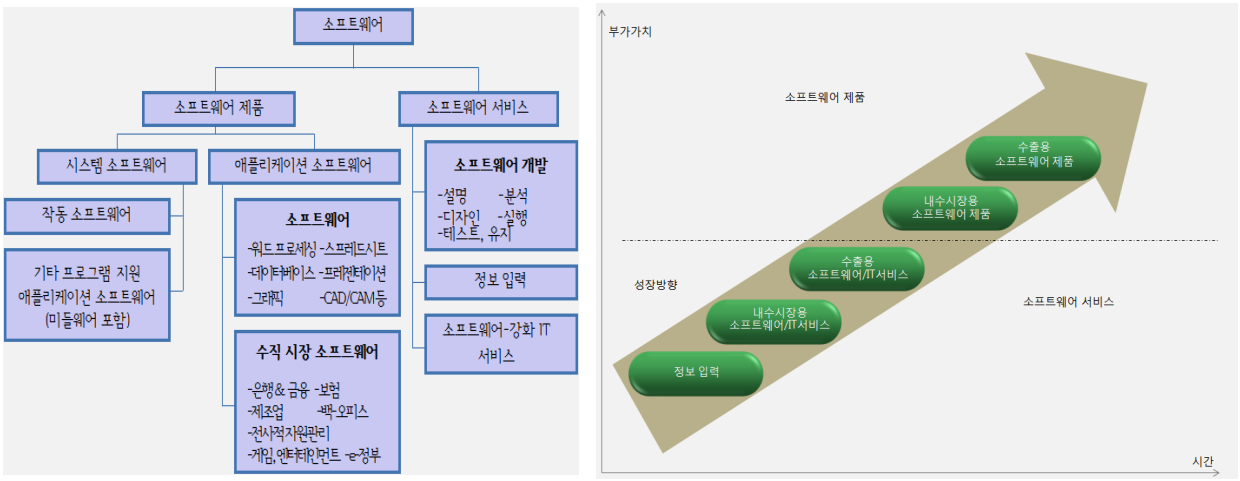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프트웨어산업의 변화

김 영 수 (KOCCA 통계정보팀 선임연구원)

2013년 세계 경제는 유럽 재정위기의 장기화, 미국의 재정절벽 회피 여부를 둘러싼 정책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세계 경기회복이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다수의 경제 전문기관들은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동안 세계 각국에서는 콘텐츠산업을 통한 경제적 가치 창출을 꾀하고 국가 경제 회복을 위한 핵심영역으로서 창조산업 육성을 본격 추진했다. 이와 더불어 정보경제(Information Economy)에 대한 각국의 관심 또한 매우 높아지고 있는데 정보경제는 정보 자체뿐만 아니라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하나의 산업으로 정착된 경제로서 단순한 인포메이션이 아닌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IT, Information Technology)의 상품화와 산업화가 전면적으로 진행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이 인터넷을 통해 연결되면서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고 소프트웨어, 정보, 서비스와 같은 무형의 자산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달성할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네트워크 경제로도 일컫는다. 특히 정보경제가 생산하는 정보재는 초기 고정비용이 높은 반면, 일단 개발되고 나면 추가적인 생산에 소요되는 한계비용 또는 가변비용이 매우 낮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산업은 제품과 서비스로 양분된다. 첫째, 소프트웨어 제품은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로 구분되고 각각은 하드웨어를 작동하는 소프트웨어, 워드 프로세싱, 데이터베이스 등과 기업에서 사용하는 수직시장 소프트웨어(Vertical Market Software)를 포함한다. 둘째, 소프트웨어 서비스는 개발, 정보입력(Data Entry), IT서비스 등으로 구분된다.

[그림 1] 소프트웨어산업 개요 및 가치사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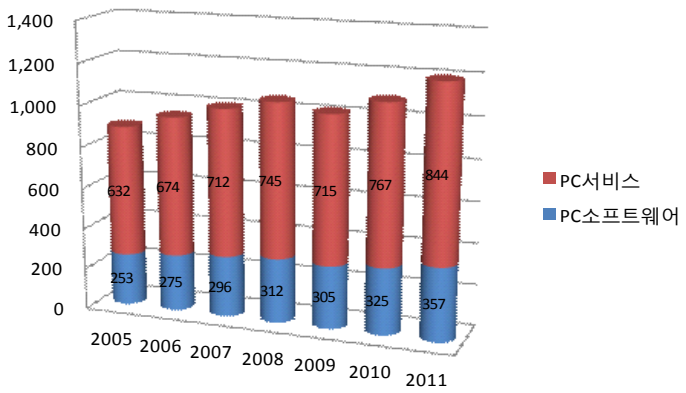


※출처 : UNCTAD(2012), 'Information Economy Report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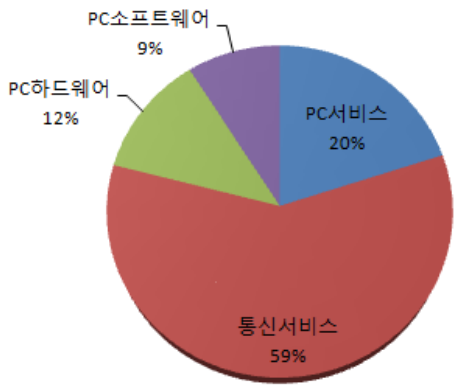
한편, 소프트웨어산업은 ① 정보입력을 기반으로 ② 내수시장용 소프트웨어/IT서비스의 테스트 베드 단계를 거쳐 수출용 소프트웨어/IT서비스를 '소프트웨어 서비스'로 구성하며 나아가 각각의 ③ 소프트웨어 제품을 생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가치사슬 구조를 갖추고 있다.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의 'Information Economy Report 2012'에서는 세계 경제를 추동할 수 있는 요인으로서 정보경제에 주목하고 소프트웨어 지출 및 고용비중, 주요 경제지표 대비 정보서비스 수출비중 등 소프트웨어산업이 국가 경제에 대한 기여 정도와 동향을 발표했다. 조사결과, 전세계 PC서비스 및 소프트웨어의 전체 소비지출액은 지난 2005년 8,850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연평균 5.22% 성장하여 2011년에는 1조 2,01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분야별로는 PC서비스가 8,440억 달러로 전체의 70.3%를 차지했고 PC 소프트웨어는 3,570억 달러(29.7%)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의 소프트웨어 능력은 전체 ICT에서 PC소프트웨어와 PC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을 통해 평가할 수 있다. 전세계 ICT 분야의 소비지출 비중은 통신서비스가 전체의 59%, PC서비스 20%, PC하드웨어 12%, PC소프트웨어 9% 순으로 나타났으나 통신서비스에 대한 소비지출 비중은 여전히 높다.

[그림 2] 전세계 PC/소프트웨어와 ICT 소비지출 추이 및 비중



[PC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소비지출, 단위: 십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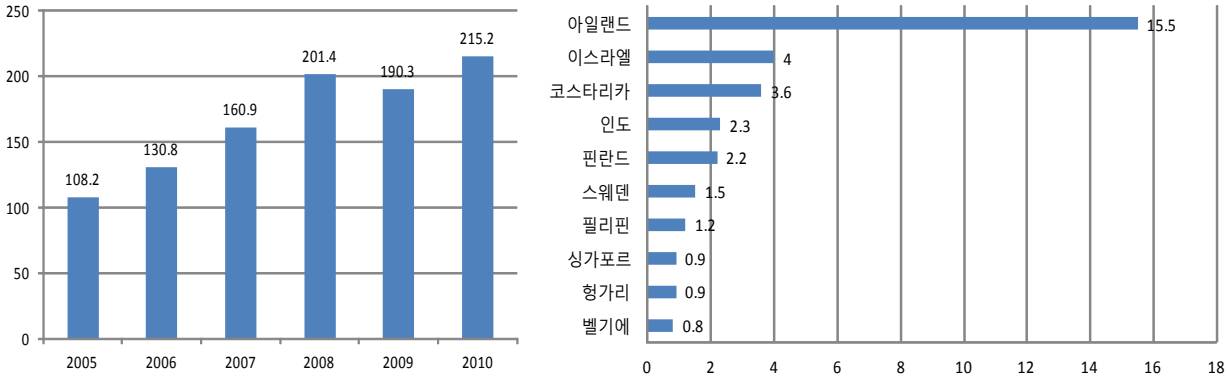
[ICT의 주요 분야별 소비지출 비중]

※출처 : UNCTAD(2012), 'Information Economy Report 2012

세계 각국에서는 내수시장에서 검증된 정보서비스 제품을 수출하여 고부가가치의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꾀하고 있다. 2010년 기준, 수출 상위 10개국의 정보서비스 수출 총액은 2,152억 달러로 1,082억 달러를 기록한 2005년에 비해 두 배 가량 규모가 증가했다. GDP 대비 정보서비스 수출비중은 10개국 평균 3.3%였으며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아일랜드로 15.5%를 차지했고 이어 이스라엘 4.0%, 코스타리카 3.6%, 인도 2.3%, 핀란드 2.2%, 스웨덴 1.5%, 필리핀 1.2%, 싱가포르 0.9%, 헝가리 0.9%, 벨기에 0.8%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는 해당 국가의 전체 산업 가운데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많은 개발도상국에서의 정보서비스 수출규모가 내수 소비지출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인도, 필리핀은 PC소프트웨어가 국가 경제를 움직이는 산업으로 자리매김한 반면, 브라질은 내수 소비시장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림 3] 정보서비스시장 상위 10개국의 수출액 및 GDP 대비 수출비중(단위: 십억 달러, %)



※출처 : UNCTAD(2012), 'Information Economy Report 2012

소프트웨어산업은 시장과 기술발전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요구받는다. 오늘날 개발도상국의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을 위한 수요차원에서의 요인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수요 증가이다. ITU에 따르면, 2011년 전세계 모바일서비스 가입자 수는 60억 명(중복가입 포함)에 달하여 전세계 인구의 86%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 음성통화 서비스를 넘어 모바일서비스를 위한 소프트웨어 수요 증가의 잠재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둘째, 소셜 네트워크서비스의 확산이다. 전세계 인터넷 이용자의 80%에 해당하는 12억 명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예컨대 페이스북의 경우, 2007년 5천만 명에서 2012년 5월 9억 명으로 5년 만에 18배 이상 가입자가 증가했고 특히, 개발도상국의 페이스북 이용자 중 3/4 이상이 모바일 버전을 이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셜 네트워크서비스는 음악, 커뮤니케이션, 게임 등 다양한 연계 애플리케이션의 이용과 개발을 촉진한다.

셋째, 클라우드 컴퓨팅이다. 클라우드 기반의 Saas(Software as a Service) 수요가 2012년에는 전년대비 57% 성장한 33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소프트웨어산업이 인프라와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창출을 위한 신규 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여러 국가에서 감지되고 있는데 특히, 브라질과 중국은 클라우드 인프라 육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넷째, 로컬 콘텐츠의 부상이다. 2010년 기준 전세계 20억 인터넷 이용자의 영어권 이용자 비중은 1/4에 불과하고 나머지 3/4이 비영어권의 이용자이다. 따라서 로컬 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 수요를 만족할 만한 소프트웨어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다섯째, 소프트웨어 프리랜싱이다. 온라인 환경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은 1인 고용을 증대하는 순기능을 제공한다. 방글라데시의 프리랜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벌어들이는 연간 수익은 소프트웨어 수출액의 1/4에 점유할 정도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와 같은 수요환경의 틀에서 개발도상국들은 국가 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서 소프트웨어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정보경제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정부 정책 구현의 효율성 확보, 해외 교류를 통한 시장 다양성 제고, 관련 산업의 고용창출 등 다양한 순기능을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이들 국가에게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요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012 ~ 2013 통계정보팀 발간자료 일람

1. 월간 콘텐츠 시장동향

- 월간 콘텐츠 시장동향 5월호
- 월간 콘텐츠 시장동향 6월호
- 월간 콘텐츠 시장동향 7월호
- 월간 콘텐츠 시장동향 8월호
- 월간 콘텐츠 시장동향 9월호
- 월간 콘텐츠 시장동향 10월호
- 월간 콘텐츠 시장동향 11월호
- 월간 콘텐츠 시장동향 12월호

2. 분기별 콘텐츠산업 동향분석보고서

❍ 1분기 콘텐츠 산업 동향분석보고서

- 2012년 1분기 콘텐츠산업 동향분석보고서
- 2012년 1분기 콘텐츠산업 동향분석보고서(영화산업편)
- 2012년 1분기 콘텐츠산업 동향분석보고서(출판및만화산업편)
- 2012년 1분기 콘텐츠산업 동향분석보고서(음악산업편)
- 2012년 1분기 콘텐츠산업 동향분석보고서(게임산업편)
- 2012년 1분기 콘텐츠산업 동향분석보고서(애니메이션및캐릭터산업편)
- 2012년 1분기 콘텐츠산업 동향분석보고서(방송산업편)
- 2012년 1분기 콘텐츠산업 동향분석보고서(광고산업편)
- 2012년 1분기 콘텐츠산업 동향분석보고서(지식정보산업편)

❍ 2분기 콘텐츠 산업 동향분석보고서

- 2012년 2분기 및 상반기 콘텐츠산업 동향분석보고서
- 2012년 2분기 및 상반기 콘텐츠산업 동향분석보고서(영화산업편)
- 2012년 2분기 및 상반기 콘텐츠산업 동향분석보고서(출판및만화산업편)
- 2012년 2분기 및 상반기 콘텐츠산업 동향분석보고서(음악산업편)
- 2012년 2분기 및 상반기 콘텐츠산업 동향분석보고서(게임산업편)
- 2012년 2분기 및 상반기 콘텐츠산업 동향분석보고서(애니메이션및캐릭터산업편)
- 2012년 2분기 및 상반기 콘텐츠산업 동향분석보고서(방송산업편)
- 2012년 2분기 및 상반기 콘텐츠산업 동향분석보고서(광고산업편)
- 2012년 2분기 및 상반기 콘텐츠산업 동향분석보고서(지식정보산업편)

❍ 3분기 콘텐츠 산업 동향분석보고서

- 2012년 3분기 콘텐츠산업 동향분석보고서
- 2012년 3분기 콘텐츠산업 동향분석보고서(영화산업편)
- 2012년 3분기 콘텐츠산업 동향분석보고서(출판및만화산업편)
- 2012년 3분기 콘텐츠산업 동향분석보고서(음악산업편)
- 2012년 3분기 콘텐츠산업 동향분석보고서(게임산업편)

- 2012년 3분기 콘텐츠산업 동향분석보고서(애니메이션및캐릭터산업편)
- 2012년 3분기 콘텐츠산업 동향분석보고서(방송산업편)
- 2012년 3분기 콘텐츠산업 동향분석보고서(광고산업편)
- 2012년 3분기 콘텐츠산업 동향분석보고서(지식정보산업편)

3. 분기별 소비자 콘텐츠 구매실태 조사

- 2012년 1분기 소비자 콘텐츠 구매실태 조사
- 2012년 2분기 소비자 콘텐츠 구매실태 조사
- 2012년 3분기 소비자 콘텐츠 구매실태 조사
- 2012년 4분기 소비자 콘텐츠 구매실태 조사

4. 격주간 통계브리핑

❍ 국내편

12 - 1호 : 국내 콘텐츠산업 라이선싱 매출 2조 6천억원 시장으로 급성장
12 - 2호 : 국내 콘텐츠산업 상장사의 경영실적 진단
12 - 3호 : 국내 콘텐츠산업 유통구조 분석결과, 업체-종사자-매출의 급감 악순환
12 - 4호 : 국내 콘텐츠산업의 시장집중도 분석
12 - 5호 : 콘텐츠산업의 고용구조 분석과 시사점
12 - 6호 : 국제수지(음향영상서비스수지)의 현황과 추이분석
12 - 7호 : 국내 콘텐츠 사업체의 생멸(생성과 소멸) 분석
12 - 8호 : 오락·문화 & 콘텐츠의 소비지출 변화 추이 분석
12 - 9호 : 국내 콘텐츠산업의 사업형태별(업종별) 성장성 분석
12-10호 : 국내 콘텐츠산업 관련 외국인직접투자(FDI) 추이
12-11호 : 국내 콘텐츠 기업의 증가와 성장가능성
12-12호 : 한국생산물분류(KCPC) 내 콘텐츠 재화 및 서비스 분류에 대한 시사점
12-13호 : 2011년 콘텐츠산업 매출 83조 원, 수출 43억 달러, 종사자 60.5만 명 달성!
12-14호 : 〈월간 콘텐츠 시장동향 12월호〉 요약 및 시사점
13 - 1호 : 2011년 기준 국내 콘텐츠산업 시장집중도 분석

❍ 해외편

12 - 1호 : PWC, 2011년 글로벌 E&M시장 1조 6천억 달러 규모, 우리나라는 10위
12 - 2호 : IFPI, 2011년 글로벌 음악시장 167억 달러 규모로 하락, 우리나라 11위 기록
12 - 3호 : IIPA(2011), 미국 저작권산업의 경제적 기여도 발표, 전체 산업을 견인
12 - 4호 : MPAA (2012), 세계 박스오피스시장 규모 326억 달러 기록, 전체 영화산업 견인
12 - 5호 : 2011년 세계 엔터테인먼트&미디어산업과 국내현황 비교분석
12 - 6호 : 세계 콘텐츠산업의 현황과 트렌드 변화
12 - 7호 : 우리나라 콘텐츠산업의 국가경쟁력 평가와 방향
12 - 8호 : 세계 전자책(e-Book) 시장의 현황과 전망
12 - 9호 : 세계 라이선스(License) 산업의 현황과 트렌드
12-10호 : 세계 SNS(Social Network Service) 기업 실적과 이용 행태에 따른 시사점
12-11호 : 해외의 소셜미디어 마케팅 이용현황 및 시사점
12-12호 : 세계 커넥티드TV 디바이스 시장변화와 전망
12-13호 : 세계 디지털 음악시장의 현황과 전망
13 - 1호 :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프트웨어산업의 변화

2013 월간 콘텐츠 시장동향

콘텐츠산업 자문단 (41명)

강덕원 (게임동아 대표)
강형석 (게임트릭스 팀장)
김도학 (M&E산업연구소 소장)
김민규 (아주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김세훈 (세종대 만화애니메이션학과 교수)
김영재 (한양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김원제 (유플러스연구소 소장)
김태원 (푸른여름 대표)
나의진 (한국게임산업협회 과장)
박관형 (이미지프레임 편집장)
박상호 (한국방송협회 연구위원)
박성만 (메이븐스퀘어 이사)
박인하 (청강문화산업대 만화창작과 교수)
박정민 (EBS 외화애니부 PD)
박정수 (산업연구원 서비스산업연구센터 소장)
박준흠 (가슴네트워크 대표/대중음악 SOUND 발행인)
박호상 (한국출판연구소 선임연구원)
백수진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과장)
송철민 (한국음원제작자협회 음악정보센터 실장)
오세성 (한국방송광고공사 연구위원)
오수정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분석팀장)
윤 하 (영화진흥위원회 산업팀장)
이광세 (한국이러닝산업협회 이사)
이민재 (한국문화콘텐츠라이선싱협회 사무국장)
이병우 (캐릭터&완구신문 대표)
이승엽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이용준 (대진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종규 (인터파크INT공연사업 본부장)
이혜경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팀장)
이호준 (한국광고협회 팀장)
임진욱 (예술경영지원센터 연구원)
전영문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
정용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우식 (21세기경제학연구소 연구위원)
송경희 (문화부 문화산업정책과 사무관)
조한석 (문화부 정보통계담당관실 사무관)
주은수 (미디어경영연구소 소장)
최광호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 사무국장)
최영균 (아이러브캐릭터 편집장)
최원석 (닐슨컴퍼니코리아 국장)
황성연 (AGB닐슨 미디어리서치 차장)

2013 월간 콘텐츠 시장동향

<2013 월간 콘텐츠 시장동향>은 '콘텐츠산업자문단'과 'KOCCA 통계정보팀'이 공동작업하여 온라인으로 발간하는 월간지입니다.

콘텐츠산업 자문단

단 장 정우식 (21세기경제학연구소 연구위원)
종합위원 박정수 (산업연구원 서비스산업연구센터 소장)
김원제 (유플러스연구소 소장)
박성만 (메이븐스퀘어 이사)
분 과 장 이용준 (대진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출판/만화/지식정보분과)
김도학 (M&E산업연구소 소장, 영화/애니메이션/캐릭터분과)
박준흠 (가슴네트워크 대표, 음악/공연분과)
강덕원 (게임동아 대표, 게임분과)
김태원 (푸른여름 대표, 방송/광고분과)

한국콘텐츠진흥원

총괄기획 및 감수 홍유진 (통계정보팀 팀장), 노준석 (미래전략팀 팀장)
공동기획 및 검수 김은정 (통계정보팀 책임연구원)
김영수 (통계정보팀 선임연구원)
박성원 (통계정보팀 선임연구원)
강중구 (통계정보팀 연구원)
정길영 (통계정보팀 인턴)

발 행 인 홍 상 표
발 행 일 2013년 1월 25일 (통권 9호)
발 행 처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한국콘텐츠진흥원 통계정보팀에서는 **콘텐츠산업정보포털(http://www.kocca.kr)**을 통해 콘텐츠 기업정보, 시장현황, 산업통계 등 각종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들의 내용에 대한 문단전재를 금하며, 가공 및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콘텐츠 관련 단행본, 정기간행물, 영상자료, 게임자료, 음향자료 등을 서비스 받으실 수 있는 **콘텐츠도서관(http://library.kocca.or.kr)**을 평일(9:00~18:00)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콘텐츠도서관 문의) 통계정보팀 신란희 (02-3153-1376 / rhshin@kocca.kr)
(월간 콘텐츠 시장동향 문의) 통계정보팀 강중구 (02-3153-3021 / kjunggoo@kocca.kr)
(기타 문의) 콘텐츠종합지원센터 "콘텐츠에 대해 알고 싶은 모든 것! 1566-1114"